금주 법구

번뇌는 깊고 깊어 밑바닥 볼 수 없고
생사의 넓은 고해 가없는 허공인데
고해를 건너가는 반야선 구하지 못했거늘
가엾다 발을 벗고 편안히 누움이여.

-최선삼매경-

봉사하는 불교 실상선원 031)745-8503
011)286-2680
서울 성북구 상월동
실상선원
041)734-2680
천흥사 대전 논산시 원산면 송정리

현대불교

내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4월 25일 수요일 (주간) 제316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불교출판 화두 '살아남기'

"이런 어려움은 처음이에요. 무엇보다도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해 내보내야 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 고비를 순탄하게 넘겨 살아남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불교서적 출판만으론 이제 원로대접을 받는 한 출판사 사장의 한숨소리는 최근 불교 출판계의 현실을 함축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요즈음 그의 걱정은 '좋은 책' 만들기가 아니다. 살아남기다. 올해 들어 불교출판사들은 사실상 휴업 상태라 할 정도로 신간 발행 종수를 줄였다. 한 달에 2권 이상을 낸 불교전문출판사가 거의 없을 정도다. 이중에서 번역서나 기존 기획물을 제외하면 이렇다할 책은 전무한 상태다. 심지어 출판 방향을 자비출판이나 법공양물로 전환한 곳도 있다. 큰맘 먹고 책을 내놔도 독자들의 사랑을 받을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이다.

한 불교전문출판사 사장은 "불교출판이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비관론을 내놓았다. 지난 80~90년대와 달리 재정, 기획, 인력, 소재 등에서 완전히 새로운 환경을 만났기 때문이다. 웬만한 기획이나 소재는 한번이상 출간한 상황에서 이를 능가하는 새로운 출판물을 내놓기란 인력이나 재정면에서 역부족 상태란 얘기다. 설상가상으로 뛰어난 마케팅 능력을 갖춘 일반출판사들의 불교시장 공략으로 경쟁력마저 잃은 상태다. 결국 불교출판사들의 최후의 처방은 운영비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 대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인력 축소와 신간 발행 자제'일 수 밖에 없다. 최악의 선택을 최선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역량 있는 필자의 기근과 그나마 몇 안되는 필자들의 불교출판사 기피현상 그리고 출판물의 과도한 광고 의존도 현상은 이러한 악순환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본과 인력의 열세 속에서 불교전문출판사가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창의성 밖에 없다. 불교출판사만이 엮어낼 수 있는 독특한 소재를 고안해 대중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곧 불교출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길이기도 한다. 아울러 고급화와 출판 시장을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효율적인 운영을 한다면 분명 불교출판은 지금의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김중근(취재 2부 기자)

장 군 죽 비

◇108명의 조계종 스님 'NMD' 반대 선언. '방어'라는 말에는 이미 '공격'이 내장되어 있음을 '미국'은 왜 모를까? (5면)

◇네덜란드, 세계 최초로 '안락사' 인정. 인간이 인간의 '삶과 죽음'에 간섭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에 대한 본격적인 의문 제기. (8면)

◇국가 지정 문화재 중 불교문화재 61%. 문화재위원 중 불교문화재 전문가는 7%. 공든 탑이 무너질 수밖에. (16면)

◇강원도 고성군 전통사찰 주변 개발 제한키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여, 고성군을 '벤치마킹' 하라. (23면)

"종교편향 법적 대응"

조계종 '공동변호인단' 구성 추진
종교자유 침해 국가상대 소송

교계가 종교편향사건의 근절을 위해 법적 소송의 방법으로 근본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는 공익소송 등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사회적 이슈화하여 종교편향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어서 그 활동이 주목된다.

조계종 종교편향대책위원회(위원장 양산 총무원 사회부장)는 98년 창립 이후 3년 동안 종교편향 사건의 근절을 위해 대응해 왔음에도, 종교편향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자유 침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없는데 따른 것으로 보고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이를 위해 종교편향대책위는 25일 배금자 변호사와 면담을 갖고 소송 방법, 공동변호인단 구성, 종단 차원의 지원 방법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배 변호사는 종교자유의 침해와 관련한 미국의 판례를 수집하여 연구한 전문 변호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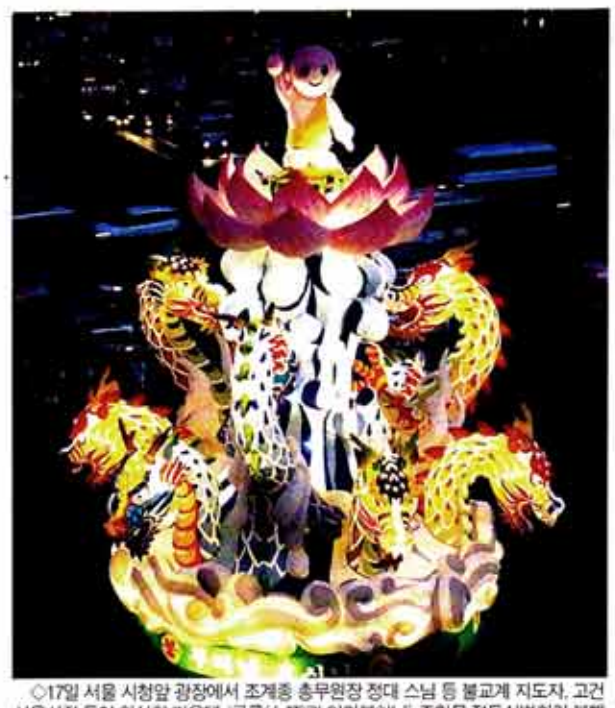
종교편향과 관련한 소송이 활발한 미국의 경우,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특정종교행위를 할 경우 곧바로 타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이뤄진다.

우리나라에서는 1964년 종교 형평성을 들어 김선흥씨가 국가공휴일 지정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행정소송과 용태영 변호사가 1973년 부처님 오신날 공휴권 확인청구소송이 있을 뿐이다.

종교편향대책위는 종교편향전담 공동변호인단이 구성되면 그 동안 수집한 편향사례를 분류 분석하여 사례별 소송 대책을 미리 수립하여 사건 발생과 함께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배금자 변호사는 "종교편향 사건은 명백히 헌법의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다"며 "참다운 종교의 자유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한 소송이 활발하게 제기되어야 개인의 종교자유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17일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 등 불교계 지도자, 고건 서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룡(九龍)과 아기부처님' 조형물 점등식법회가 봉행됐다. 조형물은 부처님 탄신 설화에 나오는 '아홉 마리 용이 물을 뿜어 아기부처를 관욕시키는 모습'을 상징화한 것으로 5월 2일까지 불을 밝혀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을 온누리에 전하게 된다. 사진=고영배 기자

진각종 새 통리원장 효암 대정사

교육원장 혜정 대정사



◇효암 대정사



◇혜정 대정사

불교 진각종 제26대 통리원장에 효암(孝庵) 대정사가 선출됐다. 진각종 종의회는 19일 서울 총인원내 종의회 회의실에서 종의회 의원 37명 중 36명이 출석한 가운데 제325회 정기종의회를 열고 26대 통리원장으로 효암 대정사(대구교구청장)를 선출했다. 종의회는 또 9대 교육원장에 현 종학연구실장 혜정(惠淨) 대정사를 선출했다.

신임 통리원장으로 선출된 효암 대정사는 당선 소감을 통해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종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의 발전적 변화를 모색하는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4면)

통리원장과 교육원장 외이 · 취임식은 5월 17일 오후2시 서울 통리원에서 거행된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하나된 민족' 기원 대법회

종단협 · 봉축위 주최
26일 1천여명 동참

부처님 오신날 봉축 '민족화해 협력과 조국통일 기원대법회'가 26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다

'하나된 민족, 하나된 조국'을 주제로 내건 이번 법회는 종단협의회와 봉축위원회가 공동 주최해 열리며, 종단협의회 소속 26개 종단 총무원장과 신도 대표, 정 · 관계 인사 등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법회는 종단협의회 회장 정대스님의 봉행사, 김대중 대통령의 치사,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의 기원문 낭독, 진각종 성초 통리원장의 불자의 다짐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종단협의회 사무총장 홍파스님(관음종 총무원장)은 "이른 시기에 2차 남북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불자들의 의지를 모으는 데 법회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정성윤 기자

서울 시청앞 봉축 조형물 '점등'

부산역 광장에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는 17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구룡(九龍)과 아기부처님' 조형물 점등식을 봉행하고 부처님 오신날 연등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시청 앞 광장에 설치된 대형 조형물은 부처님의 탄신 설화에 나오는 '아홉마리의 용과 용이 물을 뿜어 아기부처님을 목욕시키는 모습'을 상징화한 대형 조형물로 높이가 15m에 이른다.

점등식에는 정대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혜초스님, 천태종 교무부장 춘광스님, 봉축위 집행위원장 원택스님,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 고건 서울시장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 봉축위원회(위원장 성오 범어사 주지)도 18일 부산역광장에서 2천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축조형물인 8각9층탑 점등식을 봉행했다. 점등에 이어 참가자들은 '나누는 자비, 하나되는 부산'이라는 표어를 촛불로 밝히며 봉축의 의미를 되새겼다. 정성윤 · 천미희 기자 (swjung@buddhapia.com)

알 림

다음주 신문(317호)은 '부처님 오신날 특집호' 제작 관계로 배달이 하루나 이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一心佛院
각종 불사 / 불교 용품 일체
大佛, 小佛, 불탑, 탱화, 단청, 단집
02-725-2030 / 725-2040

1구좌 1천원 법보시운동

군부대 · 경찰서 · 교도소 등
현대불교신문을 보냅시다

현대불교는 소외된 이웃과 우리 사회를 지켜 가는 분들에게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고자 군부대, 교도소, 양로원, 고아원, 병원 및 사회 복지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대불교신문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불국토를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월 1천여 법보시 후원자가 동참하여 매주 2천 여부의 신문이 군장병 교도소 수형자 등 계개인 앞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24만1천 여부의 신문이 포교사 기능을 톡톡히 수행했습니다.

동참하신 보시는 일시적이지만 법보시의 공덕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무한한 공덕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금강경에서 이보시가를 "사구게 하나라도 남에게 일러주는 공덕은 상한 대천 세계를 가득 채운 만큼의 칠보로써 보시한 공덕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 법보시 후원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 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법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은행에 가셔서 아래의 계좌로 통장계좌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자동이체 및 온라인 입금 방법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법보시 후원 자동이체 계좌번호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006-01-0783-830	농 협 057-01-230053
한빛은행 082-090001-13-701	느한은행 324-05-007450
외환은행 150-13-12002-6	뱅크라인 50-01-12450
서울은행 15501-2269115	제일은행 100-20-560709
조흥은행 390-01-096471	기업은행 024-022451-04-012
하나은행 111-216474-00104	한미은행 100-51057-249
주택은행 504537-01-000064	동화은행 052-25-0001-512

■ 법보시 후원금 문의 및 안내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737-8881(대표) (02)737-0090(직통) 팩스 (02)737-0697

세천년의 발원
- 온 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연등의 종류별로 영기등이 있습니다.
■ 각 사찰이름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만월등)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전선케이블 시공된 연등등
팔모주름등
(빨강) (핑크) (노랑) (연두) 보관형태 (팔모주름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빨강) (노랑) (오색) (차걸이등)
팔모조립등
(빨강) (노랑) (주련등 빨강) (주련등 노랑) (육각등)
만월등
(핑크) (노랑) (오색) (만월장등)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문업체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찰각형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사 설

'신도교육' 기대와 우려

조계종의 신도교육 의무화 사업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포교원에 설치된 신도교육위원회는 전면적인 실시에 앞서 전국의 150개 사찰과 지역에서 우선 실시하기로 18일 결정했다. 9월부터는 모든 사찰에서 신도교육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제정한 신도기본교육 시행령에 따르면, 신도들은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수계를 받을 수 있다. 사찰의 신도교육 실시를 독려하기 위해 각종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신도기본교육 시행령을 마련함으로써 신도의 교육 체계를 마련했다고 본다. 그 동안 조계종은 교육받은 신도의 배출, 이를 통한 신도의 조직화, 나아가 기복불교를 극복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그래서 시행령의 제정은 조계종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부작용도 적지 않음을 지적하고 싶다.

불교의 교육은 교재 몇 권 떼고, 소정의 과정을 이수했다고 완수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는 변화, 깨달음과 보살행의 발원을 세우고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교육이 시작된다고 본다. 교육은 강의실에서의 강의와 책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스님과 나누는 대화중에, 도반의 몸짓에서도 배우고 익힘이 스며 있다. 이 점을 유념해 '닫힌 교육'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교육 방법의 개발도 뒤따라야 한다.

특히, 신도기본교육의 시행이 불교에 대한 우호층을 와해시키는 결과를 경계해야 한다. 불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들어오는 문턱이 높지 않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것을 불교의 단점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1년에 한 번 사찰에 가는 사람일지라도 불자가 아니라고 내치지 않는 것이 불교이다. 신도교육의 의무화가 자칫 불자와 비불자를 편가르기 하듯 나뉘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청된다.

아울러 불교 우호층을 넓히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기를 바란다. 불교문화를 통해 삶이 연기적 관계임을 확인케 하고, 사찰의 지역사회 활동을 강화해 불교와 중생들의 삶이 떨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줘야 한다.

백제불교회관 역할 크다

한국의 불교신도가 1천만이니 2천만이니 하지만, 실제로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며 실천하여 깨달음의 수행을 생활화하고 있는 불자가 얼마나 될까? 어떤 단체 어떤 상황에서 참 불교신도를 얼마만큼 찾아낼 수 있을까?

포교는 불교의 생명이다. 새 시대는 지식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불교 포교는 어쩌면 그 방법을 과학화, 제도화, 구체화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참으로 무궁무진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조계종 포교원이 불교세가 미약한 취약지역인 대전과 인천에 포교거점을 마련하고, 불교 활성화 계획을 세웠다.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대전의 백제불교회관을 개관하고 운영위원장 장곡스님의 원력으로 30여 신행단체가 입주하여 포교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한다. 백제불교회관 건립에 하나로 뭉쳐서 지역불교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괄목할만한 대작불사이며, 의욕을 가지고 시도하는 만큼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길 바라는 마음이 적지 않다.

외국의 경우, 대만의 도심포교활동을 주목해볼만 하다. 산중과 스님 위주의 신행 · 포교에서 신도들의 적극적인 도심불교 · 복합빌딩의 건립으로 도심의 포교거점이 날로 확산되고 있으며, 스님들과 신도들의 협력으로 도심의 신도 폭이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종 직장의 신행단체로 활성화되고 있다.

그 동안 신행단체는 종단이나 사찰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으며, 스님들은 신도를 필요로 하면서도 신행단체는 경원시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새롭게 태어난 백제불교회관에서는 입주한 신행단체들이 자립성을 발휘하여 재정적 토대를 확립하고, 합리적 의사 결정을 통한 포교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스님들도 지도자로서의 법력을 아낌없이 발휘하고 지원하여 승가-재가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해 사찰과 지역사회 발전에 전형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150개 사찰서 신도교육

조계종, 5월14일부터…불교역사 · 교리등 가르쳐

조계종 신도교육이 5월 14일부터 전국 150여곳의 지역과 사찰에서 시범 실시된다.

조계종포교원(원장직대 상운) 신도교육위원회는 18일 회의를 개최하고 △기본교육 시행령 △기본교육실시 지침서 △신도교육일정 등을 확정했다.

신도기본교육 시행령에 따르면, 조계종 재적사찰 신도들은 소정의 입문절차를 마치고, 신도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도교육 내용은 △불자예법 및 불교의례 △부처님 생애 △기초교리 △불교역사 △수련회 △불자의 길 △사찰의 이해 △철야정진 등이며, 6개월 동안 12회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계를 받아야 신도증을 획득하게 된다.

신도교육 시범 기관은 지정 사찰과 포교원에 신고된 사찰의 연합교육기관, 포교원장이 인가한 전문교육기관에 한한다. 또 교육자도 구족계를 수지한 승려와 군승 교법사 포교사 등 종단에서 인정하는 자격 품수자, 불교학 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신도단체 주요 임원으로 한정했다.

포교원은 신도교육 시범 실시를 희망하는 사찰의 추가접수도 받고 있다. 포교원은 시범 사찰에 대해 기본교육교재 50권 무상지원, 강사진 지원, 포교원 실무자 파견 기획 진행 평가과정 지원, 각종 서식 제공 등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문의 02)720-7060.

포교원은 신도법개정을 통해 신도들의 기본교육을 의무화하여 9월경부터 모든 종단사찰에서 신도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한마음선원 · 혜조스님 전통등 경연 '대상'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회는 18일 전통등 경연대회 심사위원회를 열어 개인부문 최우상이 '수양매화 나무용등'을 출품한 혜조스님, 단체부문에는 '나비등 · 과일등 · 별등'(사진)을 출품한 한마음선원을 최우수상 수상단체로 선정했다. 능인선원은 우수상, 진관사는 특선의 영예를 안았다. 개인부문 시상식은 27일, 단체부문 시상식은 29일 동대문운동장 연등법회에서 실시한다. 사진=고영배 기자

전신회-중신회 통합 움직임

전국신도회(회장 선진규)는 18일 "양분된 신도회가 존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국신도회와 중앙신도회가 통합하여 종단의 대표신도회로 거듭나야한다"는 의견서를 조계종 총무원과 포교원, 중앙신도회에 제출했다.

전국신도회는 신도회 통합을 위해 △50년 역사성을 존중하여 전국신도회 명칭사용 △양측의 신도임원 전원 사퇴 △각 5명의 대표로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5월 15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원우 기자

"교과서 왜곡 · 침략 참회"

민족정기 선양협 촉구

민족정기선양협의회(공동대표의장 월주)는 23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소연회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역사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 한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통해 일본정부의 사죄를 촉구했다.

민족정기선양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역사교과서 재수정은 물론 침략의 죄과를 진실하게 참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김순덕 할머니 등 나눔의 집 위안부 할머니 10명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바른 역사를 세우는데 온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명우 기자

남북협력기금 53억 지원

통일부, JTS등 11개 단체

통일부는 19일 한국JTS 등 10개 민간단체의 11개 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에서 52억9천9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공동회장 법타스님)와 한국JTS(이사장 법륜)은 각각 1억6000만원, 6억9600만원을 지원받아 금강국수공장 운영등에 쓸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문화재청장 노태섭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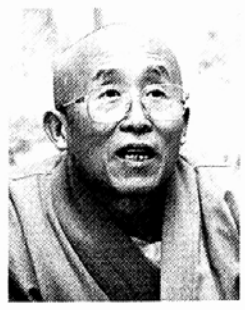
문화관광부는 17일 문화재청장에 노태섭 예술국장을 승진 발령했다. 이어 종무실장에 박문석 기획관리실장, 종무관에는 김준영 중앙박물관 건립추진기획단장을 각각 임명했다. 권형진 기자

인터뷰

봉선사 조실 추대된

월운스님

"대중의 안목 넓히기 주력"



"조실이란 말은 주실(麈室)에서 유래했습니다. 인도의 우바국다 존자가 많은 사람들을 제도했는데, 한 사람을 제도할 적마다 산가치(籌) 하나씩을 방에 쌓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제도했던지 사방 여덟 자(방장;方丈) 방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방장화상의 주석처를 주실이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실(祖室)'로 바뀌었지요."

20일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조실로 추대된 월운스님은 조실이란 말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으로 소감을 밝혔다.

"자각종색 선사는 〈귀경문〉을 통해 '조실은 대중의 안목을 열어주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퉁도사 큰방 주련에 쓰여있는 어느 고인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조실은 세속의 물정을 꿰뚫어볼 줄 알아야 한다(善知識能知物情)'고 했는데…."

스스로를 안목 조실이 아닌 명자(名字) 조실이라고 생각한다는 월운스님은, "스님들이 출가를 했다는 생각을 잃어버린 데서 한국불교의 문제가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소임과 관련해 스님은 "하고 싶어도 차례대로, 하기 싫어도 차례대로 하는 불가의 오랜 전통을 되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두가 자기의 조실이 되어야 합니다. 요새 나는 '월운아,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름에 끄달리느냐. 마무리 잘 하고 가야지',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동국역경원장도 겸하고 있는 월운스님은 팔만대장경 한글 전산화사업 만큼에는 욕심을 감추지 않는다.

"월 1천원을 후원할 3만명을 모으는 게 남은 일입니다. 원을 세우고 동참할 인연을 모으는 운동이 없이는 불교의 살길은 없습니다." 정성운 기자

"분단예토를 통일정토로"

정대스님 대북봉축인사

종단협의회 회장 정대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19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북녘 불자들에게 보내는 봉축인사말'을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에 보내고 "더 이상 분열된 민족으로 남지 않겠다는 굳은 서원을 세우자"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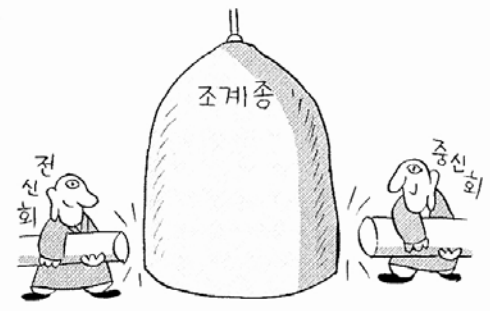
정대스님은 인사말에서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불국정토의 서원을 세우고 분단예토를 통일정토로 일궈나가는 길에 힘을 다 하자"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고통받는 이에 희망을"

천주교 봉축 메시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천주교 주교회의는 20일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다. 주교회의 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 최기산 주교는 메시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 희망을 불어넣는 일에 불자 여러분과 천주교 신자들이 함께 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현대만평 박 구 원



하나의 소리로

불기2545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처음도 좋고 끝도 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불자를 위한 불교 전화기 부루나폰

국내 최저 가격에 기능은 최고의
발신자 정보표시 전화기

잠깐 자리비운 사이 중요한 전화 놓친적 없으십니까?
이제 부루나 폰 (Buruna phone)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빅히트 일본수출품



부루나폰 BURUNA PHONE

●부루나(BURUNA) 부루나 존자는 부처님으로부터 설법 제일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그의 본명은 푸르나 마이트라야니 푸트이며 푸르나는 "충만된" "만족된" 뜻으로
자애로운 마음으로 충만된 여성의 자식 이랄수 있다. (滿慈子)(滿足慈子)

- 2001년 5월 1일 ~2003년 3월31까지 전화사용요금의 5% 할인혜택
- 발신자 번호를 199개까지 기억 (부재중 전화포함)
- 콜백기능과 재다이얼기능
- 장거리 지역번호 자동입력 장치
- VIP 저장기능 및 단축다이얼 10개 저장
- 선 · 후불카드번호 저장 및 다이얼, 개인암호
- 외부로 건 전화번호 및 통화시간을 45개 까지 기억기능
- 핸드폰 및 시외전화 잠금장치

부루나폰 BURUNA PHONE

☎상담문의 (주)리치웨이/(주)누보텍
TEL: (02)2271-1020(代)
FAX: (02)2271-1025

목어

부처님이 오신다면



머나 먼 오지에서 손님 한 분이 오셨다. 어리둥절하며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그의 모습은 언뜻 보기에 여느 촌로와 다름없이 보인다. 빌딩 숲 사이로 줄달음질치는 자동차의 물결, 사람들도 뭔지 모르게 하나같이 바쁘다. 고약한 매연이 목과 코를 덮쳐온다. 숨쉬기조차 만만치가 않다. 하늘을 올려다본다. 잿빛 하늘이 머리를 감싸고 있다. 몸치장을 잔뜩 한 사람들, 그들의 마음치장이 궁금하다. 가게마다 산더미처럼 진열된 갖가지 화려한 상품들은 사람들의 기호와 편의를 충족시키기에 별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신기한 감동보다는 씁쓸한 한숨이 스쳐 지나간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의 사려 깊은 눈빛과 행동거지가 예사롭지 않다. 마치 사람들 마음 속을 다 꿰뚫어 보는 듯하다. 삶에 시달리고 번뇌와 고독에 절어 있는 진면목들을.

다시 눈을 돌려보니 교회의 십자가가 즐비하게 시야에 들어온다. 인지가 이렇게 발달했으면서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신의 노예를 자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이 깊고도 끈질긴 어리석음과 아집의 끝은 어디인가? 현대는 중독의 시대다. 종교에 중독되고 탐욕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비행과 사악함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다.

염불소리를 따라 사찰에 들어선다. 부처님 오신날 준비로 어수선하다. 한켠에선 연등을 달라고 소리친다. 3만원 짜리, 5만원 짜리가 잘 팔린단다. 욕망의 다스림을 가르치기보다는 그 충족을 위해 중생들과 야합하고 있다.

그는 쫓기듯 사찰 문을 나선다. 부처님오신날 나는 무엇을 할까? 그는 어려운 이가 있는 곳에 찾아간다. 그들의 손발이 되어주고 마음의 벗이 되어준다. 그들에게 참진리와 그에 걸맞는 삶을 말해준다. 좋은 자동차를 굴리며 물 좋은 주지자리를 찾아 헤매는 승려를 못 본체 지나쳐 참수행자를 찾아가 격려한다.

부처님이 오신다면 나는 너무 부끄러워 그 분을 도저히 친견할 수 없을 것만 같다. 아마도 이미 와 계실지도 모른다.

도수(정업도량 회주 · 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종교 상호존중 원칙 확립 기대

종교편향 법적대응 의미

1998년 종교편향대책위 발족 이후 최근까지 발생한 방화 및 훼불, 군, 교육 · 공직, 국제 · 이웃종교, 방송 · 언론분야의 종교편향사례는 사찰방화 8건, 훼불사건 10건, 탱화도난 3건, 군부대 훼불 4건, 교육및 공공기관 종교편향 12건, 방송 · 언론 5건, 종립대 훼불 3건, 운송기관 1건 등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건만도 총 46건 이른다. 교계 언론사에 접수돼 개별적으로 해결해 온 사건까지 합하면 3년간 1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동안 교계는 종교편향사건이 명백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종교간 갈등 심화로 비춰질 것을 우려하여 법적 대응보다는 항의 성명, 항의 방문 등 소극적인 대응과 기관장의 사과문 발표, 해당자 징계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해 왔다.

종교편향사건 공동변호인단의 구성은 향후 사건 발생 시 소송 제기 등의 법적인 대응을 통해 편향사건 재발 방지 및 원천 봉쇄의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교편향과 관련한 판례가 남을 경우 다원주의 사회에서 종교간 화합과 신앙활동의 상호존중원칙도 지켜지는 사회적 흐름변화도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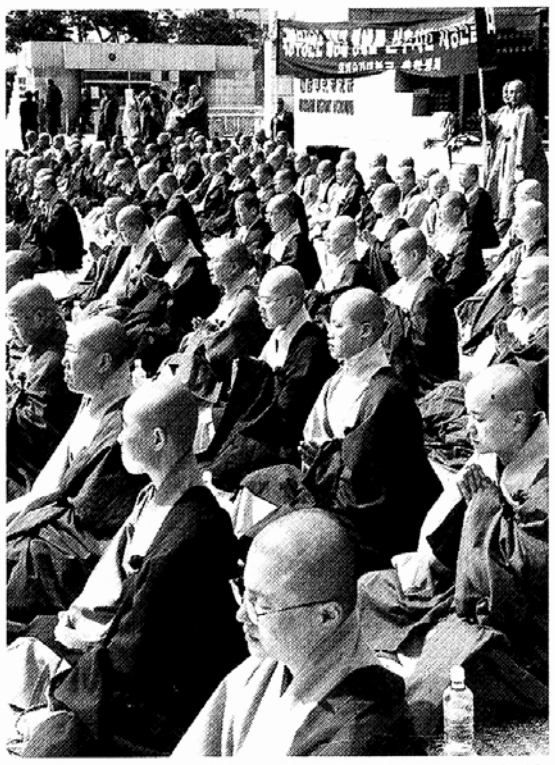
종교편향대책위원회의 소송을 통한 근본 해결책 마련 방안은 외국 특히 미국의 사례처럼 합법적인 방법으로 종교편향사건을 근절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모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헌법에 명백히 종교의 중립성과 개인의 종교 자유 침해 근거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없어 시정되지 않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소송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국민들에게 간접적으로 교육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공익소송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인식을 높이는 사회개혁운동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소송에 다른 판례가 축적될 경우 종교편향 방지법과 같은 법률제정 운동도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최근 3년새 훼불 1백여건 항의 성명 · 방문 등 소극 대처

앞으로는
법적 근거 마련 원천봉쇄 '종교편향 방지법' 제정 추진



◇종교편향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면 종교간 상호존중의 원칙을 세울 수 있다. 사진은 군내 종교사건에 항의하는 중앙승가대 학인들의 시위 모습.

● 종교의 자유와 그 범주

우리나라의 헌법은 제20조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개인의 마음 작용인 신앙, 종교적 행사, 종교적 집회 및 결사, 포(선)교활동 등을 행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유와 무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사 및 종교적 집회 · 결사 또는 선교활동 등을 강제받지 않는 소극적 자유를 뜻한다

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에 따라 개인은 신앙문제에 관하여 외부로부터 강제를 받지 않고 신앙선택의 자유, 개종의 자유, 무신앙의 자유, 신앙고백의 자유, 자기가 신앙하는 종교를 외부의 강제에 의하여 표명하지 않을 자유가 보장된다. 이런 의미에서 어떠한 경우나 개인에게 강제적으로 종교를 권유하거나 강압적으로 종교선택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다.

하지만 헌법은 마음의 작용을 의미하는 신앙의 자유만 제외하고, 국가 안전보장 · 질서유지 · 공공복리를 해치는 경우에는 종교행사, 종교집회, 종교결사, 포(선)교 및 종교교육은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 빈도높은 사례연구

교육기본법 제6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교육기관의 학교장이나 교사는 특정종교를 지지하는 일이나 행동, 특정종교의 교리를 가르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동안 교계에 신고된 10여건의 교육 관련 종교편향 사건의 경우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경책을 나눠주고, 수업시간에 성경구절을 읽게 하는가 하면 유인물에 성경문구 삽입, 불교교리 모독, 스님 비하 등이 주를 이룬다.

이런 경우 교육기관에서 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고, 학생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한 만큼 헌법상 종교의 자유 보장과 교육기본법상의 이유로 소송이 가능하다. 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하다.

소송을 제기할 때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한 학생의 학부모와 종교편향대책위가 공동으로 원고단을 구성하고, 피고는 해당 학교장과 교사 그리고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국 · 공립학교는 정부가 된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종교편향대응 미국에선

'종교자유' 소송 판례 수백건

회교권 국가를 제외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해 놓고 있다.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소송이 가장 활발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에는 종교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한 판례가 수백 건에 달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경우 교육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연루된 종교 편향사건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테스트 기준은 세 가지이다. 첫째, 정부의 행위가 세속적 목적을 가져야 한다. 둘째, 정부행위의 주된 효과는 종교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셋째, 정부행위는 지나치게 종교행위와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배금자 변호사가 저술한 〈인간을 위한 법정〉에 수록된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미국의 실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에서 기도 못한다

펜실베니아주는 50년대 후반에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날마다 수업 전 성경을 낭독토록 했다. 성경낭독을 거부하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의 요청서를 제출하면 면제되었지만, 소리는 방송시설을 통해 학교 전체에 들렸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이 학교의 유태인 학생들은 성경낭독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메릴랜드주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무종교인들에 의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성경낭독이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이며, 그 효과 또한 종교를 신장시키는 것이라 판단하고 헌법상 종교교육 금지조항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후 앨라배마주에서 시행한 1분간의 침묵시간도 입법과정에서 볼 때 종교를 지지할 우려가 있다며 금지판결을 내렸다.

쇼핑센터의 크리스마스트리와 아기예수 장식

로드아일랜드에 있는 포터켓시는 해마다 쇼핑센터 한가운데 위치한 공원에 크리스마스 장식물을 설치해왔다. 트리에는 '산타클로스' '순록' 이라 새겨진 글자판을 장식했고, 그 중에는 종교적 상징인 아기예수 탄생 장면도 포함했다. 이에 대해 포터켓시의 시민권단체인 ACLU 회원들은 1980년 크리스마스 장식물이 종교국교금지 조항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연방 대법원은 합리적인 관찰자가 그 전시물을 볼 경우 정부가 종교적인 혹은 어느 특정 종파의 메시지를 지지하고 있다고 믿게 된다며 이 장식물은 종교국교 금지조항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현대불교 · 붓다뉴스 · 부다피아

종교편향 제보 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헌법상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종교편향사례 접수창구를 개설합니다.

종교편향사건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행위 입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종교편향사건은 이루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국민들을 이간시키고, 사회를 혼탁하게 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본사에서는 종교편향사건의 중대성을 사회에 이슈화하여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종교간 상호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특히 종교의 자유 침해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교육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이뤄지는 종교편향내용을 제보하여 주십시오.

현대불교 편집국 02)722-4162
www.buddhanews.com, www.buddhapia.com

부처님 오신날



◎ 흥천사 대구 포교원 철야기도
매월 음력 23일 오전 10시 부터 24일 낮 12시 까지
매주 화 · 수 기도법회(오전 10시 ~ 오후 5시 까지)
Tel. 053) 635 - 5932

흥천사는 음력 매달 1 · 15일 철야기도법회
◇ 명예회장 : 원태성, 채태선, 박재학
◇ 신도회장 : 이영자, 박정미
◇ 부회장 : 강시연, 문선하, 장경화, 이용조, 지정숙, 최미애
◇ 총무 : 오미야
세계오백불, 극락도량 및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불사 중





문경새재 조령산 흥천사 주지 동봉 합장

■ 충북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48번지 Tel. 043) 833 - 5525

일주문



신흥사 국운융창 법회

벽암 신원사 조실은 15일 신흥사 주최 '국운융창과 정치 · 경제 발전기원법회'에 보살계 전계대화상으로 참석했다.



경남 불교협 4대 회장

세민 해인사 주지는 19일 진주 동방호텔에서 열린 경남불교협의회 회의에서 제4대 회장에 선출됐다.



구청장 보선 후보 토론회

자용 서울 은평구 바른선거 모임 회장(수국사 회주)은 16일 4 · 26 은평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개최했다.



금강불교학원 사무처장

월장 안동 해동사 주지는 1일 학교법인 금강불교학원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스님은 천태종 문화국장 등을 역임했다.



4 · 19 문화상 받아

신경림 시인은 4 · 19 정신 실현에 앞장서 온 공로로 17일 (사)사월회가 수여하는 제2회 '4 · 19 문화상'을 받았다.



단재상 학술부문 수상

이이화 역사문제연구소장은 7일 '한국사 이야기' 시리즈로 단재상 제15회 학술부분 수상자에 선정됐다.



'열린마음 클리닉' 개원

이근후 불교상담개발원장은 19일 삼청동 예띠의 집에 신경정신과 전문의원 '열린마음 클리닉'을 개원했다.



'장기표 정치학교' 열어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은 불교인권위원회와 함께 19일부터 서울 길상사에서 '장기표 정치학교'를 열었다.



인솔루션 회장 취임

김양일 동국대 총동창회 부회장은 최근 소프트개발과 데이터베이스구축 전문회사인 인솔루션(주) 회장에 취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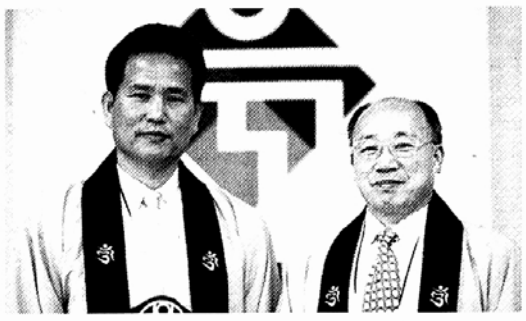


공화랑서 6회 개인전

김대열 동국대 미술학과 교수는 25~5월 1일 인사동 공화랑에서 여섯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시대맞는 제도개선 추진"

진각종 새 통리원장 효암 대정사



◇제도개혁으로 밝은 종단의 미래를 그려가겠다고 밝힌 효암 통리원장(왼쪽)과 혜정 교육원장.

"종단 발전을 위해 시대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실시,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인사 · 재정 등의 행정업무를 지방교구 중심으로 이관하고 대북교류, 복지, 군포교 등의 사업도 내실있게 확대해 가겠습니다"

19일 열린 진각종 제325회 정기종의회에서 제26대 통리원장에 선출된 효암대정사(50)는 전임 성초 통리원장이 추진해 왔던 대북교류, 복지, 교육, 문화 사업들을 이어 차질없이 발전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원만한 인품과 신뢰성 있는 지도력을 인정받아 50세의 젊은 나이로 행정수반에 당선된 효암 통리원장은 이러한 종단 안팎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원로 스승들의 경륜과 지혜, 중진 · 소장 스승들의 열정과 패기를 적절히 조화시켜 이를 종단발전의 견인차로 삼겠다고 말했다.

"불교중흥과 종단발전을 위한 전기가 바로 올해와 내년 집중적으로 펼쳐질 회당대종사 탄신100주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규모 사업을 차질없이 이루어나가도록 하고 특히 젊은

젊은 세대 포교 주력
지방교구 활성화 역점

세대 포교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미래 종단을 이끌어갈 젊은 세대, 어린이 · 청소년 포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포교 대상을 구체화하고 세분화해 내실있는 성과를 도출하도록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화 사회, 인터넷 세대에 걸맞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포교방법이어야만 시대흐름과 발전을 같이 할 수 있다고 강조한 효암 통리원장은 진각종이 교계 최초로 문화재단을 설립하면 이를 통한 다양한 문화사업을 통해 포교의 새 전기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종의회에서 제9대 교육원장에 선출된 혜정 대정사는 "전통밀교, 교법을 재정립하고 체계화시키는데 노력하겠다"며 밀교 대중법회 확대, 회당학술상 제정 등 교학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효암 통리원장은 통리원 재무국장과 문화사회부장, 제8~9대 종의회 의원, 교육원 교육부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회당학원 이사, 진각복지재단 이사, 대구 희락심인당 주교, 대구교구청장 등을 맡고 있다.

혜정 교육원장은 1948년生으로 총인 사서실장, 제6~7대 종의회 의원, 진선여중고 정교, 교법부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유가심인당 주교, 사서실장, 종학연구실장 을 맡고 있다.

이경숙 기자

"소외계층에 삶의 위안 주겠다"

서울복지원 이사장 홍파 스님



"사회가 급변할수록 빈부차가 심해져 극빈계층 소외된 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늘지고 소외된 곳에 있는 이들을 찾아 보살행을 펼치는 것은 불자로서 당연한 도리로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10월 복지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처음으로 '창천노인문화센터'를 위탁받아 19일 개원식을 가진 서울복지원 이사장 홍파스님(관음종 총무원장)은 "스스로의 힘과 원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에게 삶의 용기와 따뜻한 위안을 주는 일이 서울복지원이 지향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노인층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데 비해 노인복지는 형편없이 저조하다고 지적한 스님은 창천노인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소외된 노인들에게 삶의 위안을 주는 여가문화를 제공하고, 건강을 살피는 일을 주로 맡겠다고 말했다. 노인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홍파 스님은 종합복지센터 건립의 꿈도 살짝 내비쳤다. 이경숙 기자

현각 스님 영주 현정사 주지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선의 나침반〉의 저자인 미국인 현각(玄覺) 스님이 경북 영주의 현정사(現靜寺) 주지로 취임했다.

스님은 22일 숭산 스님을 모시고 2백여 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현정사는 불자인 정광명장(鄭光明藏) 보살이 스님들의 참선수행을 돕기 위해 사재를 털어 세운 절로, 숭산 스님의 허락을 얻어 주지직을 맡게 됐다.

스님은 "이번 하안거 동안 선 수행과 지도를 통해 현정사를 참선수행의 도량으로 가꿔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054)635-5529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부산 두송복지관 경로잔치

부산 두송복지관(관장 지현)은 18일 관음사 마당에서 사하구내 노인 1000여명을 모신 가운데 제4회 두송 경로잔치를 가졌다. 매년 관내 노인들을 위한 경로잔치와 관광을 실시해 오고 있는 두송복지관이 마련한 이날 잔치는 어린이들의 재롱잔치, 관음사 합창단 공연, 어르신들의 노래자랑 등으로 흥겹게 펼쳐졌다.



광주불교방송 개국 6주년 기념

광주불교방송 개국 6주년기념 청화(성륜사 조실) 스님 초청대법회가 사부대중 10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18일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성호(광주불교사암련 회장) 보선(대둔사 주지) 현지(원효사 주지) 벽상(천룡사 주지) 영조(증심사 주지) 스님과 김두원 광주전남불교신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대한법화종 구암종정 추대식

대한불교 법화종 제 6대 종정 구암대종사 추대법회가 19일 호텔 소피텔 앰베서더에서 총무원장 서리 혜륜스님 등 종단스님들과 신도 등 3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구암스님은 법어에서 "산천계곡 물소리 부처님의 설법소리인 듯 / 어느 뉘라서 그 뜻을 이해하리요 / 일만 가지 법이 일합에 든다니 / 어찌하면 완벽한 사람되기를"이라고 설했다.



무량종 총무원장 혜안 스님 취임

무량종 제2대 총무원장 혜안 스님 취임법회가 15일 경남 하동 칠보정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무량종 원로원장 지은스님, 본원종 대화 총무원장, 신도 등 6백여명이 참석했다. 혜안스님은 취임사에서 "새롭게 창종하는 정신으로 종단 체제와 기틀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교사 전문아카데미 첫 입학식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기병)은 14일 포교원 4층 강당에서 포교사전문 아카데미 제1회 입학식을 열었다. 입학식에는 상운(포교원장 직대) · 계성(교육원장 직대) · 홍선(중앙승가대교수) 스님, 김기병 포교사단장, 오희백 포교사전문 아카데미준비위원장과 100여명의 1기 신입생 포교사들이 참가했다.



제6회 현대불교문학상 시상식

현대불교문인협회(회장 수완)는 14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제6회 현대불교문학상 시상식 및 부처님 오신날 기념 시낭송회를 가졌다. 이날 문학상 시상식에서 시 부문은 시인 신경림 씨, 소설 부문은 소설가 한승원 씨, 평론 부문은 동국대 홍기삼 교수가 수상했다. 시상식에 이어 현대불교문인협회 회원들의 시 낭송회가 이어졌다.

취운 선원 입방 공고

영축총림 통도사 취운선원에서는
제방선원에서 수행정진하시다 새로이 선원장으로 부임하신
야산 청운 큰스님의 지도하에 신사년 하안거에 동참 정진하실
재가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 하안거 결제일 : 불기 2545년 4월 15일 (음)
■ 입방 신청 마감 인원 : 선착순 50명
■ 입방 자격 : 참선수행에 관심있는 남여 재가 불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도사 취운선원 종무소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Tel. 055) 383-6479 , 381-0970
Fax. 055) 384-4570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

대한불교 조계종 영축총림 통도사 취운선원

근본불교 진흥원 **서울불교대학**
서울 · 서초구 서초동 1640-2 ☎ 02)588-8009 · Fax 02)588-8055

대한불교 조계종 **여래선원**
서울 · 서초구 서초동 1640-2 ☎ 02)588-8009
대구 · 수성구 범어동 292-15 ☎ 053)744-9009

모 제1기생 집

말이나 글을 믿을 필요가 없다. 와서 직접 체험하라. 붓다이신 고타마 성자의 참 가르침만을 고집하는 집. 참 가르침인 원시경전과 위빠싸나 수행의 실천만이 있는 곳 진리는 말이나 글의 저 너머에 있다.

미얀마 국립 국제 불교대학교, 미얀마 국립 승가대학교의 자매대학.
마음 길들이고 마음 다스리는 붓다의 가르침(원전)과 실천(위빠싸나)으로 그대들도 불교명상 지도자가 되어 나누며 정진하라!

특 전

※ 각 과정 수료시 소정의 법계 품위를 수여함. ※ 국내의 어디든지 여래선원의 지원을 개원할 수 있음.
※ 선원 개원시 직접적(경제적 · 인적)으로 적극 지원.
※ 미얀마 · 국제불교대학에 편 · 입학 할 수 있음. ※ 미얀마 · 국제승가대학에 편 · 입학 할 수 있음.

모집안내

1) 모집과정
- 포교사(디플로마) : Dip(B.Dh) ; Diploma in Byddha Dhamma
- 교법사(학사 과정) : B.A(B.Dh) ; Bachelor of Art in Buddha Dh.
- 선법사(석사 과정) : M.A(B.Dh) ; Mastor of Art in B. Dhamma.
- 대법사(박사 과정) : Ph.D.(B.Dh) ; Doctor of Philosophy in B. Dh.

2) 입학자격
- 참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려는 자
- 전 과정 수료 후 여래선원 · 지원을 개원하려는 자
- 각 지원에 자원 출강 할 수 있는 자 · 해외 유학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교육기간
- 불교기본 수료(포교사 품위) 과정 : 1년 (4주 집중수행 필수)
- 불교학 학사(교법사 품위) 과정 : 2년 (8주 집중수행 필수)
- 불교학 석사(선법사 품위) 과정 : 3년 (12주 집중수행 필수)
  본대학 · 미얀마 국제불교대학교 공히 인증
- 불교학 박사(대법사 품위) 과정 : 4년 (16주 집중수행 필수)
  본대학 · 미얀마 국제불교대학교 · 국립승가대학교 공히 인증

4) 수업시간 주 3일(월, 화, 수) 중 주 1회 시간 선택 필히 참석
월요일 10:30 ~ 12:00 화요일 19:30 ~ 21:00 수요일 10:30 ~ 12:00

5) 입학식 2001년 5월 27일(일요일) 오전 10시 30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위를 맞춰야 할 제 3자는 없느니라 법과 자신만을 의지해서 쉼 없이 정진하라!"
라는 붓다의 가르침을 믿고 마음을 길들이고 다스리려는 선우들을 위한 시민 선방이며 쉼터입니다.
우선 성내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려 보십시오
종교나 사상을 뛰어넘어 마음을 길들이는 노력은 거룩한 작업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되는 깨달음을 위해 정진하려는 선우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 입 방 안 내

1) 입방자격
종교 · 학력 · 연령 제한 없음
불교를 보다 사실적으로 이해하려는 자

2) 제출서류
입방원서(본원 소정양식) 1부
여권용 사진 2매

3) 원서교부 · 접수기간 :
2001. 4. 20~2001. 5. 25

4) 개원식 : 2001년 5월 20일(일요일) 10시 30분

2,3호선 교대역 1번 출구 전방 150M (던킨도너츠 점) 에서 우측 100M (두란노 고시원 앞)

우리 모임에선

은평구청 봉축탑 점등법회

은평구청 불심회(회장 이길영)는 17일 은평구 불교사원연합회와 공동으로 은평구청 광장에서 '나라와 은평 구민을 위한 봉축탑 점등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은평구불교사원연합회 회장 성운, 수국사 회주 자용스님을 비롯해 은평구청장 권한대행 최희주씨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성북경찰서 100명 수계

성북경찰서불자회(회장 민철기) 20일 경찰서 학림관에서 불자수계식 및 창립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가산불교문화원 지관 스님을 계사로 불자회 회원들과 전 · 의경 100여명이 수계를 받았다.

달마산악회 창립 등반



김제불교 달마산악회(회장 박영봉)는 15일 해남 달마산 미황사로 창립 등반법회를 다녀왔다. 회원 90여명은 이날 보물 제1183호인 미황사 대웅보전 앞에서 법회를 봉행하고 주지 금강스님으로부터 사찰소개를 들었다. 조기식 전북지사장

중앙병원 봉축음악회

중앙병원 법우회(회장 김영태)는 19일 병원 강당에서 봉축법회 및 법당개원 11주년 환자 쾌유음악회를 개최했다. 봉축법회에는 봉은사 원혜,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과 법우회원 및 환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어 진행된 음악회에는 불광사 마하보디 합창단, 삼선승가대학 손울림회 수화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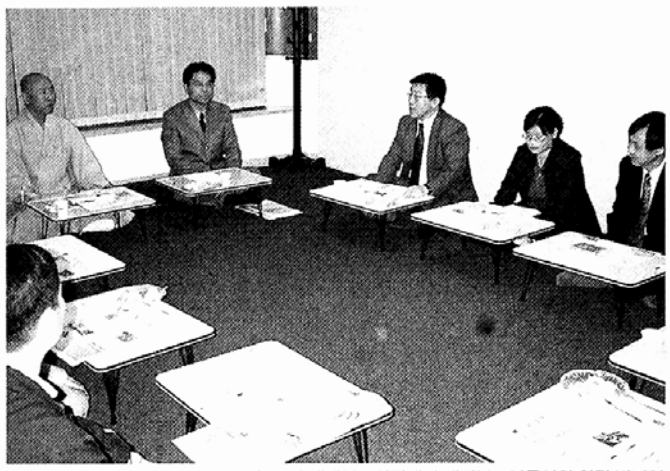
해병대 불자회 창립법회



예비역 해병대 불자회인 해불회(회장 김홍국)는 15일 강남 봉은사 법왕루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봉은사 주지 원혜, 강화 무애원 설봉스님을 비롯해 김정호 전 해병대 사령관, 가수 김세레나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흥국 회장은 "팔각모를 쓰고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쳤던 그 정신으로 괄정도를 실천하여 불국정토를 이루는데 앞장서는 해불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봄바람 타고 '한밭불심' 도약

불교활동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대전지역에 언론인, 경찰 등 직장직능 불자회가 잇달아 창립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특히 지난달 조계종 포교원이 포교 거점 도량으로 설립한 백제불교회관을 중심으로 직장직능불자회들이 정보교환이나 유기적 연대를 통해 미창립 기관의 불자회 창립을 지원하는 등 신행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올 한해 대전지역 직장직능불자회들의 신행활성화가 기대된다.


◇대전지역 언론인 불자 10여명은 18일 백제불교회관에서 대전불교언론인회 창립 발기인 모임을 갖고 5월25일 창립법회를 봉행키로 했다.

18일 불교언론인회 창립
둔산경찰서불자회 출범
백제불교회관 신행 활발

방송, 신문, 케이블TV, 잡지 등 대전지역 언론기관 종사자 10여명은 18일 백제불교회관에서 대전불교언론인회 창립발기인 모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이날 장곡 백제불교회관 관장스님과 종실 연화사 주지스님을 지도법사로 추대하고, 성기훈 중도일보 감사를 고문에, 김종완 대전MBC 보도국장을 회장에, 신도성 대전일보 논설위원을 부회장에, 이시영 불교신문 대전 · 충남 지사장을 총무로 각각 선임했다. 또한 5월 25일 오후 7시 백제불교회관에서 창립법회를 개최키로 하고 그동안 각 언론사마다 불자파악에 나서는 한편 6월부터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정기법회를 봉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개소한 대전 둔산경찰서도 정보과 강신호씨를 중심으로 불자회 창립을 준비하고 있다. 동부경찰서 재직시절 불자회를 창립했던 강씨는 둔산 경찰서로 전출와 그동안 불자파악에 나서 10여명의 회원들을 확보했고, 5월말경 창립법회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창립법회에 앞서 경승이 경찰서불자회 활성화에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충남시경에 경승위촉신고서를 제출했고, 28~29일 대전 구암사에서 열릴 전국경찰불자연합회 창립 준비모임에 참석해 불자회 창립을 대외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한편 대전정부청사반야회, 서대전세무사불자회, 충남도청불자회 등 공무원 불자회들은 매주 수요일 백제불교회관에서 합동법회를 봉행하며 대전시청, 대전 서부경찰서 불자회 창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달 개소한 백제불교회관에는 현재 30여개의 직장직능 신행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월 한차례 대표자 회의를 갖고 단체간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장곡 백제불교회관 관장스님은 "전법도량으로 지난달 문을 연 백제불교회관이 지역적 특성상 직장직능불자회의 법회와 사무를 보는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앞으로 재가 법사 조직을 활성화해 직장법회에 법사를 파견하는 한편 미창립 기관의 불자회 창립에 노력하는 등 대전지역의 불교활동에 새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삶에서 깨어나 행복찾기

제1회 NGO 명상학교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는 24일부터 조계종 포교원 4층 명상방에서 시민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제1회 NGO 명상학교'를 개최한다.

가칭 참여불교아카데미(준비위원장 ·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교수)의 첫 번째 사업인 명상학교는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 명상아카데미 오원명 원장, 티베트 초펠스님 등의 지도로 30여명의 수련생이 참가한 가운데 매달 넷째주 화요일 저녁 7시 총 6회의 강좌 및 수련, 여름캠프로 진행된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4월24일 '몸으로 살펴본 내 마음의 풍경'(한의사 김명근) △5월22일 '일상에서의 행복찾기'(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 △6월26일 '삶에서 깨어나기'(한국학연구소장, 동양철학가 박현) △8월28일 '일하면서 나를 본다, 행선(行禪)'(명상아카데미 오원명 원장) △9월25일 '내 안의 수많은 나를 찾아서'(위빠사나 지도법사 김열권) △10월23일 '티베트의 지혜와 명상'(초펠스님) 등.

'행복한 NGO활동을 위한 여름 명상캠프'는 오는 7월 12~14일(2박3일) 진행된다. (02)725-6231

김재경 기자



◇조계종 승려 108인을 대표해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 정화스님이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스님 108인 "평화역행 NMD 반대"

"군비경쟁 · 자원낭비 초래"

조계종 중진스님 108인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NMD(국가미사일방어체제) · TMD(전역미사일방어체제) 반대와 평화실현을 위한 조계종 승려 108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교구본사 주지 10명과 중앙종회 의원 45명, 불교단체 대표 및 사찰 주지 53명 등이 동참한 108인 선언의 대표자 스님들은 17일 조계사 설법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기 2545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인류의 평화와 한반도 화해를 기원한다"며 "첨예한 군비경쟁과 막대한 자원을 낭비하는 미국의 NMD · TMD 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경 기자

"어린이 · 청소년포교 희망 심는다"

교사불자련 임원수련회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완숙)는 14~15일 부산불교회관에서 2001년도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임원수련법회를 개최했다.

서울, 부산, 충북, 경북, 경남 등 12개 지부에서 130여명의 교사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법회에는 임완숙 전국교사불자연합회 회장, 여여선원장 정여스님,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덕해 스님,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법회에 이어 열린 전국교사불자연합회의 운영회의에서는 어린이 포교활성화와 교사불자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과 종립학교 관련 인사시 불교신자를 임명할 것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화합의 시간을 보냈다. 둘째날인 15일에는 해운대 해맞이 예불을 가지고 14교구 본사 범어사를 방문, 청소년 포교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회향했다.



천미희 기자

알림

▲청소년동아리 공모전=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은 만화, 댄스 등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동아리 공모전을 실시한다. 공모전에서 동아리로 선정되면 동아리 방과 활동비를 지원 받는다.(051)868-0750

강좌

▲전화상담 봉사자교육=대구 자비의 전화는 23~6월 1일까지 상담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매주 월 · 금 오후 2시 자비의 전화 교육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상담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053)753-9734

▲최고지도자 아카데미=부산광역시 불교신도회는 5월 11일~10월 12일까지 각 사암 및 불교단체의 임원을 대상으로 불교 최고지도자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한다. 강의는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부산불교회관 5층 강당에서 진행된다.(051)853-2021

게시판

모집

▲지도법사=강릉 원각사는 초 · 중 · 고 · 대학생 법회를 지도할 법사스님을 모집한다.(033)635-0103

▲아시안게임 자원봉사자=부산불교연합회는 제 14회 아시아 경기대회 봉사자를 모집한다. 18세 이상 남녀노소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원서접수는 4월 30일까지이다. 자원봉사자들은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16일까지 16일간 자원봉사를 하게 된다.(051)867-0501

▲독거노인 후원자=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무의탁 독거어르신을 위한 밑반찬 배달서비스에 필요한 일회용기와 세탁기, 싱크대 등 후원용품을 기증할 후원자를 모집한다. (02)2207-3677.

이전

▲동산반야회는 15일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0번지로 이전했다. (02)732-1206.

▲불교신문은 16일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웅진갤러리 건물로 이전했다. (02)733-16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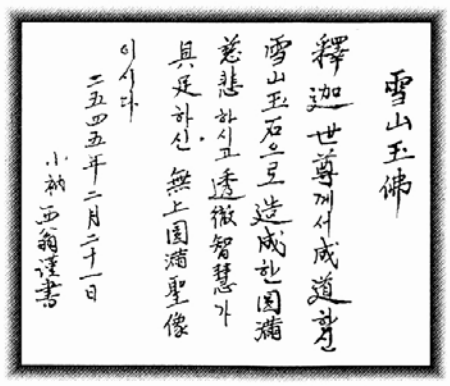
화촉

▲현대불교신문 고객부 장유미씨는 5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규수당예식장 3층 아치홀에서 이규수씨의 삼남 종훈씨와 백년가약을 맺는다.(02)651-8443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손조각품 雪山白玉佛





■ 추천서



▶ 세계불교도우의회(W.F.B)한국본부
(주) 코리아 붓다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 02)864-8834~6 / FAX : 02)839-2185 인터넷 : www.koreabuddha.co.kr

"장애는 작은불편…믿음 더 강해요"

신행현장 장애인 세상나들이



◇장애인 세상 나들이 행사에 동참한 20여 삼선승가대 학인들이 수화로 '부처님이 좋아요'를 합창하고 있다.

"큰 사랑 내게 주신 부처님 당신만을 사랑해요~"

20명의 삼선승가대학 학인들이 합창한 '부처님이 좋아요'가 수화와 함께 고운 음성으로 울려 퍼지자 지체장애인 박종필씨(28)는 눈물을 글썽였다.

'하늘이 이렇게 넓은 줄 알았다면 하늘에 집을 지을 걸 그랬어요. 이 하늘, 이 행복. 하늘만큼 크게 살래요…'

종필씨는 봉선사에 오면서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다. 말 못하고 걷지 못하지만 시를 쓰면서부터 그는 말하고 걷는다. 마음은 언제나 자유롭다. 시를 쓰면서 그는 육신의 장애를 벗는다. 부처님을 생각하면 세상이 아름답기만 하다. 하물며 오늘 같은 날, 부처님 마음으로 하늘을 품에 안은 날에야.

18일 오전 11시, 남양주 봉선사에 장애인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하나 둘씩 몰려들었다. 조계종 복지재단이 부처님 오신날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개최한 '장애인 세상나들이'에 나들이를 나온 것이다. 광림사연화복지학원, 강북장애인복지관, 제천장애인복지관, 김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350여 명은 다소 따가운 햇살을 받으면서도 마냥 즐거운 표정이다.

종필씨와 삼선승가대학 혜춘스님은 봉선사에 올 때 운전불자연합회 회원의 택시로 함께 왔다. 오면서 세상 사는 이야기며, 살면서 어려웠던 이야기며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하고 왔다고 했다. 그런데도 혜춘스님은 종필씨의 휠체어를 밀며 연신 말을 건넨다.

"부처님을 보니까 너무 좋다는군요. 이 분은 신심이 아주 강한 분이래요. 연화복지학원에서는 시인으로 불릴 만큼 글도 잘 쓰신다고 해요."

다른 사람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음성과 몸짓을 혜춘스님은 어느새 이해하고 설명해 주었다. 스님은 마

장애인-봉사자 350명
남양주 봉선사에 모여
서로 정 나누다 보니
어느새 한마음 되었다

음을 주고받으면 가능하다고 했다. 그리고 앞으로의 수행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도 했다.

11시 30분 기념법회가 시작됐다. 연화복지학원 원장 해성스님이 기념법회의 삼귀의례를 수화로 통역하자 윤근(8)이는 황옥선 보살(47)에게 몸짓으로 무엇인가 말을 한다.

"응, 부처님께 인사를 하는 거야. 윤근이도 합장해야지."

황보살은 윤근이의 손을 잡고 함께 합장을 한다. 김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온 윤근이는 정신지체아다. 또래치고는 작은 키에 큰 눈만 멀뚱멀뚱하면서 잘 웃지 않는 윤근이가 오늘은 씨~익 웃는다.

조계사 신도인 황보살은 윤근이의 든든한 후원자다. 황보살은 윤근이에게 마음으로 말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한마음이라는 부처님 법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복임 보살(46)은 법당 그늘에 앉아 합장한 채 연신 합장주를 돌린다. 2년전 과로로 갑자기 쓰러져 몸 왼쪽부분이 마비됐지만 지금은 오히려 한쪽이라도 쓸 수 있음을 감사하게 여긴다.

"모처럼 절에 오니까 좋네요. 아프고 나서는 못왔었는데…, 오늘 법당에서 부처님을 뵙고는 더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28도나 되는 날씨탓에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흐를 정도였지만 어느 누구도 그늘을 찾지는 않았다.

장애인 장기자랑 시간. 몇몇 장애인의 가수 뺨치는 공연이 이어지자 분위기가 고조됐다. 연화복지학원 원장 해성스님이 장애인들과 어울려 춤을 추었고, 삼선승가대 학인들의 음성공양이 이어지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합장을 한 장애인들의 얼굴은 붉은 빛으로 상기됐다.

이날은 스님들과 장애인, 자원봉사자 운불련 회원들 모두 하나가 됐다. 가끔씩 보는 바깥세상을 마음껏 보며, 보고 싶었던 부처님 얼굴을 보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은 소망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생활속의 불교 생각 한 번 돌리면…

누구나 한순간에 생각 한번 잘못해서 크나 큰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구설수에 시달려 보았을 것이고, 참아야 할 일을 참지 못하는 바람에 큰 낭패를 겪기도 했을 것이다. 심한 경우엔 한순간의 실수로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일도 있다. 한생각이라는 게 눈 한번 치뜨고 내리뜨는 것 같이 별것 아니라고 여겨지겠지만 면밀히 관찰해 보면 누구라도 한생각이 자기를 구멍이에 처넣기도 하고, 한생각이 자기를 수렁에서 건져내기도 한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미운 사람, 마음에 못마땅한 상대가 있다고 해보자. 내가 상대를 볼 적마다 밉다는 생각을 일으키고(혹은 저절로 일어나고) 하는 짓마다를 아니꼽게 생각한다면 그 상대는 날이 갈수록 미워지고 급기야는 서로의 관계를 파탄으로 끝내게 된다. 반면에 그를 볼 적마다 생각을 좋게 돌리고 그의 장점부터 보려 하고 혹은 나도 물정을 몰랐을 때는 저와 같았지 하거나 그 나이엔 나도 그랬었을 거야, 혹은 아직 몰라서 그러는 것일 거야 하고 생각을 돌린다면 미움은 좀 덜해지고 점차로 감정이 잦아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생각 한번 돌리니 예가 바로 극락이구나' 하듯이 한생각 탁 트이게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고통 대신에 즐거움이 오고 미움 대신에 사랑이 온다.

개미 구멍에 둑이 터지는 수가 있다. 얼른 막아버리면 될 것을 반대로 자꾸 쑤셔대면 마침내는 둑을 무너뜨리는 큰 구멍이 된다. 한생각 돌릴 줄 몰라서 자꾸만 집착한다면 나중엔 스스로 원치 않는 결과와 맞닥뜨리게 된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하는 덕담이 있다. 일년 365일이 늘 쳇바퀴 돌리듯 해서 지루하고 따분한 사람에게 참으로 반가운 덕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날마다 좋은 날이 되라'는 덕담의 참 뜻은 순간순간에 한생각 바르게 내시오, 그러면 날마다 좋은 날이 됩니다 하는 데 있다

안경을 바꿔 써라. 붉은 안경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온지가 다 붉고, 푸른 안경 너머로 보이는 세계는 온누리가 다 푸르다.

龍眼

주제가 있는 법문

"가정은 삶의 안식처 부부 · 형제 서로 존중"



동봉
조령산 흥천사 주지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족끼리 서로의 존재에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많은 '가정의 달'입니다. 중생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가정의 소중한 의미를 깊이 되새겨 볼 수 있는 의미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단위이자 안식처입니다. 고난이 닥칠때마다 한핏줄끼리 서로 의지하고 힘이 돼 준다면 어떤 역경과 어려움도 능히 이겨 낼 수 있지요.

부처님께서도 "부자 · 형제 · 부부 · 친족간에 항상 서로 공경하고 사랑한다면 마음이 안정돼 현세에 복과 경사가 한꺼번에 찾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사님들이 전날 집에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거나 자식들에게 심하게 화를 냈다면 회사에 나가서도 일이 손에 안잡히거나

대화 없는 가정
행복할 수 없어요

언짢은 일이 계속되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보살님들 역시 출근하는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었다면 가사일을 할 때도 마음이 산란해 아무일도 못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가정에서 항상 웃음이 끊이질 않고 가족끼리 사랑이 넘쳐 화목하다면 밖에 나가서도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왠지 모를 자신감과 힘이 넘쳐 잘 해결될 것입니다. 집안이 편해야 모든 것이 원만히 이루어진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은 우리 중생들이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경시돼서는 안될 중요한 집합체입니다.

하지만 요즘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가정파탄에 관한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언젠가 신문에서 생활고를 면하기 위해 아버지가 자식의 손가락을 잘라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던 기사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술주정을 한다고 나무라는 아버지를 홧김에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자식도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를 위해주면서 염심히 기도 정진한다면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옵니다.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신 거룩한 뜻을 되새기며 초발심으로 돌아가 가족끼리 단 얼마간이라도 기간을 정해 기도를 해보길 권합니다. 어두운 가정을 밝게 밝히고자 하는데 어찌 용맹스런 정진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위해, 또 부모는 자식을 위해 서로 기도해 주다보면 끈끈한 가족애가 생겨 저절로 행복의 열매가 자라날 것입니다.

절에 올때도 따로따로 오질 마시고 가족끼리 손붙잡고 나들이 삼아와서 참배하면 불심도 돈독해지고 가정도 더욱 화목해질 것입니다. 아예 주말 여행을 심산유곡에 있는 사찰로 정해 한달에 한두번씩이라도 성지순례를 해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법당에 들어가 정성스런 마음으로 향을 사르고 촛불을 밝혀 기도 정진한다면 그 모든 공덕은 바로 자신의 가정과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끝나면 공기와 경치가 좋은 사찰 자연을 배경으로 두런두런 집에서 못다한 대화도 나눠 보세요. 가정화목의 기본은 가족 구성원들끼리 스스럼없이 나누는 대화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대화가 없는 가정은 장막에 가로막힌 산과 같습니다.

"친족의 그늘은 시원하도다. 부모를 잘 봉양하며 처자를 아끼고 보살펴 올바른 생업에 정진하는 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이다"고 설하신 부처님 말씀의 의미를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작금에 깊이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신행 캘린더

4월 25일 (수)

■장애우와 구미시민을 위한 연극 및 합창제=구미 · 선산사암연합회는 오후 7시 구미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우와 구미시민을 위한 연극 및 합창제를 개최한다.(054)453-7424

4월 26일 (목)

■조국통일 기원대법회=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조계종 봉축위원회는 오후 5시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조국통일 기원대법회를 봉행한다.(02)732-4885

■조계사 불교음악학술 강연회=조계사는 오후 2시 문화교육관에서 '한국불교음악의 역사적 전망'을 주제로 불교음악학술 강연회를 개최한다.(02)720-1390

4월 27일 (금)

■영봉사 해탈선원 개원법회=영봉사 해탈선원은 오전 10시 개원법회를 봉행한다.(02)2244-2251

■구로복지관 개관 6주년 기념 주민잔치=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오전 9시 개관 6주년 기념 경로잔치 및 지역주민 어울마당을 실시한다.(02)852-0525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영산재=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오후 2시 종묘시민광장 국악정에서 21세기 지구촌 화평문화 및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영산재를 개최한다.(02)723-6258

■국립경찰병원 경승 법당 개원 10주년 기념법회=국립경찰병원 경승실은 오후 6시 20분 경승법당개원 1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 및 위문 문화공연을 펼친다.(02)430-2555

4월 28일 (토)

■부산발전기원 3천배 철야정진=부산 봉축위원회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부산역 광장에서 부산 발전기원 3천배 철야정진을 실시한다.(051)867-0501

■KBS국악관현악단 봉축음악회=KBS국악관현악단은 오후 5시 여의도 KBS 홀에서 봉축음악회를 개최한다.(02)723-0440

4월 29일 (일)

■연등축제=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정오부터 오후 10시까지 종로, 우정국로, 동대문운동장에서 연등축제를 펼친다.(02)725-6641

■심상 사진전=부천 석왕사 사진동우회 심상(心像)은 창립 12주년 및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기 위해 5월 1일까지 석왕사에서 사진전을 개최한다.(032)663-7771

기 자 모 집

격주간 불교 포교지로 새롭게 태어난 만불신문이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격주간 5만부를 발행하는 만불신문과 함께 하고자 하는 불자들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수습기자
- 4년제 대학 졸업자
- 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남자는 병역필 및 면제자
- 불교대학 졸업자 우대

경력기자
- 4년제 대학 졸업자
- 주간신문 2년 이상 경력자
- 1965년 1월 이후 출생자
- 남자는 병역필 및 면제자

전형절차 및 선발인원
1차 - 서류, 2차 - 면접, 0명

접수기간 2001년 4월 30일 까지

접수방법 본사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4월 30일자 소인 유효)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접수처 및 문의 서울 서초구 서초 1동 1670-10 문화빌딩 3층 **만불신문**

전화 02)522-0101, 053)756-0101

※ 서류합격자는 개별 통보하고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만 불 신 문 사

레이키(Reiki 靈 氣)를 아십니까?

레이키는 이 우주공간에 가득차 있는 「사랑과 빛의 신령한 기운, 영묘한 기운」이며 즉 고급 氣입니다. 이것을 들어다 쓰면 질병도 치료할 수 있고 생활의 여러 방면에 걸쳐서 유익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단 3일 동안의 교육으로 전수해 드립니다.

1. 레이키 교육 대상자 (교육기간 3일, 교육비 70만원)
   - 의사, 한의사, 간호사, 대체의료 종사자,
   - 성직자, 호스피스 봉사자, 개호복지사, 간병 봉사자
   - 만성병 환자 혹은 그 가족 특히 불면증 환자
   - 가정생활에 레이키(氣)를 유익하게 사용하려는 분
2. 레이키 요법의 효과
   사람은 병이들면 氣에너지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저하합니다. 레이키 요법은 저하된 氣에너지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여 환자의 자연 치유력이 활성화 되도록 돕고 특히 불면증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여러가지 질병에 대하여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3. 레이키를 교육받으면
   - 모든 질환에 대한 요법이 대체로 정해져 있어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습니다.
   -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도 여기서 원격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 부작용이 없고 환자의 사기를 받지 않으며,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 생활의 여러 방면에 걸쳐서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현대생활 레이키연구회
(레이키 마스터 박희준)

전화 : 02)720-5682 / 팩스겸용전화 02)720-5720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Reiki.co.kr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에서 경향신문사 쪽으로 걸어서 5분. 피어선빌딩 외환은행 건물)

빅-뉴스

피로?
나에게는 없다!

■ **LIHIS** 건강양말
- 건피부(특히 발이 갈라 지는 분)
- 피부노화 방지
- 숙취 해소

건강양말 특허출원번호 0043150 LIHIS

■ **LIHIS** 건강 숯 양말
- 발냄새 제거
- 당뇨에는 더 이상 당이 안 오름
- 원적외선 차단

건강숯양말 실용신안번호 0165970 LIHIS

상담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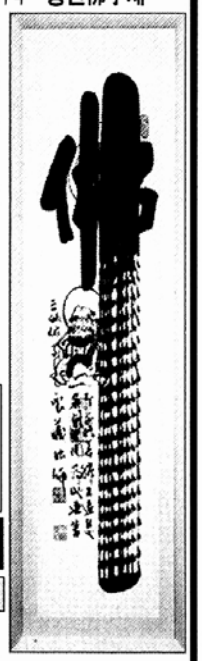
(주) 화 동 섬 유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321-116
053)582-1245
전남·북 특판점 062)956-7676~7
대 구 특판점 053)252-6966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오복을 가져오는 새천년시대 용의 꿈을 꾸세요~".







꼭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 신기 · 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그림, 龍자그림(수맥과 차단) 특별보시!

2000년 대통령상 수상하신 운장법사의 진품명품 TV에서 방영된 달마대사(불자 용자)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대한민국 미술작품 화랑방 (korea art gallery) www.korea-art-gallery.org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033) 766-0057 · 0058
E-mail unjang21@kornet21.net

● 주문 신청방법 우체국 013698-02-04590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돌탑아미타부처님영험도량 雲藏寺 운장선원
韓國佛教藝術文化院



박태원 교수의 33

불교로 보는 신생

애덤 킹 시구와 苦聖諦

애덤 킹. 미국에 입양된 한국 어린이다. 두 발이 썩어가고 손가락도 붙어 문드러지는 아이. 부모와 조국이 버린 그를 미국인이 입양하여 키웠다. 절단한 두 발을 첨제 구조물이 대신하고 손가락도 온전치 않다. 그러나 그는 밝다. 그 로봇 다리로 열심히 움직이며 야구를 즐긴다. 위축되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에 감동 받아서인가. 그를 버린 한국이 화려한 잔치에 다시 불렀다. 프로 야구 개막전에서 시구를 하고 대통령 부인과 함께 경기를 지켜보며 마음껏 소리치는 보면서 한국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애덤 킹을 초청한 사람들의 의도가 자못 궁금하다. 저렇게 엉망인 몸으로도 밝게 피어나는 한 어린이의 영혼에 감동되어서인가. 그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어 잔뜩 움츠러든 한국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함인가. 소수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실천인가. 아니면 '한국 정부는 이렇게 장애인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내외에 과시하려는 정치 이벤트인가. '오체불만족'의 오토다케에 상응하는 한국적 사례의 발굴 노력인가.

서글픈 자화상이다. 그 무슨 욕심과 무지에 가리워서인지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망각한 뻔뻔한 자화상이다. 애덤 킹의 저 밝고 힘찬 모습이 웅변하고 있는 호된 꾸지람을 듣는다면, 그 아이를 영웅처럼 반기며 갈채와 환호를 보낼 수 있을까. 무슨 염치로 그 아이를 불러들여 박수치며 호들갑을 떠는가. 차라리 뼈아픈 참회와 다짐을 위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초청한 것이라고 한다면 좋다. 그것은 제대로 된 생각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애덤 킹이 한국에서 자랐다면 어떤 모습일까?'를 되물어야 한다. 그를 버린 한국, 건강하게 가꾸어 주지 못하는 우리네 거친 땅을 직시해야 한다. 버림받은 그를 보듬어 인간으로 대접해 주는 이방인들의 트이고 따뜻한 마음과, '우리는 한 핏줄'을 소리 높여 외치나 일그러지고 닫혀 있는 마음을 솔직히 비교해 보아야 한다. 그렇게 자신을 직시한다면, 도대체 무슨 염치로 애덤 킹을 불러들여 끌어안고 웃을 수 있을까. 그렇게 장애인에 관심이 많다면 이 땅에서 신체 장애의 덫에 치어 시들어 가는 아이, 이 황량한 벌판에서도 꺾이지 않으려는 굳건한 사람들을 불러내어 시구하게 하여 축제에 들뜬 이들로 하여금 외면하고 피하고 있던 문제를 환기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

부처님 가르침은 '삶의 근원적 불만족'에 대한 설법(苦聖諦)에서 출발한다. 이 고성제(苦聖諦)는 '문제 직시 능력의 계발'과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 중생 삶의 근원적 불안과 불만족이 보편적 사태라는 것을 일러주는 '집착에 물든 삶은 언제나 불만족(五取蘊苦)'이라는 가르침 이전에, 부처님은 늙음, 병듦, 죽음, 사랑하는 것과의 헤어짐, 싫은 것들과 함께 함,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함 등을 열거하며 그것이 고통임을 환기시킨다. 상식적인, 누구나 지적할 수 있고 당연한 것들을 굳이 언급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명백한 고통들조차 그렇지 않은 듯 회피하고 은폐하려는 중생의 질긴 습벽 때문이다.

문제 직시 능력 계발
불만족의 삶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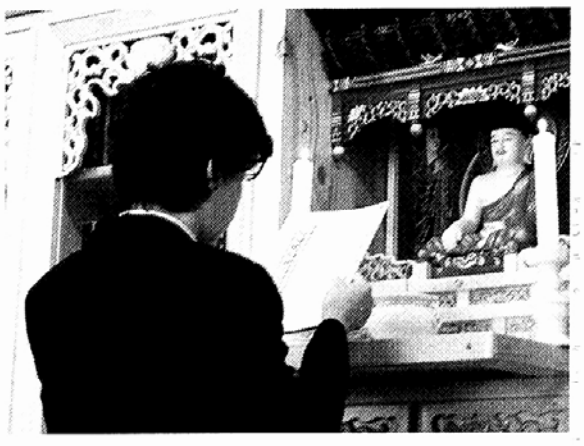
죽음을 '영원히 잠들었다'고 말하며 죽음의 고통을 직시하지 않으려는 중생들. 자기 보호의 본능적 조치이긴 하지만, 그렇게 비껴 가는 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 상황을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위대한 평안과 만족, 자유를 구하려면 발 밑에 깔린 불안과 불만, 구속을 직시해야 한다. 적당히 덮어두기 · 그럴듯하게 미화하기 · 일부러 안 보기 · 보고도 못 본 척 하기 · 근본은 안 건드리고 바깥 증상만 완화시키기 등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고(苦)라는 문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통찰력과 용기를 키워주는 것이 '고(苦)에 관한 가르침'의 한 의미이리라. 애덤 킹에게 보내는 한국인들의 갈채 속에서 '문제를 직시하지 않으려는 중생의 질긴 버릇'을 읽는다면 지나친 것인가.

▩ 울산대 철학과 교수

한자 한자 정성들여 꾸준히

참물자의 길 사경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사경한 경전을 부처님전에 올리고 있는 불자의 모습.



사찰과 신행단체 등 재가불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경법회(대회)가 이제는 수행의 한 방편으로 자리잡고 있다. 사경에는 깊은 신앙심과 정진력이 깃들어 있고 그 행위 자체가 신심의 표현이며 생활이라는 점이 재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경이란 경전 속에 담긴 가르침을 한 자 한 자 되새겨 마음속에 각인시킬 수 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사경하는 행위 자체가 참회요 염불이요 기도요 참선인 것이다.

사경이 새로운 수행풍토로 확산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사경의식과 방법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필사나 '많이 하면 된다'는 식의 양적인 면에만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사경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사경을 지도하고 있는 스님들은 무엇보다 경구 하나 하나를 음미하듯 정성을 들여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을 권한다. '1자1배'의 정신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 사경하기 전에 염불과 축원 등의 의식이 병행된다면 사경하는 의미는 한층 더 값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경의식 순서는 다음과 같다. 삼귀의→사경발원→입정→사경→사경봉독→사경회향문→불전삼배→사홍서원이다. 사경발원은 각자가 세운 원을 지극정성으로 발원하면 되고, 사경회향문은 보통 '사경공덕 무량하여 삼업중죄 소멸하니/ 몸과 마음 굳게 가져 보리심을 발원합니다/ 세세생생 보살의 길 나아가기 원하오니/ 시방삼세 부처님은 증명하여 주옵소서'를 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경이다. 불교사경집을 펴내고 있는 우학(대구 관음사 주지) 스님은 "사경은 조용히 정좌하고 호흡을 가다듬어 정신을 통일한 후 정성스럽게 하면 된다. 그러면 번뇌와 미혹의 마음에서 벗어난 청정한 심신이 되어 부처님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밝은 지혜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 평온과 행복을 느끼게된다"고 말한다.

신앙심·정진력 드러내
참회의 한 방편
사경집 20여권 출간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사경을 하고자 하는 불자들은 광주전남불자교사모임에서 마련한 사경법을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자. ①몸과 입과 마음가짐을 깨끗이 한다. ②주위 환경을 정돈한다. ③바르게 앉아 호흡을 가다듬는다. ④합장하고 개경게를 읽는다. ⑤펜을 잡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쓴다. ⑥한 줄 쓰고 난 뒤 합장하거나 삼배를 올리고 다시 사경한다. ⑦사경을 마친 뒤 사경 날짜와 이름을 쓴다. ⑧ 이웃과 겨레 모든 생명들을 위해 부처님께 발원한다. ⑨자신이 쓴 경전을 들고 소리내어 읽는다. ⑩부처님께 삼배를 올린다. ⑪완성된 사경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거나 부처님께 올린다.

부처님 말씀(경전)을 흔히 문자사리라고 한다. 옛 선사들은 그 문자사리가 중생들의 마음에 와 닿으면 중생들의 어둔 마음이 밝아진다고 한다. 이는 한 생각 밝은 마음은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읽거나 외우거나 쓰면(사경) 공덕이 된다는 것이다. 어두운 마음을 없애고 안정되고 밝은 마음을 갖게 하는 수행법으로 사경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사경은 참회의 한 방편이기도 하다.

사경에 대한 불자들이 관심이 증폭되면서 사경집도 적지 않게 출간되고 있다. 지금까지 출간된 사경집은 약 20여종이 넘으며 불교전문서점 여시아문에서는 사경집 코너를 별도로 운영할 정도다. 그 중에서 도서출판 좋은날에서 내놓은 사경집이 가장 많이 나와 있다. 이밖에도 석림서원 또는 사찰이나 신행단체에서 출간한 사경집도 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禪과 21세기

'서장' 통한 선 공부 ⑪

강급사에 대한 답서

공부란 '相'으로부터 자유 획득



김태완
부산대 강사 · 철학

"도를 배우는 사람이 치달려 구하는 마음을 쉬지 못한다면, 비록 그와 머리를 맞대고 이치를 논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리석게도 바깥으로 치달려 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흔히 공부의 지침으로 하는 말 가운데, '밖으로 달려나가 구하지 말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이 말을 정확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밖'은 어디이고 '안'은 어디인가? 무엇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며, 왜 '구하지 말라'는 것인가?

〈반야심경〉을 들어 말하면 "물질 · 느낌 · 생각 · 의지 · 의식의 오온(五蘊)이 곧 공(空)"이기 때문이고, 〈금강경〉을 빌어 말하면 "색깔 · 소리 · 냄새 · 맛 · 촉감 · 의식의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밖'은 곧 오온 · 십이처(十二處) · 십팔계(十八界)로 경험되는 모든 '상(相, image)'의 세계를 가리키며, '구한다'는 것은 그렇게 경험되는 '상에 머문다'는 말이다.

흔히 취하고 버리는 분별심이 중생의 씨앗이요 번뇌의 뿌리라고 말한다. 그런데 분별하여 취하고 버리는 것은 곧 '상'에 머무름을 뜻한다. '상'에 머물지 않는다면 분별이 생길 수 없고, 분별이 생기지 않는다면 취하고 버림은 있을 수가 없으며, 취하고 버림은 곧 갈등(葛藤)을 야기하므로 번뇌의 씨앗이 된다. 그러므로 결국 공부란 '상'에 머물지 않고 '상'으로부터 자유를 획득함이 된다.

그렇다면 '상'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상'의 자성(自性)이 '공(空)'임을 깨닫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모든 상이 결국 허망할 뿐이며 모든 상은 그 자성이 공'임을 알아차릴 때에야, 비로소 '상'에 머물던 마음이 거두어져서 '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상의 자성이 공'임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이제 거울을 가지고 비유하여 설명해보겠다.

'거울'이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거울'이라고 하면 유리거울을 생각에 떠올린다. 그러나 '거울'이란 것이 영상을 비추는 물건을 의미한다면, 유리뿐만 아니라 물 · 구리 · 알루미늄 · 돌에 이르기까지 그 재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한 재료에 관계없이 순수하게 '영상을 비춘다'는 의미에서만 '거울'을 생각해본다면, '거울'은 곧 '영상'을 비추어내는 '기능' 혹은 '작용'일 뿐임을 알 수가 있다.

이제 비추어내는 작용'과 '영상'의 관계를 살펴보자. '작용'이 있으면 '영상'도 있고 '작용'이 없으면 '영상'도 없으며, 마찬가지로 '영상'이 있으면 '작용'이 있고 '영상'이 없으면 '작용'도 없다. 그러므로 '작용이 곧 영상'이고 '영상이 곧 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영상'은 '상(相)'으로 구분되는 것이지만 '작용'은 '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즉 '작용'은 '공(空)'인 것이다. 그러므로 '영상'은 무상(無常)하게 변화하며 늘 차별되지만, '작용'은 늘 청정하고 평등하다. 그렇긴 하나 역시 '작용이 영상'이고 '영상이 작용'임에는 틀림없다. 말하자면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인 것이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다. 마음에 나타나는 오온 · 십팔계의 온갖 '영상'들은 비추어내는 '작용'에 의하여 나타난다. 이 비추어내는 '작용'이 오온 · 십팔계의 자성이며, 곧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울'인 본래 마음이다. 그러므로 육조 혜능은, "그대들이 마음의 요체를 알고자 한다면, 다만 선과 악을 구분하는 모든 분별 사량을 멈추기만 하면 된다. 그리하면 자연히 청정한 마음의 바탕으로 들어가서, 늘 고요하면서도 묘한 작용이 무궁무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언제든지 온갖 차별되는 '영상'들을 보고 듣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그 '영상'에 머물러 분별에 끌려다니지 않고, '영상'의 자성이 곧 일미청정(一味淸淨)한 '공'인 '작용'임을 체험하여 확신한다면, 이미 우리는 '상'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다. 자! 이제, 독자 여러분은 이 순간 스스로의 '상'을 돌이켜보길 바란다. 어떤가?

"불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 · 가 · 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밑 불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한재를 탕재로 하여(한박스 60포)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이며 풍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여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중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과 당뇨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래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463번지 중미산 불심정사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불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전화번호 : (031) 771-1571 (016) 222-7701

보시금은 불심정사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청강 대 진 합장

살아있는 곡류성분 → 30가지 / 生-선식

'생' - 선식 하나로

비만	변비	피부	체질	피로	기운	면역력	혈액순환	세포
쏙쏙	쭉쭉	생생	싹싹	회복	쑥쑥	상승	원활	재생

건강 O.K

- 물없이 먹는 최열량 자연식 휴대용 식사.
- 병전, 병후, 자연 면역력 최고 상승.
- 사람은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산다.

회원모집
특별회원 → 스님에 한함
일반회원 → 불자님에 한함

특허상표 출원번호 2000-40253
특허상호 출원번호 2000-21890
화천군 제 1-17호

원래의 의미로 생식이란 생야채나 생곡식을 채취하는 현장에서 즉석 먹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생식을 하는 이유는 화식에 비하여 각종 영양소와 효소가 살아있어 사람의 신진대사가 정상화되고, 각종 노폐물이 제거되어 건강이 회복되고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쁜 생활에서 생식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간편하면서도 편안하게 생식의 효과를 보아야 하는데 상기원에서는 먹는 방법의 개선으로 생식의 효과를 쉽고 간편하게 접할수 있도록 생식을 환으로 만들어서 먹기가 정말 좋습니다.



혜민스님

불교방송(BBS) "길을 찾아서"
2001년 1월 7일 오후 7時 방영

상담 문의 02-723-4463 080-737-0044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53 신안빌딩

생명건강을 추구하는 기업

上氣元
상 기 원

※ 수익금의 일부는 대한불교 무량회에서 운영하는 무의탁 노인돕기,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 쓰여집니다.

이렇게 들었다

남녀평등

"불성 아는 것 가장 존귀"

▨"남녀는 일체 평등하다. 하늘은 아비이고 땅은 어미이므로 천지가 낳은 것이니, 무슨 다를 것이 있으랴." 〈보문품경〉

여성부가 정부 정책의 남녀평등적 관점을 평가하는 평가모형을 개발해 2-3개 주요 정책에 대해 시범 적용하는 한편, 7월초 '여성 주간'에 즈음해 여성단체와 공동으로 '21세기 남녀평등헌장'을 제정, 선포하기로 했다.

한명숙 여성부장관은 18일 올해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리에서, 올 정기국회에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망을 피해가는 '남녀 간접차별'의 처벌 근거를 도입하고, '윤락행위 등 방지법'도 강제 성매매 처벌과 윤락여성 자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검토할 방침도 밝혔다.

"인류사적으로 볼 때 이제 여성의 시대가 왔다. 정확히 말하면 남녀평등의 시대가 온 것이다."

이날 김대중 대통령의 격려사처럼, 한국의 여성인권도 여성부를 신설하고 각종 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으로 점차 나아지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한국의 여권(女權)은 여전히 세계 최하위권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여성의 정치·경제적 진출도와 사회적 권한을 따지는 '여성 지위 지수(GEM)'에서도 세계 78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은 세속에서의 현상일 뿐 불법에는 원래 차별이 없다고 부처님께서는 설하셨다.

▨"세상에는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다는 관습이 있지만 부처님은 남녀간의 차별을 두지 않으며, 다만 불성을 아는 것을 가장 존귀하게 여긴다." 〈대살차니건자 소설경〉

사회에서 아직 남녀 불평등이 사라지지 않고, 더구나 승단에서 조차 비구니 스님들이 비구 스님들에 비해 여러 면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불교는 근본적으로 남녀는 물론 인간, 나아가 중생의 평등을 설하는 가르침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동국대 신성현 교수는 '율장에 나타난 남녀차별의 문제'라는 논문을 통해 "율장 가운데 남녀평등을 의심케 하는 사건들과 표현들이 상당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궁극적으로 불교는 남녀를 평등하게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불교가 처음부터 모든 계급의 모순을 지적하고 나섰으며, 교단에서 출신성분을 개의치 않았다는 점과 여성의 출가가 승인되고 초기 불전에서 깨친 여성들의 이야기를 밝히고 있다는 점 등이 불교의 남녀평등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다만 율장 일부의 불평등적 요소는 성차별이 보편화된 당시 사회질서 속에서 불교에 대한 비판여론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것.

정부의 남녀차별금지법 개정 등 단계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이 땅에서도 진정한 남녀평등이 실현되길 기원해 본다. 김재경 기자

뇌사 죽음으로 인정할 수 없다

불자 세상보기

'율전' 안락사 거부
고통 덜기위한 수단
관여한 스님 교단추방



정병조
동국대 교수
한국불교연구원장

삶은 끝없는 고통으로 얽혀져 있다. 그 고통의 클라이막스는 죽음이다. 그러나 죽음의 정의는 의학적으로만 복잡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 불교교리의 입장에서도 다층적이다. 초기불교의 경우에는 대체로 생기(生氣)·열·의식이 육체를 떠난 상태를 죽음으로 규정한다. 대승불교의 입장에서 말하면 '오온으로 구성된 여섯가지의 감각기관, 즉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접촉하며, 느끼는 여섯 능력의 정지상태'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초점이 되는 부분은 '생명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생명능력은 생명이 다하지 않으려면 계속되어야 할 생물학적 과정이다. 그리고 그 정지의 상태를 죽음으로 본다면 결국 불교의 죽음은 생물학적 정의와 같다는 결론에 닿는다. 따라서 뇌사는 결코 죽음으로 인정될 수 없다. 뇌는 인간의식의 저장고이지만 불교의 죽음은 결코 의식의 상실만을 뜻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불교적 죽음은 '신체의 해체'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의 유기적 기능이 회복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즐거한 스님으로서 어떤 인간존재에게서 생명을 빼앗거나 또한 그의 하수인이 되어서 남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두리번거리는 자는 어느 사람이든지 불교의 계율을 어긴 것이며, 따라서 더이상 승가공동체안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놀랍게도 〈율장〉에는 안락사에 직접 관여한 스님들에 대한 일화가 실려있다. 첫번째의 경우는 사형집행자에 대한 신속한 처형장면이다. 한 사형수가 빨리 죽여 줄 것을 스님에게 호소하였고, 스님은 사형집행인에게 그 당부를 들어 달라고 요구하여, 그 죄수는 일찍 참수를 당한 것이다. 스님의 중재는 분명히 죽게 돼 있는 그 죄수의 죽음을 조금 앞당겨 집행케 한 경우다. 또 죄수의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 보려는 배려가 담겨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님은 교단추방을 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두번째 경우는 손과 발이 잘려나간 한 남자가 친척들에 둘러싸여 죽음을 애원하고 있었다. 그때 스님은 그와 가족들의 간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에게 버터우유를 마시게 하여 그 남자를 죽였다. 이 경우는 매우 능동적인 안락사의 경우인데, 그 스님 또한 교단에서 추방되고 말았다.

위에서 말한 두 경우는 오늘날 안락사가 정상화될 것으로 생각하는 자율성, 그리고 고통과 관련이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율전〉은 단호하게 안락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환자자신의 고통, 그 친척들이 겪는 물질적·정신적 압박,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순간을 다소나마 평화적으로 앞당긴다는 배려 등도 전혀 고려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불교생명공학자인 반·룬(Van Loon)이 제기한 의문은 여전히 불교적 판단을 어느 한쪽에만 머물게 할 수 없는 여운을 남기고 있다.

"비록 불교인들은 생명을 극히 귀중한 것으로 여기고 있긴 하지만 그 자체가 신성하고 거룩한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지치고, 운이 다한, 그리고 고통투성이의 삶 그 자체를 위해 모든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완강하게 보전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구원되거나' '상실했거나' 그들의 창조주에게로 '되돌아갈 수' 있는 '영혼'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독자의 소리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천리안 : aeum ·하이텔 : 34713

봉축연등 왜색등 많아

요즘에 길을 가다 거리에 매달린 연등을 보면서 부처님 오신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실감한다. 거리에서 연등을 볼 수 있는 것은 일년에 한 번뿐이니 불자로서 자긍심도 갖게 되고 부처님 오신날을 맞는 마음도 새롭게 하게 된다. 또 거리 곳곳에 걸려 있는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하는 플래카드도 마음을 들뜨게 한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거리에 달린 연등이 전통등이 아니라 왜색등이 더 많고, 그나마 지저분해 보는 이들의 눈을 찌푸리게 한다. 곱고 아름다운 우리 등도 많은데 왜 굳이 왜색등을 고집하는지, 그리고 새것이 아니더라도 깨끗이 닦아서 걸면 될텐데 흰색이 누런색으로 보일 정도의 등을 그대로 달아 오히려 거리를 지저분하게 하는 느낌마저 준다. 더러는 들쭉날쭉 달아놓아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또 어떤 곳에서는 플래카드를 걸면서 교통 표지판을 가려 운전자와 보행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곳도 있다. 불교신도도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이런 모습을 일반인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불교인의 축제인 부처님 오신날에 일반인들이 동참은 하게 하지 못할망정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모두가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작은 부분부터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문제가 있는 것은 서둘러 고쳐야 한다.

<장용하 ·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사찰 장애인시설 부족

교계 신문을 통해 여러 불교단체들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여는 것을 보면서 이젠 불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흐뭇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인지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불교도 얼마 전까지 장애를 업이라고 여기고는 자포자기로 빠지는 사그방식 때문에 이 분야 복지에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았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다.

하지만 아직까지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사찰들을 보지 못했다. 전국의 웬만한 큰 사찰을 모두 다녀 보았지만 화장실은 물론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 시설을 갖춘 곳도 거의 볼 수 없다.

얼마전 어떤 학교에서는 장애인 입학생 한 명을 위해 1층을 쓰던 고학년 학생들의 교실을 위층으로 옮기고 그 학생에게 1층 교실을 배정했는가 하면 계단을 부수고 경사로까지 만들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부처님의 자비정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단 한사람의 아픔이라도 어루만져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물며 규모가 작은 사찰은 그렇다 치더라도 큰 사찰들이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조차 갖추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재신 · 충북 청주시 대성동>

복 빌지말고 공부 열심

아직도 절에 다니면서 막연하게 복을 비는 불자들이 많다. 부처님은 하늘을 날거나 땅을 주름잡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불교 역시 사람들이 빈다고 해서 복을 주거나 터무니없는 횡재나 행복을 안겨주는 미신적인 종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자들이 불교를 공부하려고 하기보다는 막연히 복을 비는 데만 열중한다. 종교를, 특히 불교를 신앙하는 불자라면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된다.

부처님 오신날이 다가오면서 많은 불자들이 자신이나 가족의 이름으로 등을 단다. 이유는 간단하다.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따라서 복을 빈다고 해서 탓할 일도 아니다. 문제는 어떤 마음으로 복을 비느냐이다. 무조건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복이다. 스스로 복을 얻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빌기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불교는 본래의 자기를 찾으라고 가르친다. 경전에는 인생과 세계에 대한 모든 문제를 넓은 시각에서 훌륭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 경전을 스승 삼아 공부하고, 그래서 스스로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다.

기도를 기도 자체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자신을 정화하고 돌아보며 신심을 쌓는다면 빌지 않아도 복을 저절로 올 것이다. <유은희 · 충남 당진군 면천면>

기고

자식 잘 키우려면 떠 먹여주지 말고 홀로설 수 있도록



이우상
소설가

미운 자식 밥으로 키우고 귀한 자식 매로 키운다는 묵은 속담을 다시 생각해 본다. 지금 세상에는 불행하게도 밥으로만 키운 자식들이 넘친다. 비만아와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들이 넘쳐난다. 어른들은 자식 문제에 관한 한 장님이 된다. 열성이란 말이 부족할 정도로 극진하다. 내 자식과 남의 자식에 대한 잣대가 칼날처럼 시퍼렇게 구분된다. 내 자식의 무례는 재롱이고 남의 자식의 몰상식한 행동에는 치를 떤다.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 분당의 몇몇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들에게 1학년 동생들의 점심 배식을 돕는 급식 도우미 제도를 도입했다가 사흘만에 혼쭐이 나서 시행을 포기했다. '학원 갈 시간도 없는데 우리 애한테 왜 그런 일을 시키냐, 우리 애가 식사 당번이나 하려고 학교에 다니는 줄 아느냐, 우리 애가 점심시간에 밥을 못 먹는다' 등의 곡진한 사랑의 항의가 빗발쳤기 때문이다.

실시 방법의 세련되지 못함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입맛이 쓰다. 초등학교 6학년이면 몸은 이미 성인이나 다름없는 아이들이 많다. 막내 동생뻘 되는 아이들을 도와주기에는 여력이 넉넉할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귀한 내 자식에게 그런 일을 시키는 것은 싫다. 잠시도 쉬지 않고 다듬고 매만지고 쪽쪽 빨아도 늘 아쉬운 것이 내 자식인데 말이다.

학교는 사회화의 도량이다. 무리 가운데 어울려 능름하게 홀로 서기를 익히는 곳이 학교이다. 경쟁과 양보를 동시에 익히는 곳이다. 보람과 좌절을 함께 맛보며 커 가는 광장이다. 귀한 내 자식이 무리 속에서 의연하게 홀로 서기를 하도록 지켜보는 것이 부모된 자의 도리이다.

떠 먹여 주고 닦아주고 빨아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다. 짐승인 호랑이도 새끼들을 벼랑 아래로 밀어 뜨려 그중 기어올라오는 놈만 키운다.

가정을 지켜주는 명당 육기(氣) 방

氣 란?현실 입니다.
氣란 보이지 않지만 지구를 돌게하고
거짓말 같이 믿기 어려운
상상을 초월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곳이든 대도시 마을 가정을 보아도
좋은 기류가 흐르고 모이고 뭉친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많이 모여들고
큰돈이 움직입니다.
명당육氣방은 氣가 뭉쳐 있으므로 가정에
놓아 두신분들은 기류에 따라 크고 작은
좋은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 나고 있습니다.



◆꿈의 계시◆

6년전 6월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날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얀 옷을 입고 키가 아주작은 할머니가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을 데리고 희미한 안개속에서 저를 부르며 빛이나는 황금 보물을 저에게 주시더니. 이 보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라. 좋은 명당 자리가 되고 기적의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시며 희미한 안개속으로 서서히 사라져 버렸다. 벌떡 일어나 보니 꿈이었다.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렸는데도 비는 내리지 않고 하늘엔 구름 한점없이 수많은 별들이 빛을 내며 반짝 거리고 있었다.

기(氣)란 : 현실이다



- 항상 가정에 좋은 기운을 받아 좋은 명당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로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가정 속 깊숙이 힘들고, 괴롭고, 아무리 할려고 노력해도 되지 않고 불화가 자주 일어나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속사정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꼭 가정에 두십시요.

※ 주지스님 친견 후에 제품을 공급 받으십시요.

명 당 육기(六氣)방
명당 육기(六氣)방은 천지(天地)간의 좋은 기(氣)가 모이는 방이라 하여 명당 육기(六氣)방이라하고 범종은 천지(天地)를 진동하게 울리며 모든 업장과 잡귀를 내쫓고 범접을 못하게 하며, 왕관은 관운과 재운과 명예를 얻고 큰 인물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며 범종과 왕관을 떠받이는 여섯개의 명산이 감싸 주고 하늘과 땅, 동, 서, 남, 북을 육방 수호신장(守護神將)이 항상 수호해 주므로 천지(天地)간의 좋은 혈장(穴場) 명당자리가 되어 신비의 황금보물 소원성취 명당육기(六氣)방이라 합니다.

◆ "보이지 않는다이여법칙을 어기지말라." ◆
액운이 없어야 가정이 편하고 조상이 편해야 후손이 편하다.
안전과 액운이 없다고 자만하지 말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것이다. 보아라 돈도 명예도 건강도.
하루 아침에 낙엽되어 떨어지지 않는가. 구름 거칠 날 없을 것이다.
명당 육氣방이 확달라 졌습니다.

◆ 사용처 ◆ 가정집, 공부방, 자동차, 공장, 사무실, 가게, 묘지, 사십구제, 천도재, 등 여러곳에 사용함.
사찰, 암자, 철학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 수험생을 둔 부모님과 많은 분들께 꼭 권장하고 싶습니다.

(주) 명당육기(氣)방 : 051)865-9933 · 864-7878
일본지사 (불교용품전문점) : 06-6741-1923
홈페이지 : www.6kibang.co.kr

◆ 명당육氣방은 기묘한 묘법과 비법이 담겨져 불자님의 가정에 안전과 좋은 기운, 자손의 번창, 화합과 재산증식 등 큰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부·대·중

법회장의 '유명인사'



이귀인 〈한국석물선양회 회장〉

우리 불교계에서는 특별법회나 행사를 자주 치른다. 예를 들면 국태민안기원대법회, 통일기원대법회, 영산재, 수륙재 등등이다. 이러한 대법회가 있을 때마다 인연있는 사부대중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여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손님은 장관, 국회의원, 지역기관장 등 정치인들이다. 그들은 미리 단상에 마련된 좋은 자리에 앉는다. 스님들은 그들과 악수하고 인사하느라 정신이 없는 사이, 법회에 동참한 일반대중은 신문지 한 장에 온몸을 내맡긴 채 오금저린 발을 주무르며 묵묵히 앉아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법회가 시작된다. 대체로 개회,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봉행사에 이어 격려사 또는 축사가 이어지는데, 이때부터 법회장은 정부·자치단체의 홍보장, 각 정당의 유세장이 된다. 이들의 장광설이 계속되는 동안 단상에 앉아 있는 스님들은 삼매(?)에 들어가고, 자리가 불편한 대중들은 온몸을 뒤틀고 연실 하품을 해댄다. 축사를 끝내고 자리에 앉자마자 자꾸만 손목시계를 쳐다본다. 이윽고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일어서자 기다렸다는 듯이 우르르 퇴장한다. 모든 대중의 시선이 그 쪽으로 집중되고, 한 스님이 허겁지겁 이들을 쫓아가서 정중히 배웅하는데 흡사 어른과 아이의 모습 같다.

한바탕 회오리가 몰아친 듯 단상의 텅 빈 의자가 을씨년스러운 가운데 청법가에 이어 큰스님의 법문이 시작되자 모두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여기까지가 내가 수없이 보아 온 소위 큰 법회의 일반적인 광경이다.

유명 인사가 많이 참석해야 체면이 선다고 생각하는 주최측과 모인 사람이 곧 표밭인데 종교야 어떻든 얼굴을 내밀고 보자는 정치인들의 입장이 맞아떨어진 모양이다. 법회 본연의 목적을 등한시하고 일반대중을 볼모로 한 겉치레 행사보다는 중생의 입장에서 내실있고 여법한 법회를 봉행하되, 초청된 분은 진심으로 자리를 빛내주는 성숙함을 보여야 한다. 모든 가치의 판단은 국민 또는 중생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어야 한다.

목탁소리

정치인의 종교

정 성 운 (취재1부 차장)

지난 해 4월 총선을 며칠 앞두고 한 교구본사가 연 주지연수회장. 선거철인 탓에 낯익은 정치인들이 참석했다. 주최측에서 이들에게 인사할 기회를 주었는데, 한 국회의원은 "고등학교 때 사찰 옆에서 하숙했다"며 불교와의 인연을 강조해 좌중을 웃겼다. 정치인들이 종교를 표로 바라보는 한 사례이다. 행사가 끝난 후 한 스님은 "교회에 가서는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다"고 촌평했다.

최근 이인제 민주당 최고위원이 개신교인이 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로 정치인의 종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위원은 여당 내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꼽히는 정치인이다. 조계종 전계대화상을 역임한 일타스님으로부터 수계를 받아 불자들 사이에서는 친근한 정치인이다. 일타스님과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탄성스님 영결식 때 재가불자를 대표해 조사를 낭독할 정도였다. 그런 그가 개신교인이 됐다는 보도는 불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기에 충분했다.

며칠 후, 이 위원의 친구인 한 목사가 다소 과장해 언론에 알려 사실과 상당히 다르게 알려졌음이 밝혀졌다. 교회에 몇 차례 가긴 했지만, 세례를 받지 않았으며 교적도 그 목사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이 위원측에서 해명했다.

이 위원의 개종 파동이 일시에 커진 것은 그 동안 정치인들이 보여준 태도에서 기인한다. 한 정당불자회의 주요 소임자가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사정을 들어 개신교로 돌아섰다는 소식도 들은 적이 있다. 당선을 위해서라면 종교를 바꾸는 것쯤도 용인되는가보다. 그래서 '정치인의 종교는 개불릭(개신교, 불교, 가톨릭을 합친 조어)'이란 비아냥이 나도는 현실이다.

그러나 종교인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 종교는 탈세속적이다. 그래서 어떤 가치체계보다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정치는 세속적이다. 탈세속적인 가치를 세속적으로 바라보는 정치인의 태도를 종교인들이 곱게 볼 리 만무하다. 자기 종교에 철저하며 다른 종교에도 애정을 가진 정치인, 이런 사람을 종교인들은 지도자로 뽑고 싶다.

불교포럼 '제3수행법을 묻는다-현대인의 수행법 찾아서'

불교는 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종교이다. 수행은 불교를 불교이게끔 하는 본질적인 요소이다. 그래서 수행의 문제는 언제나 예민하다. 요즘 제3의 수행법으로 통칭되는 여러 수행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제3의 수행법이 무엇인지, 화두선의 문제는 무엇인지 등의 물음이 뒤따른다. 불교포럼(공동대표 박승원 · 김연규)은 24일 동산불교회관에서 '제3의 수행법을 묻는다-현대인을 위한 수행법을 찾아서'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를 지상중계한다. 포럼은 오원명 법사(명상아카데미 대표)의 발제와 동국대 선학과 교수인 종호스님,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회장, 위빠사나 지도자 김열권씨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편집자

"화두선 어렵다…무엇보다 어떻게 중요"

발제 오원명 〈명상아카데미 대표〉



수행법에 대해 논쟁을 하기보다는 먼저 나 자신의 생사문제와 고통받는 이 시대의 중생들을 위해 열심히 수행 정진하여, 참다운 나 자신을 깨치고 진리를 깨쳐 세상에 나아가 보살행을 하는 것이 정말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각종 수행법이 바람직한지 그렇지 않은지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다면, 부처님께서 생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스승을 찾아가서 그 스승들이 제시하는 수행법의 '최고 경지'에 다다른 후에도 '생사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그 수련법들을 버리고 스스로 보리수나무 아래서 호흡관찰과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관찰을 통해 정각을 이루셨듯이, 스스로 그 수련을 받아보고 자신이 원하는 바의 수련이 아니면 버리면 될 것이다.

또한, 오늘날 화두선은 많은 사람들이 왜 어렵다고 하는지, 일부에서 화두 수행하는 분들이 법거량하는 것을 보고 '현실과 상관없는 관념의 유희다'라는 소리를 하는지, 선이 정말로 현대인들에게 맞는 수행법인지, 오랫동안 수행하던 스님들 중에서도 화두로 깨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돌아보되 혹은 수행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할 것이다.

참으로 생사문제에 대하여 화두선이든 위빠사나선이든 자신이 수행하여 깨달은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면 이를 대중에 일러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면 될 일이며, 자신의 생사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면 무엇을 가지고 시비할 것인가.

아봐타나 마음나누기 또는 여타의 수행을 통해 그 사람의 지금 현재 당면한 고민이 해결된다면, 불교의 입장에서 최상의 수행법이라고 주장하는 화두를 들어도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고 번뇌만 쌓이는 것보다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은가. 고통이 크든 작든 그것이 바르게 해결된다면, 화두 수행법이 아닌 여타의 수련을 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없는 것이다.

화두 수행이 어렵다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신의 공부하는 자세와 노력한 바를 자세히 살펴보고 깊이 반성해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역대 조사들이 수없이 깨쳤던 바가 사실일진대, 누구든지 깨칠 수 있는 법이 아니라고 규정하는 것 또한 그의 단견이며 자신의 허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탐진치 삼독과 아상으로 형성된 망령된 자기를 버려 참된 자기를 깨치고 진리를 깨달아 생사문제를 해결하여 고해의 바다를 건너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수행자로서 참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마음공부하고 명상하며 참선하는 사람들만이라도 자기를 버리고 장벽들을 서로 회통시켜 하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서로간에 존중하고 협력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제안한다.

명상을 하건 참선을 하건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이 공부하는 공부법에도 자기뿐만 아니라 그 공부에 분명한 선지식들이 확연하다 할 때까지 공부해야 한다. 다른 공부법도 외면하지 말고 받아들여 그 공부를 확연히 알 때까지 공부하여, 오늘날 인류와 우리 사회가 참된 자신을 상실하고 탐욕과 감각적 쾌락과 서로 다른 모양과 견해와 무지 때문에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과 집단 국가와 국가 간에 끊임없이 싸우고 사는 이 불타는 화택의 세계를 구제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토론

"위빠사나와 간화선 다르다"

종호스님 〈동국대 선학과교수〉



다양한 수행법들을 제3수행법이라 이름하여 구분하는 것이 문제다. 특히 뉴에이지나 향공 같은 불교 수행이 아닌 것까지 포함하여 제3수행법이라는 이름으로 불교와 연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은 안팎으로 깨달아 불교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다. 따라서 수행의 본질 자체에 대해 분명히 안다면 사실 이런 논쟁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발제자는 '여타의 수행을 통해 현재 당면한 고민이 해결된다면, 화두를 들어도 자신의 고민을 해결 못하고 번뇌만 쌓이는 것보다 긍정적이 않은가'라고 밝히고 있다. 불교수행의 목적은 일시적인 고민 해결이나 마음의 안정이 아니다. 마음의 안정을 통해 궁극적 깨달음을 얻는 것이 불교수행의 목적이다.

불교에는 다양한 수행법이 있다. 무엇을 가지고 수행하느냐 즉 관법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얻어지는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수행법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그 가운데서도 위빠사나와 간화선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간화선이 최상의 수행법인 이유는 분명하다. 위빠사나가 자신에게 나타나 있는 문제점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는 세분화된 방법인데 비해, 간화선은 하나로 묶어서(화두) 전체로 나아가는 수행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 까닭에 방법론상으로 위빠사나가 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위빠사나와 간화선을 동등하게 봐서는 안 된다.

"깨우침 방법 많을수록 좋다"

김열권 〈위빠사나 지도자〉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의 본질과 진실을 관찰함으로써 괴로움의 원인과 만법의 근원을 깨달았다. 그것은 중도(中道)·연기(緣起) 그리고 실천법인 팔정도 사상으로 함축할 수 있다. 불교를 올바르게 믿고 수행하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 사상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곧 부처님께서 무엇을 깨우치고 가르치셨는지를 아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부처님의 근본진리를 아는 것은 부처님의 원형 찾기라고 할 수 있다. 불교는 시대나 국가에 따라 어느 정도의 변형이 있어 왔다. 하지만 그 근본 진리는 변함이 없다. 수행법도 마찬가지다.

요즘 제3수행법에 대한 논쟁이 한창인 것 같다. 나는 무엇이 제3수행법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불교수행법에 제1, 제2, 제3의 수행법이 따로 있는 것인가. 부처님의 사상에 입각한 수행이면 모두 불교수행법이지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불교는 다방편의 종교이지 않는가. 깨침을 향한 방법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의 근기가 한결같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여러 방편으로 가르침을 설한 것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사성제, 십이연기, 오온 등에 대해 확실하게 가르치고 수행법을 가르쳐 주셨다. 이처럼 불교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면 그 수행법은 문제될 것이 없다.

"화두선법엔 관법 녹아있다"

전재성 〈빠알리성전협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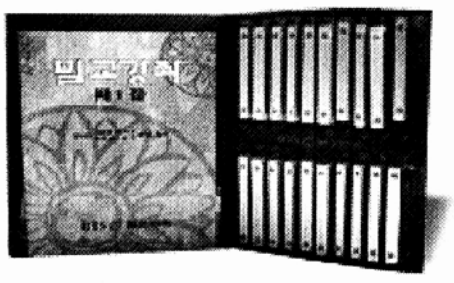
명상을 독립적인 수행법의 범주에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불교의 수행법은 생활·문화 등 삶의 총체적인 면과 그물코처럼 연결되어 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명상은 특수한 기술적인 것이다. 삶의 총체적인 것과 분리된 명상적 기술과 불교의 수행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화두선법에는 관법과 지관법 등이 녹아들어 있다.

발제자가 지적한 "오늘날 화두선을 많은 사람들이 왜 어렵다고 하는지, 선이 정말로 현대인들에게 맞는 수행법인지, 오래 동안 수행하던 스님들중에서도 화두를 깨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가 뭔지…", 이런 물음들에 화두선 수행자의 답변은 있어야 할 것 같다.

중국선은 인도에서 생산한 능엄경, 능가경 등의 경전과 철학체계를 바탕으로 등장했다. 중국의 조사선에는 중국의 특성을 강조하다보니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보다 우위에 두려는 잘못된 아상 같은 것이 배어있다.

화두선이 수승한 수행법임에는 분명하지만, 중국선에 스며 있는 절대성은 비판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선방은 사교입선(捨敎入禪)을 강조하며 바로 선수행에 들입한다. 선이 성립하게 된 역사적 교리적 기초를 닦지 않는다. 이것은 문제이다. 소위 제3수행법이 유행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사교입선이라고 생각한다.

밀교강좌 테이프 판매



혜정 대정사님이 강의하신 '밀교강좌' 방송분을 TAPE 제작, 판매합니다.

혜정 대정사님의 주옥과 같은 법문 80일분량(20개들이 1SET)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번 테이프는 밀교의 교리와 수행을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밀교강좌 TAPE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금수지다라니'를 드립니다.

♣ 아래의 계좌로 입금후 전화를 주시면 댁으로 우송하여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 065-01-0153-673
주택은행 : 661725-89-144651
예 금 주 : 최 종 웅
금 액 : 80,000원
문의전화 : (02)913-0133~4

서북 토종 오가피농장

"한줌의 오가피는 한마차의 금옥을 갖는 것보다 낫다"
-본초강목(P 1732)

· 유기농법에 의한 생명력이 가득찬 오가피 ·

KBS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MBC 9시뉴스, 조선일보 등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어 화제가 된 오가피 제품을 생산농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판매합니다.

99년 1월 9일자 일간스포츠에 보도

("오가피 알아봤더니 숍가피") 에 따르면 이종범, 선동렬, 이봉주 등의 유명 운동 선수들을 비롯한 대표선수 68명이 오가피를 상복하여 효과를 보고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서북 토종오가피 농장에서는 유기농법으로 오가피 5천여그루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산자의 양심을 걸고 정직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 전화문의 및 농장방문을 환영합니다.
♣ 복용사례와 오가피의 효능에 관한 자료도 보내드립니다.
♣ 제 품 오가피추출액, 묘목분양
♣ 전화문의시 전국 택배 배달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운정3리 9-5
전 화 : 031)682-5033 FAX : 031)682-5034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myhome.netsgo.com/baeghj/

진성 석재 예술원

귀의 삼보하옵니다.
玉 전문 불사 업체 '진성 석재 예술원'이
사부대중과 대덕스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최고의 장인정신으로 뭉쳐진 '진성석재 예술원'은
모든 작품들을 오직 불심으로 제작하여
불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옥에관한 문의를
해주시면 정성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 대한민국 명장패


청 옥


백 옥


황 옥


장수거북(청옥·화옥)


두꺼비(청옥·화옥)


단주 · 108염주 · 합장주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용정리 155-2
(대표 : 이진억 명장 : 이석규)
■ TEL : 031-527-6778 (팩스겸용)
■ H P : 011-9046-6981

※ 순옥 조각제품 주문 제작 환영 ※



반산스님의

경전읽기

화엄경 ⑥

이제 두 번째 보광명전 법회도 광명각품에서 '부처님의 발바닥 광명'이 온 누리를 비추자 분위기가 무르익어 간다. 제10 보살문명품에 이르면 열 분의 수자(首字)보살이 좌장인 문수보살과 문답으로 이어진다. 마치 수업하던 선생님이 학생에게 질문을 던지듯이.

둔수보살이 제일 먼저 각수(覺首) 보살에게 질문을 한다. "불자여, 심성은 하나인데 어째서 갖가지 차별로 좋은 세상 나쁜 세상, 잘나고 못난 사람, 부자와 가난뱅이가 왜 생겨납니까?

모든 법은 작용이 없는 것 그 자체의 성품도 또한 없는 것 그래서 온갖 것들이 각각 서로 알지 못한다네(諸法無作用 亦無有體性 是故彼一切 各各不相知)"

다음 덕수장(德首章)에서는, "불자여 부처님의 깨달음은 하나인데 어째서 여러 법문으로 중생을 제도하십니까?"

마치 큰 구름 우레소리로 온 누리에 두루두루 비내리지만 빗방울은 차별 없나니 불법도 또한 그러하니라 / 또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달을 세간에서 못 보는 데가 없지만 밝은 달은 그 곳에 간 적 없듯이 부처님의 모든 법도 그러하니라."

다음 근수장(勤首章)에서는, "불법은 하나인데 중생들은 갖가지 번뇌를 어떻게 끊습니까? 어떤 중생은 이익 얻고 어떤 중생은 얻지 못합니까?

한량없는 모든 허물 끊어 없애려 하거든 마땅히 불법 중에 언제나 용맹하게 정진하시오(勇猛常精進)"

법수장(法首章)에서는, "어떤 사람 물 속에서 떠다니면서 빠질까 겁이 나서 목말라 죽듯이 / 어떤 사람 맛난 음식 차려 놓고도 스스로 굶으면서 먹지 않나니 / 어떤 사람 남의 재물 많이 세어도 자기 몫은 한 푼 없는 것처럼 불법을 수행하지 아니하면 은 많이 들은 것도 아무 소용없네(如人數他寶 自無半錢分 於法不修行 多聞亦如是)"

이런 법문을 전해 들으면 음식점이나 은행, 수영장에서 근무하던 불자들은 남다른 느낌을 받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옛 스님들은 심한 충격을 받고 발심출가(發心出家)한 계기가 된 게송들이다. 나의 노사이신 경봉사나 판사로 사형선고를 내리던 효봉선사도 비슷한 경우라 하겠다. 일도(一道)는 모든 성인이 다니는 길이니 갈래길은 없다.

다음 현수장(賢首章)에서는, "부처님은 오직 한 가지 일로 생사에서 해탈하셨는데 어찌하여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이 갈지 않습니까?

문수여, 모든 법이 항상 그러해 법왕께선 오직 한 법뿐이니 일체에 장애함이 없는 사람들 한 길로 생사에서 뛰어나리라(一切無礙人 一道出生死) / 수없

마음 청정하면 온국토 청정

수많은 부처님 법신과 마음은 하나

"불자여 부처님의 깨달음은 하나인데 어째서 여러 법문으로 중생을 제도하십니까?"

마치 큰 구름 우레소리로 온 누리에 두루두루 비내리지만 빗방울은 차별 없나니 불법도 또한 그러하니라 / 또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달을 세간에서 못 보는 데가 없지만 밝은 달은 그 곳에 간 적 없듯이 부처님의 모든 법도 그러하니라."

다음 근수장(勤首章)에서는, "불법은 하나인데 중생들은 갖가지 번뇌를 어떻게 끊습니까? 어떤 중생은 이익 얻고 어떤 중생은 얻지 못합니까?

한량없는 모든 허물 끊어 없애려 하거든 마땅히 불법 중에 언제나 용맹하게 정진하시오(勇猛常精進)"

법수장(法首章)에서는, "어떤 사람 물 속에서 떠다니면서 빠질까 겁이 나서 목말라 죽듯이 / 어떤 사람 맛난 음식 차려 놓고도 스스로 굶으면서 먹지 않나니 / 어떤 사람 남의 재물 많이 세어도 자기 몫은 한 푼 없는 것처럼 불법을 수행하지 아니하면 은 많이 들은 것도 아무 소용없

는 부처님들 가지신 몸도 오직 다만 하나의 법신 뿐이며 마음도 하나이고 지혜도 하나(一心一智慧) 두려움이 없음과 십력(十力)도 그러해"

유명한 게송이다. 신라시대의 원효성사나 표원대덕(表員大德), 고려시대의 균여스님이 그러하였다. 여기서 일도(一道)는 곧 〈법화경〉의 일불승(一佛乘) 사상을 말한다. 또 일도는 '모든 성인이 다니는 길이니 따로 갈래길이 없다'고 하였다(표원대덕의 〈문의요결문답〉).

오늘날 우리는 좋은 길을 놓아두고 뒷길로 돌아다니거나 숨어다니지는 않는지, 정치인들의 잘못은 잘도 비판하면서, 의사나 약사, 경영자들 이른바 가진 이들 모두가 자신의 호주머니만 쳐다보고는 있지 않은지, 성직이라 떠드는 종교인들도 세속적인 명예나 물질에만 몰두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일이다. '마음이 청정해야 국토가 청정하다'는 봉축표어는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뜻이리라.

▩봉선사 능엄학림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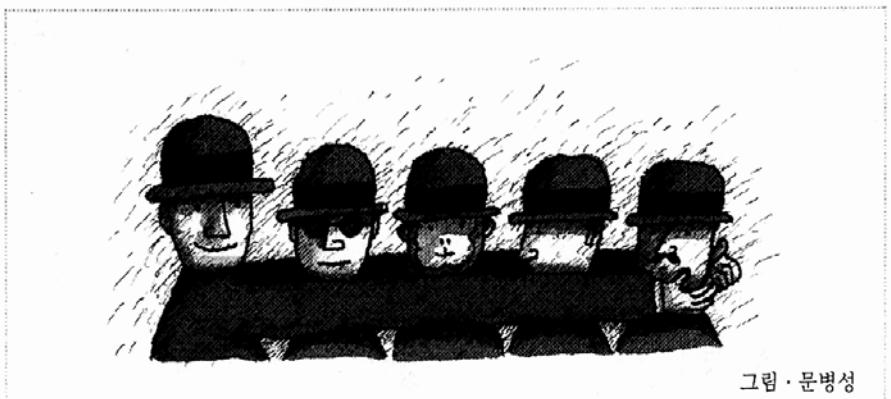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마음 넓으면 삼라만상 포용

불교와 과학 〈25〉

흰색의 모순되는 색은 검은색이 아니라 흰색이 아닌 모든 색이다. 흰색과 검은색은 굳이 말한다면 반대 색 정도 될 것이다. 그러나 남성의 모순 개념은 여성이다. 남성과 여성은 인간이라는 집합을 구성하는 보집합이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에만,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은 반대이면서 논리적으로 공존할 수 없는 모순 관계이다. 물론 남자와 여자가 공존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예를 들어 철수가 남자이면서 동시에 여자가 될 수 없다는 뜻에서 개념의 공존불가능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모순과 반대 사이의 간단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사 속에서 그 차이를 혼동하는데서 오는 오류가 많다. 어떤 경우에는 의도된 왜곡까지도 있다.

그 차이를 혼동한데서 온 역사적 오류의 예를 들어 보자. 구소비에트의 붕괴와 독일의 통일을 거치면서 국제사회에서 냉전시대는 끝났다고 말한다. 과거 냉전의 핵심 역시 모순과 반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데서 비롯되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굳이 말하면 반대 관계는 됐을지언정, 논리적으로 모순 관계가 아니다. 그러나 지난 냉전의 현실은 민주국가와 공산국가는 서로 공존할 수 없는 모순 관계를 강요해 왔다. 서로 공존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혹은 공존하면 그들 각자의 정체성의 권력이 깨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대리 전쟁이 일어나고 상대방의 간첩이 잡혀 사형 당하는 등의 역사적 오류가 일어났었다. 민주 개념과 공산 개념이 그렇게 공존할 수 없었던 모순 관계였다면 오늘날 서유럽에서 기독교민주당과 같은 보수당과 사회당이 공존하는 경우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20년 전부터 종교계, 확실히 말해서 기독교계에서는 진화론과 창조론을 가지고서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심한 논쟁이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비유적인 예를 들어보자. 치악산이 1300 미터냐 아니면 1700미터냐를 따지는 것은 분명히 모순 관계를 따지는 일이다. 왜냐하면 1300 미터의 치악산과 1700 미터의 치악산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모순된 주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치악산이 1300 미터라는 주장과 설악산이 1700 미터라는 주장은 하등 부딪칠 필요 없는 공존의 주장들이다. 그렇듯 진화론과 창조론은 서로 다른 범주에서 하는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논쟁하는 이유는 모순과 반대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이해한다면 어떤 생물학자는 과학자로서 진화론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창조론을 수용할 수 있다. 과학으로서의 진화론과 종교로서의 창조론은 흰색의 저고리와 검은색의 바지를 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결국 진화론과 창조론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모순 관계가 아니라, 다른 범주에서 주장되는, 그래서 서로 공존가능한 다양한 주장 중의 한 단편일 뿐이다.

창조론과 진화론의 논쟁을 말할 때 나는 매우 조심스럽다. 특히 이 지면이 불교 신문이기 때문에 더욱 망설여진다. 마치 종교 갈등을 부추기는 것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나는 기독교와 불교 그 어디에 편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나마 말할 수 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자연과학의 입장에서 볼 때 진화론은 너무 당연한 사실이어서 진화론 여부 논쟁 자체가 쓸데없는 일이기도 하다. 한편 기독교의 입장에서 볼 때 창조론은 시간의 기원과 세계 존재의 당위성 등을 통해서 역시 너무 당연한 교리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 주장들을 동일하고 유일한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말할 경우 얼마나 심각한 싸움이 번질지에 관한 것이다.

모순과 반대

진화-창조 공존 가능한 논쟁

자비심 남도 인정하는 마음

우리 사회가 획일화된 하나의 문화 범주만을 인정할 경우 결국 동종 교배의 문화적 유전병을 발생시키며, 나아가 그 문화를 소유한 집단의 소멸을 자초한다. 또한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범주만을 온갖 것에 잣대로 휘두르는 마음의 획일성은 독선과 위선을 낳으며, 결국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만을 낳을 뿐이다. 문화의 다양성은 마음의 다양성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며, 마음의 다양성은 남을 인정하고 내가 갖고 있는 잣대의 범주만이 아닌 다른 범주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자비심이라고 말한다. 자비는 남들이 속한 많은 다양한 범주들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것까지도 인정하는 다양성의 마음으로부터 움터 나오는 것 같다. 그리고 진정한 자비의 완성은 나말고 다른 것도 나처럼 똑같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앎과 깨달음이 같이 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자비는 논리적으로만 보아도 범주논리의 차이를 확인하는 성유식론의 논리를 구현하며, 동시에 세간사에서는 서로 다른 모순된 두 개를 하나의 자리에 공존시킬 수 있는 삶을 지향하는 초논리이기도 하다.

▩최종덕/상지대 교수(jdcho@chiak.sangji.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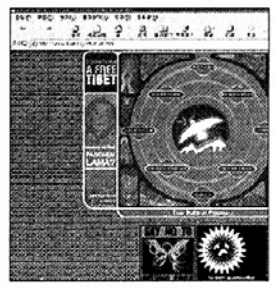
종교 · 인권탄압 악영향
올림픽 유치 '빨간 불'

지구촌 불교 / 베이징 오륜유치 반대

종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올림픽과 같은 국제 대회의 유치에 결정적인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이 2008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국제 사회에서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러한 노력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반대운동은 지난해 말부터 국제인권단체, 티베트 지원단체를 중심으로 벌어진 운동으로, 티베트와 같은 소수민족과 유사종교단체인 파룬궁에 대한 탄압 등 중국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올림픽 유치를 저지해야 한다는 국제 사회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 운동은 지난해 12월, 23명의 인권운동가들이 서명한 공개 서한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전달되면서 촉발됐다. 편지에는 중국의 종교 및 인권 탄압을 고발하는 내용이 게재됐다. 2월에는



◇자유티베트 자유연맹 홈페이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유티베트학생연맹(SFT)가 티베트와의 관계 개선 없이, 중국이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스포츠 정신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캠페인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3월에는 중국과 올림픽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프랑스의 티베트국민지지위원회(CSPT)가 2008년 올림픽의 베이징 개최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엽서를 배포하고 나섰다.

티베트 · 파룬궁 박해 스포츠정신 어긋나
국제 인권단체 중국반대 여론몰이 나서

이러한 맥락에서 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7차 유엔 인권위원회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미국은 중국의 종교 및 인권 탄압에 대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건의했고, 이에 맞서 중국은 미국의 건의에 대한 '불처리 동의안'을 제출한 상태였다. 결국 유엔 인권위원회는 두 안건을 표결에 붙이기로 했다. 표결에 따라 중국의 종교 및 인권 탄압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물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국제인권단체의 바람과는 달리, 이날 본회의에서 중국의 불처리 동의안이 찬성 22, 반대 18, 기권 12, 불참 1로 통과됐다. 본회의에서 중국의 종교 및 인권 탄압에 대한 어떠한 결의안도 채택되지 않게 된 것이다.

물론 이 표결이 국제 여론을 반감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의 자유티베트학생연맹은 "중국의 티베트 탄압이 지구촌 곳곳에 알려질 수 있도록 온 · 오프(On · Off) 라인에서의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의 종교 및 인권 탄압을 폭로하는 보고서도 최근 연이어 발간되고 있다. 티베트 정보 네트워크(TIN)의 보고서는 중국내 티베트자치구 7살 가량의 학생이 전통 불교수행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벌금이 부가되고 퇴학의 위협을 당한 어처구니없는 일을 상세하게 다루었다. 국제 사면위원회의 보고서 역시 정치적 반대자와 종교 수행자에 대한 고문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은 유엔 인권위원회의 눈을 가릴 수 있었지만, 종교 및 인권 탄압이라는 올림픽 유치의 최대 장애 요소는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4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쭝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송선식(2개월 50만원), 송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구중구로(2개월 150만원), 유황간상(2개월 50만원), 유황된장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칠십만원(10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제조 총판 의료법인 효성양방 · 한방병원

이사장 김 시 연 합장

☎(053)628-9145, 655-2227 (011)808-8880

효성양방한방병원 (052)254-2600 (011)545-5500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 「솔선식(松仙食)」,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익수영진고」, 「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53-655-3027) 최 청정심 올림

불교서적의 모든 것! 여시아문
국내최대 인터넷불교서점 여시아문닷컴
www.yosiamun.com
Tel:02) 737-0695 Fax:02) 737-0696

화폭에 담은 자연과 인간의 相生

이호신 개인전 '수묵화로 피어난 가람의 진경'

인사동 학고재-아트스페이스 서울, 25일~5월15일

구도적 자세 세심한 붓질
산사로의 실감나는 초대



◇'구룡사 일주문' (48×32cm, 1996). 원통문이란 편액을 단 특이한 양식의 일주문이다.

사진이 없던 시절, 겸제와 단원 같은 대화가들이 그려낸 아름다운 자연과 그 속에 안긴 산사의 진경(眞景)은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하는 유일한 방편이었다. 한폭의 그림을 남기기 위해 험난한 산길과 멀리 뱃길도 마다 않고, 명산 명찰을 찾아다닌 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는 수백년 전 우리 산천의 아름다움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다.

겸제 단원을 이어 진경의 전통을 계승하고자 하는 화가 이호신씨가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고 체험한 우리 산천과 사찰을 화폭에 담았다. 우리 산천과 그 속에서 우리 삶의 전통을 고스란히 지켜오고 있는 사찰을 수묵화로 그려내어 오늘에 되살린 '산수와 가람의 진경' 전이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인사동 학고재와 아트스페이스 서울에서 열린다. 화려하지 않으면서 포근하며, 친밀감이 느껴지는 세심한 필치로 그려 낸 우리 산천의 사찰 41곳이 선을 보인다.

육안으로는 물론 항공사진으로도 불가능할 부석사의 전경은 그가 그림에 기울인 노력과 정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실감하게 한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옛 건축의 보고요, 가람의 백미로서 찬탄과 경외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석사를, 부석사가 위치한 봉황산의 전면과 후면 측면의 시각을 종합하여 그려냈다. 부석사 일주문에서 극보 제17호로 지정된 무량수전에 이르기까지 석축들이 모두 9단으로 크게 3단씩 나누어져 정토사상의 3배9품(三輩九品) 왕생의 교리를 상징하는 독특한 사찰양식도 고스란히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그림을 감상하다 보면 우리의 사찰들이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자생풍수에 어떻게 조응하고 있는지도 알게 되고, 화가가 관람객(관찰자)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사찰의 주인인 부처님이 바라 보는 곳을 조망하며 그림을 구상했을 것이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다.

고도 경주의 함월산 기슭에 자리한 기림사의 경우 개울 건너 산 위에서 내려다 본 산세를 통해 거북이 두 마리가 물길을 향해 엎드려 있는 형국이 드러나고, 산 위의 부처바위가 아래 연못에 비쳐서 드러나는 불영(佛影)을 통해 경북 울진 천축산 불영사의 이름이 유래한 의미도 이해할 수 있다.



◇'운문사 작압전과 대추나무' (30×39cm, 2000)

조금만 더 눈여겨보면 화가의 그림에 대한 다양한 시도도 발견할 수 있다. '치악산 구룡사' (35X37cm, 1996)는 직접 생(生) 쪽을 삶아 그 물에 한지를 염색해 푸른빛이 도는 바탕 위에 싱그러운 여름의 사찰 풍광을 표현한 것이다. 겨울밤 달빛 아래의 정경과 아련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 노란 치자 물로 염색한 한지 위에 그린 '월정사의 밤' (161X33cm, 1999)은 월정사 팔각구층석탑(국보 제48호)과 석조보살좌상의 조화로움을 한결 빛나게 하는 작품이다.

화가 이호신씨는 그 흔한 자가용 한 대 없이 버스와 기차에만 의지해 41곳 사찰의 갖가지 풍광을 화폭에 표현했다. 때로 높은 산에 오르는 수고를 귀찮게 여기지 않고, 낯선 이 만나기를



◇'달마산 미황사' (138×57cm,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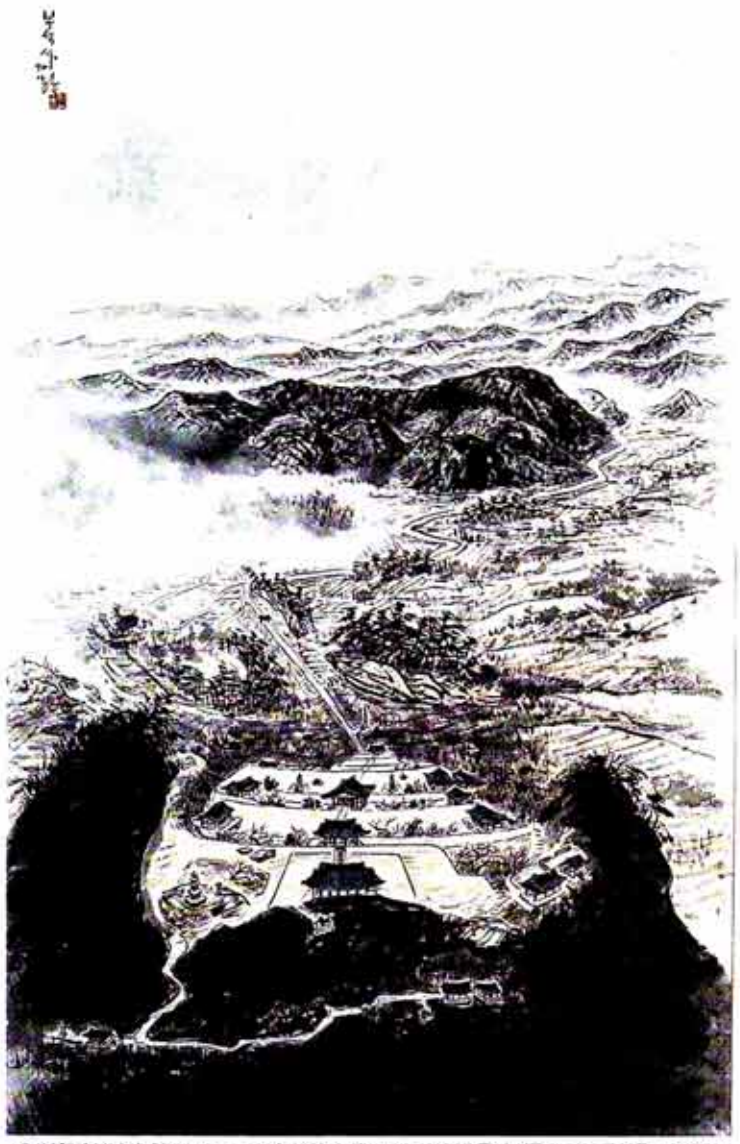
두려워하지 않으며 온 몸과 마음으로 우리 땅, 우리 산, 우리 절을 체험한 까닭에 사진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만의 느낌과 자연에 대한 사랑이 그림 속에 묻어나 있다. 이같은 작업은, 산수와 조화를 이룬 곳에 자리잡고 있는 사찰이야말로 대자연과 고건축의 아름다움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요, 항시 살아 숨쉬는 겨레의 유산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았기에 가능했다.

밑그림은 그가 91년부터 그리기 시작한 것들이고, 작품은 그 밑그림을 바탕으로 94년부터 하나씩 완성했다. 중요한 가람 배치와 자연, 사찰의 의미, 특색, 배치 등을 기본으로 살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암자, 뒷산의 마애불, 스님과 신도의 움직임도 화폭에 끌어들여 보여준다.

이은자 기자
(ejee@buddhapia.com)



◇1994년에 스케치한 가야산 해인사의 전경.



◇'봉황산 부석사 1' (155×86cm, 1994). 부석사야말로 자연과 건축물이 이룬 조화의 극치를 보여준다.

"10년간 전국사찰 그림순례"

7번째 개인전 이호신씨



"사찰 그림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안내지도로 되어버릴 수 있어, 전체를 보여주되 진경으로서 사찰의 모든 것을 화폭에 옮기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빠르게 사는 것이 최상의 미덕인냥 인식되는 요즘, 철저히 아날로그를 고집하며 우리 수묵화의 전통을 오늘에 이어오고 있는 화가 이호신씨.

'산수와 가람의 진경' 전은 그의 7번째 개인전이다.

"겸제 정선이나 단원 김홍도 등과 같은 대가들도 사찰 그림을 많이 그렸으나 그 전통이 오늘날 사라져 가고 있다. 우리 문화에 대해 공부하지 않으니 우리 문화의 발전이 없고, 우리나라 전통 화단 또한 설자리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나라도 우리의 자연과 산천, 그 속에 살아 숨쉬는 우리의 전통을 그림으로 남겨서 후배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 붓을 들었다."

그림과 글 모아 '풍경소리에 귀를 씻고' 책으로 펴내

이씨는 지난 10년간 바쁜 일정을 포개어 틈나는 대로 전국의 절을 찾아 평균 3박4일의 일정으로 사찰에 머물면서, 직접 산을 오르며 사찰 주변의 산세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 하나 스케치하며 작업을 진행해 왔다.

"앞으로도 특별한 목적을 두지 않고,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이씨는,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이는 그림들과 틈틈이 써놓은 글을 한데 묶은 화첩 〈풍경 소리에 귀를 씻고〉(해들누리 刊)를 펴내기도 했다.



◇'화엄사 올벚나무' (24×41cm, 1999). 화엄사 개울 건너 지장암 뜰에 심어진 천연기념물 제38호 올벚나무의 만개한 꽃을 보고 즉석에서 그린 작품이다.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마가목차



1910년 한일합방이 되던 그 해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었다. 평안도 맹산의 우두암에서는 솔바람 사이로 굴뚝의 연기가 쉬지 않고 흩어지고 있었다. 아궁이 밖으로 탁! 탁! 튀어 오르는 불똥만이 고요한 산사의 정적을 깨고 있었다. 붉은 불꽃이 일렁이는 아궁이 앞에서 한암(漢岩) 스님이 곰짝 않고 앉아 있었던지도 무척 오래되어 어느덧 혈이 바뀌고 있었다.

우두암 주변에는 큰 산짐승의 발자국만 간간이 보일 뿐 사람의 발자취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한암 스님이 지난 가을 겨울식량으로 보리쌀 서너 되와 좁쌀 두 되를 장만하여 산사에 올라온 것이 고작이었으니 음식을 만들기 위한 장작불은 아닌 듯 싶었다. 아직도 날이 밝아오려면 꽤 많은 시간이 남은 그믐날 밤은 어둠이 짙었다. 그 많던 나무는 모두 재로 변했고 스님은 힘겹게 굳은 다리를 풀며 애써 우두암 텃밭 옆에 지난 겨울바람에 부러진 마가목 가지를 찾아 나섰다.

강장 · 진해 · 거담 등에 효과

숨죽이고 있던 검은 재가 어느덧 진흙 아궁이 앞으로 붉은 혀를 날름거릴 때 청아한 마가목이 타오르는 냄새는 향불보다 깊고 그윽했다. 연기에 취한 한암 스님이 큰기침을 하는 순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희열과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다. 우주를 관통하는 빛을 깨우치는 순간이었다. 방으로 뛰어온 스님은 단숨에 붓을 들고 "부엌에서 불 붕이다 별안간 눈 밝으니/ 이를 좇아 옛 길이 인연 따라 분명하네/ 누가 나에게 서래의(西來意)를 묻는다면/ 바위 밑 우물소리 짖는 일 없다 하리."

한암 스님은 한순간 마가목이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크게 깨달으신 것이다.

그 후 오대산에 오신 한암 스님은 많은 차 중에서도 마가목차만을 손수 준비하시어 하인들에게 나누는 일을 잊지 않으셨다. 지금도 긴 겨울이 오면 오대산 남대 지장암의 비구니 스님들은 마가목차를 마시며 차가운 겨울 바람을 선풍(禪風)으로 녹여내고 있다.

▦ 약선식 연구가.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저자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마가목(잎, 뿌리, 열매) 각 30g, 물 각 200g

요리법 ① 마가목(잎, 줄기, 열매)을 깨끗이 씻어서 찬물에 담가 불린다. ② 질그릇 냄비에 마가목을 넣고 물이 반 정도 분량으로 줄 때까지 끓인 후 베 보자기에 거른다. ③ 잎, 줄기, 열매를 같은 방법으로 끓여서 다기에 담아 낸다.

효능 강장, 지갈, 이뇨, 진해, 거담

다시 푸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㉚

飛錫和尙高聲念佛三昧寶王論云
비석화상고성염불삼매보왕론운
裕大海者 己用於百川 念佛名者
욕대해자 기용어백천 염불명자
必成於三昧 亦猶淸珠下於濁水
필성어삼매 역유청주하어탁수
濁水不得不淸 念佛投於亂心
탁수부득불청 염불투어난심
亂心不得不佛 旣契之後 心佛雙亡
난심부득불불 기계지후 심불상망
雙亡定也 雙照慧也 定慧旣均
상망정야 쌍조혜야 정혜기균
亦何心而不佛 何佛而不心 心佛旣然
역하심이불불 하불이불심 심불기연
則萬境萬緣 無非三昧
즉만경만연 무비삼매
誰復患之於起心動念 高聲稱佛哉
수부환지어기심동념 고성칭불재

비석화상의 〈고성염불삼매보왕론〉에 '큰 바다에서 목욕하는 이는 이미 온갖 시냇물을 쓰는 것이고, 부처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는 반드시 삼매를 이룬다. 그것은 마치 물을 맑히는 진주를 흙탕 물 속에 넣으면 흐린 물이 맑아지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염불을 산란한 마음에 던지면 산란한 마음이 부처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이렇게 합해지면 마음과 부처를 모두 잊게 된다. 모두 잊는 것은 선정(禪定)이요, 모두 비추는 것은 지혜이다. 선정과 지혜가 고르면 어떤 마음이 부처가 아니겠으며, 어느 부처가 마음이 아니겠는가. 마음과 부처가 그러하다면 온갖 대상과 온갖 반연이 삼매 아님이 없을 것인데 누가 다시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 고성으로 부처를 부를 필요가 있겠는가' 하였다.

近世頻頻見聞如此之人 皆由不知
근세빈빈견문여차지인 개유부지
十界依正 善惡因果 唯心所作
십계의정 선악인과 유심소작
無體可得故也
무체가득고야

문수보살이 말한 〈반야경〉에 '염불해서 일행삼매(一行三昧)를 얻는다' 한 것도 바로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을 모르면 도리어 견애(見愛)의 정을 가져 부처의 형상을 관하고, 부처의 이름을 생각하며 오랜 세월을 보내면 흔히 마귀에 끌려서 미치광이 짓이나 하며 공부가 헛되어 일생을 망친다. 요즘 이런 사람을 자주 보는데 그것은 다 시방세계의 의보(依報)와 정보(正報)와 선악의 인과가 오직 마음이 짓는 것이라 그 본체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文殊所說般若經中 明念佛
문수소설반야경중 명념불
得一行三昧者 亦同此意也 不了此意者
득일행삼매자 역동차의야 불료차의자
却將見愛之情 觀彼佛相 念彼佛名
각장견애지정 관피불상 염피불명
日久歲深 多爲魔魅 所攝 顚狂浪走
일구세심 다위마매 소섭 전광낭주
虛勞功夫 傾覆一生
허로공부 경복일생

或於坐中 見天人菩薩像
혹어좌중 견천인보살상
或如來相好具足 或端正男女
혹여래상호구족 혹단정남녀
及諸恐怖之相 說諸種種幻惑之事
급제공포지상 설제종종환혹지사
或雖非
혹수비
外現之相 於自心中 隨順魔事 惡覺情見
외현지상 어자심중 수순마사 악각정견
不可具陳 當此之時 昏迷不省
불가구진 당차지시 혼미불성
無慧自救 橫罹魔網 良可傷哉
무혜자구 횡리마망 양가상재

또 혹 좌선하는 동안에 천인(天人)이나 보살상, 혹은 여래의 원만한 상호(相好)나 단정한 남녀나 혹은 온갖 무서운 형상이나 갖가지 현혹시키는 일을 말하는 것을 보기도 하며 혹은 밖으로 나타나는 형상은 아니지만 자기 마음 속에 악마의 일을 그대로 따르서 나쁘게 깨달은 그릇된 소견 따위는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를 만나면 정신이 혼미해서 살필 수가 없고 자기를 구원할 지혜가 없어서 악마의 그물에 걸리고 마니, 진실로 슬픈 일이다.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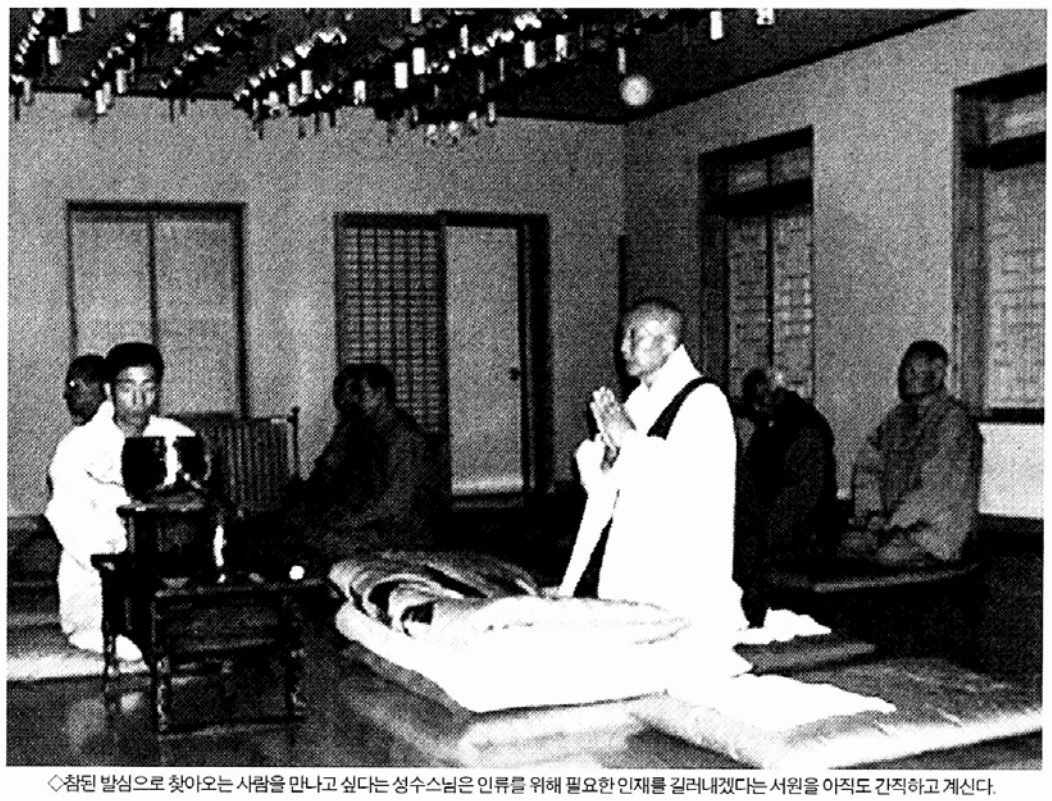
부처의 이름을 생각하는자
반드시 삼매를 이룬다

가까이서 뵌 큰스님

성수스님

황석산 황대선원 조실

"일초도 늦추지 말고 지금 발심"



◇참된 발심으로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성수스님은 인류를 위해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서원을 아직도 간직하고 계신다.

수십 년 전 갓 출가했을 때 운허 스님에게 '불살생(不殺生)'의 뜻을 묻고, "살아 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다"는 풀이에 맞서, 그 뜻을 "죽지 않는 게 사는 것이라고 풀이해야 부처님의 말씀에 더 가깝다"고 말해 좌중의 스님들을 놀라게 했다는 이야기의 주인공, 활산(活山) 성수 스님. 스님은 경남 거창과 함양의 사이에 있는 안위 황석산 황대선원에 주석하고 계신다.

황석산 자락을 따라 흐르는 개울을 지나 조금 올라가자 6~7개의 건물로 구성돼 있는 황대선원이 보인다. 먼 곳에서 한 스님이 이 쪽을 계속 바라보고 계신다. 가까이 다가가보니 바로 성수 스님이다. 예를 올린 후 불쑥 '불살생'의 뜻을 물었다.

"그것은 부처님이 중생을 가엾게 여겨 가르치신 것입니다. 중생은 나고 죽음의 순환 고리를 끊지 못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부처님이 '불살생'의 도리를 말씀하신 것은 고해(苦海), 즉 생사의 바다에서 나오라는 법고를 울리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예전에 내가 '죽지 않는 게 사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도 그 법고의 소리를 듣자는 선(禪)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어 자신에게 해당하는 말인 줄도 모르고 남의 목숨만을 죽이지 않는다는 문자적 의미만을 뜻하는 정도로 알고 있을 뿐이지요. 부처님 근본사상이 '생사자재법(生死自在法)'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수 스님은 7년 전 대나무가 유난히 많은 황석산 자락이 마음에 들어 잠시 머물 요량으로 토굴 한 채를 지었다. 그런데 성수 스님이 주석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가까운 곳은 물론 먼 곳에서 스님을 찾아와 가르침을 청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스님 문하에서 참선하기를 간절히 청하는 사람까지 수가 점점 늘어나 법당과 선원 등이 차례로 들어섰고, 지금의 황대선원으로 변모했다. 선원은 이 곳 안위에서 '큰 스님이 계신 곳'으로 알려져 있고, 전국적으로는 '불자들이 배울 게 많은 시민선방'으로 소문나 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순수한 원력을 세우고, 정성을 쏟으면 하늘도 그만큼 탄복하여 그 원을 이루어 준다는 뜻입니다. 불자들은 이 마음을 알았으면 해요. 극(極)에 달(達)하도록 지극하면 반드시 원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수 79세인데도
새벽 · 저녁 예불 참석
친견 요청 모두 응해

스님의 원력이란 다름 아닌 남녀노소(男女老少) 스스로 깨달음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각자 그릇에 맞추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도량'을 열겠다는 것이다. 지금의 불교는 과거처럼 산중 사찰에서 전통적인 교학과 수행으로 전해지기보다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가치관으로 스며들어야 한다는 스님의 지론이 그대로 현실로 옮겨지는 그런 공간인 셈이다.

물론 황대선원은 스님의 원력에 부합하는 곳은 아니다. "원력을 성취해 가는 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그 도량을 세울 더 좋은 터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수행하신 모든 이들이 그 도량을 세우는 데 반석을 다져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인지 스님의 말이나 행동에는 여든에 가까운 세수(世壽)와는 어울리지 않는 힘과 용기가 있다.

"스님은 현재 세수가 79세임에도 어떤 법회든지 초청을 마다하지 않고 또 친견을 요청하는 불자들을 일일이 만나는 등 젊은 사람보다도 바쁜 하루를 보내시고 있습니다. 선원에서 참선하고 있는 20여 불자들에게 수행지도도 아낌없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큰 스님의 원력에 깊이 감복하고 또 나란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 천군만마(千軍萬馬)를 얻은 기분이 들어 더욱 용맹정진하지요."

1개월 남짓 황대선원에서 참선에 매진하고 있는 박도식(52 · 서울) 씨는 자상하게 지도해 주시는 스님 때문에 정진하는 재미가 날로 더한다고 토로한다. 스님은 선원을 찾은 재가불자들에게 참선을 지도하는 것은 물론 새벽과 저녁 예불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매월 3~4차례의 수계법회나 초청 및 특별법회도 마다하지 않으신다. 특히 스님은 가르침을 청하는 불자들을 잠깐이라도 만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자주 오나. 전에 이 책(〈선행문〉)을 주었던가? 예불 다 올렸으면 얼른 돌아가. 지금 기자가 와서 바쁘니까 다음에 오지." 기자와 인터뷰 중에 스님의 방문을 열고 들어선 6명의 여성 불자들이 책을 받아 들고 생글생글 웃으며, "스님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그런데 저 책은 안 주세요?" 함양, 김천, 거창 등지에서 왔다는 이들은 황대선원의 신도임을 자처하는 보살들이다.

황대선원은 지난해 처음으로 봉축 연등을 달았다. 스님은 원래 이 곳을 토굴로 여겨온 터라 연등을 달지 않았는데, 이렇게 찾아오는 신도들이 많아지고, 황대선원에서 축원을 올리고 싶어하는 바람이 커져서 연등을 달게 된 것이다. 이날 기자와 함께 있는 동안 스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이들 보살만이 아니다. 6시 저녁 공양을 전후로

미안마의 큰스승
아쉰 자나카 스님 방한 위빠사나 수련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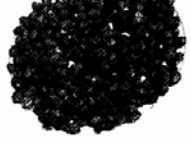
붓다와 담마와 상가께 귀의합니다.
위빠싸나란 석가모니께서 보리수 아래서 대각(大覺)을 성취하셨던 수행방법이고 또한 45년의 교화기간동안 수 많은 구도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셨던 가장 정통성있는 방편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위빠사나의 뛰어난 지도자로서 세계에 많이 보급하고 계신 아쉰 자나카 스님께서 이번에 방한 하시어, 아래와 같이 위빠사나 수련법회를 갖게되었습니다.
스님의 육성법문과 개인지도를 통해 참가자 여러분의 수행에 큰 진전이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뜻있는 분들의 참여기대합니다.



1. 기 간 : 1차 2001년 5월 10일(목) 오전 10시 ~ 5월19일(토) (9박 10일)
2차 2001년 5월 20일(일) 오전 10시 ~ 5월29일(화) (9박 10일)
2. 장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송능 2리 304
3. 내 용 : 아쉰 자나카 스님의 법문과 직접 개별지도의 위빠사나 수행
4. 동참금 : 1차, 2차 각 30만원 1,2차를 모두하시면 50만원
5. 준비물 : ※ 1차는 초보자를 위한 수행 2차는 경험자를 위한 수행임
6. 문의처 : 편한복장, 세면도구, 필기도구 (고무신 편한신발)
031) 574- 5585 전송 031) 574-0808
Homepage - Http://shinbiro.com/~bonginsa

봉인사 · 한길정진원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래원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금檀단花화'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진귀정성 93일 인간의 건강이 금괘처럼 차곡차곡 쌓여 꽃처럼 만개하라는 범주스님의 소망이 담겨 지어진 검정콩의 이름이다. 선식콩 금단화를 만드는 방법은 스님의 비방으로 만든 액즙에 검정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뒤 액즙에 20여일간 담그어 두었다가 꺼내어 10여일을 말린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검정콩 금단화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93일이나 소요된다. 콩은 '속퍼랭이콩'이라 부르기도 하는 서리태콩을 사용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고달픈 작업이지만 그 과정자체가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한다는 신념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고 범주 스님은 말했다.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상담문의 ☎ (02)3437-8282 ◑

현 시대의 火(불)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효한 石楠葉(석남엽)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분
■ 빈혈, 저혈압, 신경성질환, 간염, 간경화, 기관지 천식
■ 뼈가 약하며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
■ 각종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분, 불임증, 산후병
■ 성욕감퇴, 유정, 정자결핍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분)

"보시금은 백록정사 불사기금에 쓰여집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성수스님은

절약 생활화 솔선수범

성수 스님의 담백한 성품은 황대선원의 살림살이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천도재와 같은 행사를 할 수 없는 토굴이라, 30~40여 명의 대중들이 상주해 있는 황대선원의 살림은 넉넉하지 않다. 따라서 스님이 선원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절약이다. 올 겨울의 경우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 사는 만큼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는 스님의 말씀이 있었던 터라, 선원의 대중들은 유난히 추운 겨울에도 겨우 냉기가 가실 정도의 서늘한(?) 방에서 정진해야 했다.

그러나 이를 불평하는 사람은 없다. "큰 스님이 화장지를 한 번에 두 마디 이상 찢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한 거사의 말처럼, 스님은 검약을 먼저 솔선수범하시니 구구한 이야기를 안 해도 대중들이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성수 스님은 1923년 경남 울주에서 태어나 1944년 부산 내원사에서 성암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1948년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장, 조계사 · 법어사 · 해인사 · 고운사 주지, 조계종 총무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이며, 경남 안위 황석산 황대선원의 조실로 주석하고 있다.



◇"불성의 주장자를 세우면 생각이 온전해지고, 지혜가 생긴다." 평생을 불도를 닦기에 게으르지 않으셨던 성수 스님의 주장자는 이 말의 뜻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기업체 사장이며 관할 경찰서장 등이 찾아와 스님을 친견했다.

"그냥 건성으로 절에 다니고 스님을 찾아다녀서는 안된다는 걸 깨닫게 해 주어야 해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불법을 무작정 전하기에 앞서 그들이 왜 찾아 왔는가를 스스로 생각하고 깨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정진에 임했을 때 자신의 목숨도 걸 수 있습니다."

스님은 이 말에 부연이라도 하듯이 효봉 스님과의 일화를 말씀하셨다.

"은사이신 성암 스님의 서찰을 들고 해인사에 갔습니다. 그때 나는 선원에서 공부할 작정이였죠. 그런데 공양간 일을 보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 당시 해인사에 주석하고 계시던 효봉 스님을 뵙게 됐습니다. 그때 효봉 스님은 '하심(下心)을 먼저 배워라' 고 하셨죠. 나는 '상심(上心)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하심을 알겠습니까' 라고 맞받아 쳤습니다. 새파란 젊은 스님의 당찬 기세를 잘 본 탓인지 7일 이내에 도를 깨치겠다는 약조를 하고서야 태극당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방에서 주리를 튼 지 6일만에 나는 '천하의 만물은 무비선이요 만상은 무비도(無非禪 無非道)' 라는 개오를 얻었습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이는 모름지기 끈기 있게 매달리는 근성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부딪치고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수행자의 자세이기 때문이예요."

스님이 불도를 닦는 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발심(發心)의 마음가짐이다.

"발심을 왜 하며 불도는 왜 닦아야 하는지, 또 누구를 위해서 닦고 무엇 때문에 불도를 닦는 지를 우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 전에 해결하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불도를 닦아야 합니다. 우물쭈물 미루다 보면 수만 겁이 지나도 불도와의 거리가 멀어질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발심한 척하지만 행동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버리는 요즘 세태를 단호히 나무라신다. 진정한 발심 없이 자비문중에 들어온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받은 화두를 자다 먹는 떡과 같이 아무 맛 모르고 자리나 지키며 세월만 보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이다.

교리나 화두라고 하는 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달을 보도록 노력해야지 손가락만 보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손가락에 가려진 달을 보지 못하니 한평생 고민하고 병만 들어 일생을 망칠 뿐이다. 여기에 자기 병도 제대로 모르는

'꼭 이루겠다' 마음으로 치열하게 부딪치는게 수행자의 자세

선지식에게서 화두 아닌 화두를 받아 쥐고 일념(一念)병에만 사로 잡혀 있으니, 일생은 고사하고 수만 겁을 지나도록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발심을 하고 나면 '쇠뿔을 단김에 빼라' 는 속담에 맞는 용기와 분심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이 찰나간(剎那間) 혹은 여반장(如反掌)이라 말한 것도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불도는 익혀서 연습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냐' 혹은 '저것이냐' 를 일도양단 하는 것입니다. 불도를 깨우치는 데는 말과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초도 늦추지 말고 용기와 분심을 내어 수미산을 뛰어 넘어야 비로소 불도의 맛을 조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삼일만 애써 닦아도 / 생사해탈 하는데 / 석달이나 닦은 마음에 / 조금도 얻은 바 없네(三日修道 生死解脫 三月修心 小無功得)' 라는 〈초발심자경문〉의 내용을 즐겨 암송하시는 것도 이 때문이다.

스님은 또 〈화엄경〉의 선재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명안종사(明眼宗師)를 찾아 그 지도를 받아 부지런히 공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씨앗이 눈을 뜨는 과정이며, 눈 뜬 후에 물보다 연한 촉이 딱딱한 땅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과 같이 볼자들 역시 그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스님은 막연하게 수행을 시작하고 남의 다리만을 긁는 채 그 결과를 기다리는 우매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는 것이다.

또한 수행을 올바로 하려면 계율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요즘 너무 계율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스님이나 재가불자 모두 부처님처럼 살고 싶으면 계율을 제대로 지켜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열반에 드실 때 계로써 스승을 삼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어 봉축일을 맞는 불자의 마음가짐도 짚어주셨다.

"곧 있으면 부처님오신날을 맞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이날을 맞아 전국적으로 축제를 여는 것도 좋지만, 먼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간절한 마음을 발원하여 보물을 얻었습니다. 보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열반(涅槃), 해탈법입니다. 열반은 영원한 무한대에 도달한 진리 그 본체이기 때문에 수많은 역대 조사들도 노심초사한 끝에, 이 영원한 열반의 본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각자 나름대로 자신에게 맞는 원을 세워 열반의 구법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오랜 수행으로 마음 속에 불필요한 번뇌의 불씨까지도 없앤 탓인가, 스님은 요즘 먼 산의 등줄기에서 부처님의 형상을 본다. "저 산은 부처님의 열반상을 닮았죠. 또 저 산은 부처님이 누워있는 얼굴의 윤곽을 옮긴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부처님이 계시다는 말이 맞아요." 번뇌 없는 수행자의 모습은 우주를 삼키는 사자 같고, 흔들리는 바람 앞에서도 한없이 부드러운 보살의 품과 같다. 아마도 그 속에는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법신(法身)이 있을 것이다.

봄을 가득 머금은 4월의 햇살이 선원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황석산 자락에 적멸하고 있었다.

글=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수완스님의
스님이야기
함현스님

"불전 놨어?!!"

승속을 막론하고 함현스님을 찾는 사람들이 듣는 제일성이다. 그를 찾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고, 그 자신 어느 절 어느 법당이고 간에 참배를 할 때 잊지 않고 꼭 챙기는 것이 불전 내는 일이다. 함께 참배하는 사람들에게도 다들 불전 빠뜨리지 말고 꼭 내라고 당부한다. 충주 관음사와 제천 고산사의 중창불사를 도깨비 장난처럼 뚝딱 해치우고 언제 그랬냐는 듯 훌쩍 떠났다. 말 그대로 운수납자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어릿광대 같은 순수한 열정뿐이다. 항상 떠날 준비를 먼저 하고 머무르는 사람이다.

제방선원을 찾아 20여년간 정진을 하던 그가 수년전에 선방 문고리를 놓고 홀연히 한국을 떠난적이 있었다. 불교 유적지가 있는 곳이라면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만행을 다녔다. 동남아 국가들은 물론 인도 전역을 세 바퀴나 돌며 살살이 찾아 다녔다. 또 실크로드의 남, 북로를 따라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중국, 티베트, 네팔 등 발길 가지 않은 곳이 없었다. 다니는 동안 그 형색이 거지와 구분이 안될 정도였다. 그가 몇 년 후 바람처럼 한국에 다시 나타났을 때, 그 몰골을 본 나는 숨이 넘어가기 직전까지 웃고 또 웃었다. 도대체 한국인이 아니었다. 한국에서도

20여년 선방 정진
문화환경 수호 앞장

상영한 적이 있는 중국 영화 '붉은 수수밭' 에 나오는 가마꾼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또 어찌 보면 태국 사람 같기도 했다. 그후 함현스님은 그 얼굴을 지금까지 가지고 산다.

제천 고산사에서 살 때의 일이다. 오후에 세 시간 동안은 자유 정진을 했는데, 울력을 하거나 산행을 주로 했다. 이교도의 방화로 인하여 소실된 어떤 사찰의 타다 남은 잔재들을 그냥 버리기 아까워 가져다 화목으로 썼다. 일정한 크기에 맞추어 자르고, 쪼개는 작업을 하다보면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처럼 숯가루로 범벅이 되곤 했다. 살림을 맡고있는 함현스님에게 요구를 했다. 광부들도 석탄을 캐고 나오면 돼지고기하고 막걸리를 먹어서 탄가루를 씻어낸다는데, 숯가루 펄펄 날리는 장작을 패면서 돼지고기까지는 안 먹더라도 맥주라도 한 깡통씩 마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함현스님이 어느 날 신도들에게 저 숯 광속에서 정진하는 수좌들 목 좀 씻겨 주라고 농담조로 말했더니 정말로 한 신도가 명절 때 선물로 받은 거라며 나폴레옹 꼬냑 한 병과 시바스 위스키 한 병을 가지고 왔다. 숯가루를 씻는데는 이것이 최고라고 하면서 말이다. 함현스님이 가라사대 "꼬냑은 내 약이니까, 너거들은 위스키 먹어라. 으-음 역시 꼬냑은 좋은 약이야" 하면서 자기만 한 잔씩 했다. 며칠 후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우리는 위스키와 꼬냑의 내용물을 서로 바꾸어 놓았다. 함현스님은 이 사실도 모르고 계속 "음, 역시 꼬냑은 좋은 약이야" 하며 마셨고, 우리도 "그래, 꼬냑은 좋은 약이지" 하며 맞장구를 치곤 했다.

함현스님의 인솔하에 2년전 도반들과 인도 등지를 다녔다. 그는 불교 유적지라면 어느 곳이든지 빠뜨리지 않고 데리고 갔다. 어떤 날은 하루종일이 걸려 찾아갔는데 벽돌조각 몇 장만 굴러다닐 뿐 유적지라고 하기에는 어설픈 곳도 있었다. "이런 곳에 무엇 하려고 이 고생하며 오느냐" 고 투정을 하면,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는 거야"라며 멀쩡한 곳만 성지이고 허물어져 폐허가 된 곳은 성지가 아니냐며 으르렁거렸다.

스님의 이같은 순수한 열정은 한국에 돌아온 후 더욱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우리 사회에서는 개발과 보전이 이분법적 차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생존권과 직, 간접적으로 관계되는 복잡한 양상의 문제이다. 그중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거의 모든 사찰들은 개발 현



장과 최일선에서 맞닥뜨리게 된다. 허인사 인근의 가야산 골프장 건설 계획을 비롯한 송광사, 금산사, 범어사, 석남사 등등 전국 각지의 수많은 사찰들이 개발 계획과 맞물려 진저리치도록 몸살을 앓았다. 지금도 지리산 댐 건설과 관련하여 주변의 여러 사찰들이 몸 부대끼며 투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리산 댐 건설계획은 5공화국 때부터 사회문제가 되어 백지화와 계획변경 사이를 오가다가 지난해에 다시 구체화되면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있는 것이다.

함현스님은 지금 지리산 댐 건설 반대를 위하여 온몸으로 투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리산 인근의 장터마다 다니면서 댐건설 반대캠페인을 하고, 또 낙동강 상류에서 하류까지 한달이 넘는 기간 동안 도보로 행진하였다. 자연 환경 훼손에 따른 생태계의 파괴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이고, 문화환경 파괴는 정신과 역사를 피폐화시키는 또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함현스님은 결코 재야 운동가가 아니다. 20여 년 동안 좌복에 앉아 화두 참구를 하고 있는 선승이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좌복을 박차게 했는지 우리는 안다. 그러므로 그를 선승이 아닌 사회운동가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그냥 참선하는 수좌일 뿐이다. ▩ 정취암 주지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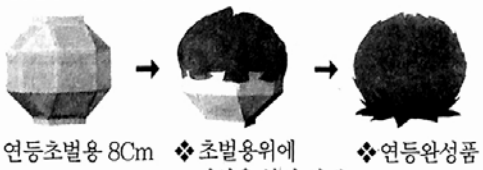


가격 동결 단행!!

● 외환위기의 우리경제에 외국산 등 수입을 막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연등초벌용 8Cm ❖초벌용위에 연잎을 붙인 상태 ❖연등완성품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남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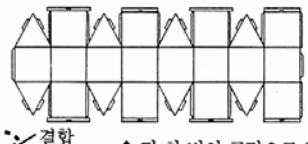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결합

❖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

전화:(02)467-1513 핸드폰:(016)552-9360

제 1 회
불교최고지도자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부산불교신도회에서는 각 사암 및 불교단체의 임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불교최고지도자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합니다.
이 과정은 최고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고의 강사를 초빙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명실상부한 불교계의 최고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입학자격	1. 각 사암 주지스님이 추천한 자 2. 각 사암 신도회 임원 및 임원을 역임한자 3. 불교신행단체 임원 및 임원을 역임한자 4. 불교대학 포교사 과정을 수료한자
교육기간	2001년 5월 11일 - 10월 12일(5개월)
교육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 9시
교육장소	부산불교회관 5층 강당
원서접수	2001년 4월 2일 - 5월 10일
모집인원	70명
구비서류	입학원서 1통(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2매
원서교부 및 접수처	부산시 진구 양정2동 157-1 부산불교회관 5층, 부산불교신도회 사무국 ☎ 051-853-2021, 464-2020
전형방법	서류전형
입학식	2001년 5월 11일(금) 오후 7시
등록금	30만원(입학금 50,000 수업료 250,000)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

불교최고지도자 아카데미 이사장 정 여 합장
학 장 강 선 태

한국불교의 도약을 위한 원력과 실천, 불교최고지도자 아카데미!

KBS '테하차피산의 …'

예일대 출신 무량 스님
불사·구도과정 담아

EBS '천강에 비친 달'

생명화합 천일기도
도법 스님과 대화

Btn '보조국사 지눌'

정혜결사운동 주창
지눌 스님 삶 조명

부처님 오신날 방송프로 '다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교계 방송을 비롯한 방송사들이 영화, 다큐멘터리, 대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해 방송한다.

눈여겨볼 만한 것으로는 KBS-TV '테하차피산의 풍경소리'와 EBS-TV '천강에 비친달', 불교TV '보조국사 지눌' 등이다.

5월1일(밤 11시35분~새벽 12시25분) 방영되는 '테하차피산의 …'는 화계사 조실 숭산스님의 영향으로 한국불교에 귀의해 비구가 된 미국 예일대 출신 무량스님의 불사와 구도과정을 조명했다. 평생 절 짓는 과정을 수행이라 여기는 스님이 혼자서 팔을 걷어부치고 미국 모하비사막의 테하차피산중에 한국절 '태고사'를 짓는 과정을 생생히 소개한다. 6년 만에 요사채를 완성하고 대웅전 불사를 시작하기 위해 한국 도편수와 목수들을 초청해 함께 땀을 흘리는 스님의 최근 모습도 카메라에 담았다. 또 행자 생활을 했던 태고사의 도천스님과 화계사 숭산스님을 방문하는 장면도 화면에 담았다.

안진 PD는 "휴먼 다큐멘터리를 여러 편 찍어 봤지만 스님이 언론에 알려지는 모습을 꺼려 해 무척 힘이 들었다"면서 "시간 제약으로 인해 연출이 필요한 장면도 스님이 실제의 상황 이외에는 허락을 안해 제작 기간이 다른 프로그램보다 2~3배 정도 더 걸렸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같은 날 EBS-TV에서 방송되는 '천강에 비친 달'(밤 10시~밤 10시50분)은 생명화합을 발원하며 천일기도 중에 있는 지리산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을 찾아가 '부처님의 가르침과 깨달음'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듣는다. 도법스님은 물질문명의 발달로 황폐해진 현대사회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자연과 타인과 내가 함께 조화된 절대적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황남채(판화가)씨가 진행하는 이 프로에서 스님은 식욕이나 수면욕을 절제하는 것이 출가 수행자들에게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털어놓는 등 수행생활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한다.

불교TV가 방송하는 다큐멘터리 '보조국사 지눌'(오전 8시50분~오전 9시50분)은 기울어 가던 고려불교를 새롭게 일으키기 위해 정혜결사 운동을 주창해 부처님의 정법을 구현한 5월의 문화인물인 지눌 스님의 삶을 조명한다.

불교방송도 간다라 불교 미술의 역사를 조명한 특집기획 다큐멘터리 '간다라를 가다'(오전 9시5분~오전 10시)를 준비했다. 또 '연등으로 밝히고'(오전 6시15분~밤9시)는 부처님 오신날 전국 사찰의 현장을 연결해 불자들의 서원 등을 생방송으로 전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부처님 오신날 봄맞한 프로그램

방송사	시간	프로그램	내용
불교TV	08:50	특집다큐 보조국사 지눌	지눌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
	10:00	봉축법요식 실황중계	한국종단협의회에서 개최하는 봉축법요식 생방송
	12:25	영화 등신불	소설 등신불을 영화한 작품
	16:00	특집다큐 석굴암	경주 석굴암의 역사문화적 가치 조명
불교방송	08:20	특별대담 김대중대통령	김통령과 함께 부처님 오신날의 의미를 새긴다
	09:05	특집다큐 '간다라'를 가다	동서문명이 교차한 간다라 지역의 불교 소개
	14:10	전국은 연꽃세상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 펼쳐지는 전국의 신시 축제 소개
	18:15	연등으로 밝히고	부처님 오신날 전국의 표정의 행사 모습 전달
	22:05	스크린에 비친 연꽃 향기	영화를 통한 포교방법 토론
KBS1TV	23:35	특집다큐 '테하차피산의 풍경소리'	미국 태고사를 창건중인 무량스님 소개
	10:00	봉축법요식 실황중계	조계사에서 열리는 봉축 법요식 중계방송
	14:10	드라마 '참 좋은 냄새'	스님이 된 어머니의 제자에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내용
ITV	24:50(4.30)	알코르드라마 '그곳에 바람이 있었네'	욕망에 찬 도시인의 고뇌를 그린 드라마
	24:50	특선영화 '우담바라' 윤지호, 이영하 주연	남자심의 원작소설을 영화화
SBS	미정	특집앙코르다큐 '천상천하유아독존'	재활원에서 봉사활동하는 자원봉사들의 활동 모습 소개
	미정	불교만화 '정사정의 비극'	정사정에 얽힌 비극을 애니메이션으로 극화
	19:00	휴먼TV아름다운세상	봉축을 맞이 연등을 만드는 과정을 소개
EBS	12:00	특집다큐 '티벳을 가다'	불교가 하나의 생활인 티벳인들의 종교관 조명
	20:00	특선영화 '석가모니'	석가모니의 생애를 조명한 영화
	22:00	대담 '천강에 비친 달'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을 만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다
아리랑TV		특집다큐 만행	천각스님의 만행을 통해 깨달음의 과정 영상화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아침 일찍, 사찰에서 범종을 치는 시간에 맞추어 일어났다. 어제 사온 '한국의 범종'이라는 음반을 들어보기 위해서다. CD를 틀었더니 새벽의 적막을 뚫고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 비천상의 옷자락 선(線)처럼 너울거리는 여운(餘韻)의 아름다운. 이른 아침 종소리를 듣고 있자니, 그것이 법신불의 혼신을 다한 법문이라는 깨달음이 오면서 가슴이 뭉클해진다. 고(故) 조규동 교수가 1966년에 채록한 것을 새로 복각한 이 음반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 현재 전국에 걸쳐 남아있는 신라, 고려, 조선 삼대(三代)의 범종은 77개뿐인데, 이것들을 모두 채록하여 남겼으니 그 정성이 고맙기 그지없다.

범종소리는 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고 영혼을 깨우기 위한 것 같다. 무거우면서도 청아한 법음(法音)이 잔잔한 물살처럼 빈 공간에 번져나가는 것을 듣고 있자니, 송나라 여정(天童如淨, 1163~1228)의 시 '풍경(風磬)'이 떠오른다. 여정 선사는 스승인 설두지감에게 호되게 얻어맞고 깨쳤으며, 일본 조동종의 개조인 도겐(永平道元, 1200~1253)에게 법을 이어준 선지식이다.

여정의 '풍경'

장엄한 종소리
청아한 풍경소리
영혼 깨우는 법음

掛虛空
오로지 중생을 위해 진리를 설하네
一等爲他談般若

동풍, 서풍, 바람 불어올 때마다
東風西風南北風
땡그렁 땡그렁 땡땡그렁
滴了滴了滴滴了

혼신을 다해 달랑 허공에 매달려
渾身似球

처마 끝에 매달려 바람에 땡그렁거리는 풍경의 이미지를 통하여, 중생들이 법문을 청할 때마다 마다하지 않고 진리를 전해주는 자상한 스승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진다. 장엄한 종소리나 청아한 풍경소리처럼, 두루뭉술이 온갖 방법으로 우리에게 간절히 설법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상생활을 통해 우리가 더욱 깨어있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만든다. 그리고 풍경처럼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설법을 전해주는 선생님이 그리워진다.

인생의 비결은 선생님을 만나는 데 있다. 인간의 몸으로 나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도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진리로 인도해 주는 선지식 만나기가 가장 어렵다.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눈먼 거북이 망망대해에서 부목(浮木)을 만나는 것이나, 삼천 년에 한 번 핀다는 우담발화를 친견하는 일은 모두 스승과의 만남을 상징한다. 눈 밝은 사람은 스승이 곧 부목이요, 우담발화라는 것을 알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스승은 나의 이상적인 인간상, 곧 언젠가 실현해야할 나의 미래상이기 때문이다.

인도의 고전인 '우파니샤드'의 제목이 의미하는 뜻은 (스승의) '무릎 가까이 앉아있다'이다. 세상에서 이심전심으로 진리를 주고받는 사제 관계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만일 믿고 따를만한 스승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인생은 진리와는 관계가 없는 허무한 일생일 것이다.

■문학평론가

전통등발표전

27~5월 3일 봉은사

전통 등 볼수록 환희심

전통등연구회가 지난 5년간의 활동을 되돌아보는 '전통 등 연구 발표전'을 27일~5월 3일 서울 봉은사 보우당에서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 전통등연구회는 전래의 전통 등과 현대인의 감성에 맞춘 새로운 창작 등, 2002년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한 테마 등 등 총 70여점을 선보인다.

또한 전시장 앞마당에서 28일~30일까지 하루 두차례 한지와 대나무를 이용한 전통등 만들기 시연회와 가족등 만들기, 월드컵 소망등 만들기 행사도 연다. 특히 2002년 월드컵 성공 개최를 위한 테마 등은, 등을 만들어 다는 목적이 개인의 복을 비는 것이라는 일부의 편협된 인식을 불식시키고, 우리 사회의 공동체 문화로서 등 만들기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02)517-0149



◇전통등연구회가 올해 새로 선보이는 '오신장등'

전시

보광스님도예전

5월 8일까지 불일미술관

달마도예와 산사정경

경기도 이천의 트굴에서 수행과 작품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선도예가 보광스님이 24일~5월 8일까지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난치병 어린이 돕기 초대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에서 스님은 중국 선의 개산조인 달마선사의 다양한 모습을 표현한 1백50여점의 달마도예와 산사의 정경을 담은 담백한 선도예 작품 1백여점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는 생명나눔실천회와 법련사, 보광스님이 뜻을 모아 이뤄진 것으로 전시회의 수익금 전액이 생명나눔실천회의 난치병어린이돕기 후원금으로 사용된다. 02)733-5322



◇도예 작업에 몰입한 보광 스님

이은자 기자 (ejee@buddhapia.com)

좋은 벗 풍경소리 '법회의식곡집' 등 음반발표

좋은 벗 풍경소리가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법회의식곡집〉과 〈찬불동요창작곡 베스트〉 두 장의 새 음반을 내 놓았다.

〈법회의식곡집〉은 일반 법회의식에서 활용되는 의식용 찬불가와 반주곡, 합창곡 등 총 21곡으로 이루어졌다. 전곡을 국악반주로 편성했으며, 법회진행 순서대로 구성돼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찬불동요창작곡 베스트〉는 풍경소리가 지난 7년동안 꾸준히 발표해 온 〈어린이 찬불동요 창작곡〉 1집~10집의 160여곡 가운데 90곡의 작품을 엄선, 3장의 음반으로 묶었다. 02)717-6985

진단전통예술보존협회

전통예술 연구 및 공연기획단체인 사단법인 진단전통예술보존협회(회장 홍윤식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교장)가 26일 일산 여래사에서 창립식을 갖고 출범한다.

'새 천년을 문화의 세기로'라는 기치를 내건 진단전통예술보존협회는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는 한편, 새로운 문화창조와 연구활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소식

전통연희극 4편 선정

전통연희개발추진위원회는 17일 2001 전통연희극 개발작품으로 극단 아리랑의 '정약용 프로젝트', 전국민족극운동협의회의 '마당극 녹수청산', 극단 현빈의 '바리공주', 사물놀이 한울림의 '영원한 사랑, 춘향이' 등 4편을 선정했다.

불교음악 학술강연회

불교음악학술강연회가 26일 오후 2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중앙대 한국음악과 노동은교수가 초청강사로 나서 한국불교음악사에서의 찬불가의 음악적 특징을 밝히는 한편, 근래에 창작된 불교음악의 내용과 성격을 피아노 연주와 찬불가 독창 등을 통해 설명할 예정이다. 02)720-1390

발명특허 NO. 0060218

現像所願香

현 상 소 원 향

소원성취 이제 더 이상 남들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건강, 사업, 학업등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現像所願香이 소원성취의 기쁨을 선사합니다.
소림사의 달마대사가 오랜 面壁修道로 달마의 형상이 面壁洞 벽면에 投影되어 나타나듯이 現像所願香에도
여러분의 念願이 투영되어 나타납니다. 소원의 성취는 僥倖이나 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 現像所願香이 여러분의 정성과 노력을 증폭시켜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입니다.

本 製品의 特性

本 現像 所願香은 燃燒된 後에도 남은 재가 부서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本來의 形態를 維持함은 물론이거니와 동시에 燃燒가 進行되면서 재 위에 부처님의 形象과 함께 貴下께서 念願하시는 文句가 나타나는 本社의 發明特許品입니다. 本 香은 정신을 맑게 하여주고 心身의 氣運을 북돋아 주는 人體에 有益한 最上質의 天然材料만을 嚴選하여 使用하였으며 一切의 人工香料는 添加하지 않았습니다.
人體에 有益함은 물론 燃燒時 담배냄새, 기타 惡臭제거에 卓越한 효과로 室內의 공기가 맑아졌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원재료 : 침숙, 지단향, 모곡향, 목향, 백단향

使用時 有意 事項

· 향에 표시된 부분이 정면 하단에 오도록 하여 향꽂이에 꽂아 주십시오.
· 연소된 향이리 할지라도 화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화재 및 화상에 주의하십시오.
· 향이 굵은 관계로 처음 불을 붙이실 때 시간이 여타 향에 비하여 조금 더 요구됩니다.
· 제조 유통 중 파손된 제품은 본사 또는 판매점에서 교환하여 드립니다.



(株) 富好
본 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166 ☎ (02) 733-1235
대구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838-13 ☎ (053) 764-6610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건전지용 초•청사초롱 및 손잡이대

등간격
25cm,30cm,50cm,
1M,2M,3M,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 전구
▶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순정품)
▶ 종류 : 3W, 5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휠라멘트가 6배(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 효과가 있다.

불제 건전지용 초
▶ 청사초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인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탑돌이, 방생)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동에 적합 합니다. (건전지 사용)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2)582-6235~6 무료전화 (080)5826-236 평생전화 (0502)582-6235~6
401-070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 A/S (032)583-4023 FAX (032)571-9470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 (031)986-0277~8





잃어버린 '나' 찾아가는 마음 여행

'십우도 - 마침내 나를 얻다' 장순용 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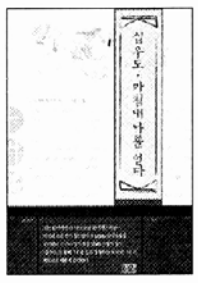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룬다." 존재의 본질인 성품을 곧바로 가리켜서 보게 하는 것, 이것이 선의 입장이다. 말로 세울 수 없는(不立文字), 말 길이 끊어진 자리(言語道斷)에 열리는 세계가 곧 선의 세계인 것이다. 따라서 선은 복잡한 설명을 하기보다는 몇 줄의 시구나 그림을 통해서 간결하게 나타내는 것을 선호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십우도(十牛圖)다. 이 십우도의 사상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한 〈십우도 · 마침내 나를 얻다〉(장순용 옮김, 들녘)가 우리말로 나왔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책을 쓴 요코야마 고이츠(일본 입교대학) 교수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30년 전 이러한 의문을 품고 자아를 찾는 수행을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큰 영향을 받았던 것이 이 책의 주제인 십우도다. 지은이는 십우도는 잃어버린 자아를 찾는 출발점이자 열쇠였다고 말한다. 그는 먼저 "왜 소는 도망친 것일까" "왜 소를 찾아 나서야만 하는 것일까" 등 그림마다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한 다음 나름대로의

동서양 철학 오가며
십우도 현대적 해석

해답을 찾는 마음 여행을 떠난다.

십우도는 본래 선승들에 의해 수행자의 입장을 말한 것이다. 하지만 지은이는 불교의 관점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서양의 실존철학과 기독교 사상 등 동서양의 철학사조를 넘나들고 여러 종교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어렵게 여겨져 온 십우도의 사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학문연구의 과정에서 부딪쳤던 물음과 깨달음들 그리고 유학



경험들을 따라 한 단계씩 변화하고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도 빠뜨리지 않고 있다. 지은이가 참된 자기를 잃고 있음을 자각하고 30여 년 동안의 수행을 십우도의 구성에 따라 정리한 이 책은, 선승들만의 수행서로 인식된 십우도를 누구나 알기 쉬운 대중적인 차원으로 이끌어내고 있다.

지은이는 "현대에는 온갖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인구 증가, 식량 문제, 환경 오염, 자연 파괴 등의 문제 그리고 안락사, 뇌사, 장기이식 문제 등이 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인간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는가'라는 문제로 집약된다"며 "이 물음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십우도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십우도를 눈앞에 걸어놓고 자신의 소를 찾는 여행을 떠날 것을 제안한다.

십우도는 선 수행의 단계를 소(牛)와 목동의 관계에 비유하여 열 가지 그림과 송(頌)으로 도상화한 것이다. 십우도는 크게 세 종류가 전해지는데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중국 북송시대 때 곽암 선사가 지은 것으로 심우(尋牛 · 소를 찾아 나서다), 견적(見蹟 · 자취를 보다), 견우(見牛 · 소를 보다), 득우(得牛 · 소를 얻다) 등 열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참된 자기를 추구하는 선의 실천을 통해 선 수행자가 단계적으로 향상해 나가는 심경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이 십우도에서 소는 잃어버린 참된 자기를 비유한 것이고 목동은 그 참된 자기를 찾는 자기를 비유한 것이다. 값 1만3천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이책의 한구절

■ "불교문화유산은 선인들의 믿음과 정성의 결정체다. 그러므로 그 조성배경과 함께 실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민족문화의 근간이 불교에 있고 또 이에 대한 가시적 접근이란 오로지 불교미술과의 만남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불교미술을 통하여 선인들의 정신적 귀의처를 만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을 없을 것이다."

—조각, 건축, 회화, 공예 등 우리나라 불교미술을 종합적으로 다룬 입문서 〈한국의 불교미술〉(장충식 지음, 민족사). 값 7천원.

■ "불국의 이상세계를 선(善)과 미(美)로써 엄숙하게 구현하고 있는 것을 일컬어 장엄이라고 한다. 사찰을 장엄하고 있는 다양한 장식문양과 조형물 그리고 불전들은 불교의 정신세계와 세계관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부처님을 향한 구도자들의 종교적 염원을 드러내는 가시적 표상이다."

불교세계 善·美로 그린게 장엄
다양성 없는 불교미술은 단명

—사찰에서 볼 수 있는 건축물이나 조형물 그리고 여러 장식문양까지 그 의미와 상징성을 살핀 〈사찰의 장식 그 빛나는 상징의 세계〉(허균 지음, 돌베개). 값 1만5천원.

■ "불교미술의 기본원리는 언제 어디서나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불교미술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거나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다양하게 변모되어 나갔다. 만약 불교미술에 이러한 다양성이 없었다면 굳어지고 썩어져 일찍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불교미술의 자극과 열망으로 모든 불교권에서는 그들의 미술이 세계적인 미술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 것이다.

—1960년 이후 발표된 미술사 논문을 분석한 〈한국미술사 방법론〉(문명대 지음, 열화당). 값 1만4천원.

■ "불교미술에서는 철학과 신앙과 예술이 만나게 된다. 이 셋은 분리될 수 없을 만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것은 조형언어로 표현된 보편적 진리를 지향하여 왔으므로 불교의 철학과 신앙을 모르더라도 미술 작품을 통하여 종교적 숭고미와 예술적 조형미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불교 조각의 흐름을 정리란 〈한국불교조각의 흐름〉(강우방 지음, 대원사). 값 2만2천원.

41선사가 들려주는 깨침의 미학

'달마에서 성철까지' 박영규 지음



선승들이 깨달음을 얻는 과정은 그 자체만으로 경외의 대상이다. 한결같이 선승들은 경전에 집착하지 않는다. 설법보다는 실천을, 이상보다는 현실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선승들의 자취는 현대인들에게 각별하게 다가오는지도 모른다.

달마대사는 무려 9년 동안 숭산의 토굴 속에서 정진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달음은 자기 속에 내재되어 있으며 자신만의 표현과 행동으로 승화될 때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줬다. 혜능 선사는 마음을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곧 깨달음이라 했다. 〈달마에서 성철까지〉(박영규 지음, 들녘)는 중국 선사를 비롯해 우리 나라의 범일 지눌 나옹 등 41명 선사들의 수행담과 그들이 남긴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준다. 값 8천원. 김중근 기자

헛된 꿈 깨고 욕심 버린 사람이 부처

정경 스님 지음

'순간순간이 항상…'



"우리가 늘 먹는 음식은 어디서 옵니까. 농부가 여름내 땀을 흘린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런 노고와 햇빛, 물, 공기, 바람 등이 땅기운과 어울려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갖 인연이 어울러 이룬 것은 '색(色)'이라 하고, 그 이전의 것을 '공(空)'이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그렇게 나타난 음식들도 다시 인간의 몸을 통해 분허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은 까닭이 됩니다."

신간 〈순간 순간이 항상 옳고 완벽할 뿐〉(하남)을 내놓은 정경 스님은 〈반야심경〉의 구절인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토굴생활을 할 당시 찾아왔던 한 초로의 교장선생님과의 대화를 예로 설명한다. 이 책은 불교의 핵심사상이 담겨 있는 〈반야심경〉 270자에 함축된 의미를 선수행의 시각에서 살핀 사색록이라 할 수 있다.

지은이는 '여하시불(如何是佛)' 즉 무엇이 부처인가라는 화두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리고 그 화두에 대한 답을 〈반야심경〉에 비추어 보여준다. 또 그는 부처란 무지와 헛된 꿈을 깨고 욕심을 버린 자일뿐이라고 말한다. 이런 점에서 불교는 자기 무지를 걷어내고 최상의 지혜를 깨달아 가는 지극히 인간적인 수밖에 없는 수행이라고 정의한다.

이 책은 〈반야심경〉를 토대로 하여 불법의 핵심사상을 여러 일화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값 9천원. 김중근 기자

'일본의 한국불교 연구동향'

유학생 연구회 엮음



일본인 눈으로 본 한국불교 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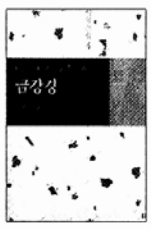
1500여 년 전, 백제의 성왕이 처음으로 일본에 불상, 경전, 스님을 보내 불교를 전한다. 이 때부터 일본은 나름대로의 일본 불교학의 체계를 정립한다. 이 같은 노력으로 인해 일본은 세계불교학의 중심지로 발돋움한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100여 년 전부터 한국불교 연구를 시작했다.

〈일본의 한국불교연구동향〉(장경각)은 일본불교학자들에 의한 한국불교의 연구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결정체다. 이 책은 한국유학생 인도학불교학연구회에서 지난해 7월 발간한 〈한국불교학 세미나〉 제8집에 실린 '일본에서의 한국불교사상의 연구 성과와 전망'을 단행본으로 엮은 것이다.

고마자와대학 불교학부 이시이 슈도 교수의 '일본의 한국불교통사 연구'를 비롯해 일본의 한국화엄학 연구동향(조윤호 · 사토 아츠시)' 등 8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값 1만6천원. 김중근 기자

절대와 하나된 자유

박영호 지음 '…불교 금강경'



다석 유영모(1890~1981). 젊어서 기독교에 입문했던 그는 불교와 노장 그리고 공자와 맹자 사상 등 종교 철학사상을 두루 탐구했던 사상가다. 그의 제자 박영호(성천문화재단 다석사상 연구위원) 씨가 다석 사상 전집 4번째 권 〈다석 사상으로 본 불교 금강경〉(두레)을 내놓았다.

동서양의 종교와 고전을 폭넓게 연구했던 다석은 여러 종교의 교의와 방법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그 궁극적인 진리는 '하나'로서 결국은 같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즉 상대세계를 벗어나 절대세계를 추구하는 것이다. 사람이 법신을 찾아 참다운 자아에 이를 때 절대세계와 하나가 되어 생사를 넘어서는 참다운 자유를 이르게 된다는 것이 다석 사상의 핵심이다. 이 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금강경에 대한 나름의 이해를 시도하고 있다. 값 1만3천원.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자	출 판 사
1	선의 나침반	현 각	열 림 원
2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선 재	디자인하우스
3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4	라마나 마하르쉬 저작 전집	대 성	탐 구 사
5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 견	붓다의 마을
6	금강경 강의	혜 거	부다스텝 팃팜
7	조사선의 실천과 사상	김 태 완	장 경 각
8	참회 기도법	일 타	효 림
9	석가모니 슬기동화	허순봉 이규성	은 하 수
10	나는 누구인가	라마나 마하르쉬	청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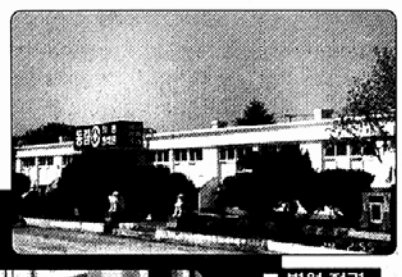
도서 안내: (02)737-0695

가정에서 환자를 잘 봉양 할 수 없는
가족을 위한 회소식!!!

중풍! 치매!

정성껏 간호하고
내 가족처럼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전원같은 이곳에서
가족 모든분들께
행복을 안겨 드립니다.


■ 병원 전경


■ 병원 내부 복도


■ 환자 치료

정성을 다하는 병원
동림한방병원
대표전화 : 054-338-6100 / 휴대폰 : 011-829-6979

원인 지음/308쪽/값 8,000원



산사의 메아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한 수행자의 삶과 정신이 담긴 메아리!



원인스님은 경남 합천 해인사에 입산하여 해인사 승가대를 졸업하고, 김천 수도선원 주지를 역임하고, 태백산에서 3년 결사를 성만하였다. 현재는 경북 영주 대승사에서 정진중이다.
(연락처 : 054-635-6331)

이 책의 판매수익금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승사 사리탑 건립 및 불사에 사용됩니다.

山寺에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자비가 있고
어디에도 걸림 없지만 깨끗함이 있으며
일부러 마음 내지 않지만 본연적인 지혜가 있다.
아, 자비와 청정과 지혜는
산사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운 향기요 메아리다.

산이 있는 곳에 물이 있고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으며
생명이 움직일 때 지혜가 있다.
모든 조작과 위선을 떠난 곳
천진하고 꾸밈없는 자연 속에
고요히 산사는 자리하고 있다.

산사의 메아리

도서출판 장경각 • 본사 :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해인사 퍼런당 • 서울사무소 : 서울 · 성북구 동소문동1가 51 (타운빌빌딩 2층)
• 전화 : (02) 744-1541 • 팩스 : (02)744-1542 • 인터넷 : www.songchol.net · 하이텔 /SUTRA · 천리안 /sattva

"불교학 연구방법론 다양화 필요"

김용표 교수, 응용불교학 포용성 강조

불교학의 연구 주제와 방법론을 다변화하는 문제는 응용불교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동국대 김용표 교수(사진)는 〈불교연구〉 17집에 '응용불교학의 학문적 성격과 과제'를 발표하고, "불교의 문화와 사상에는 윤리, 예술, 사회, 정치, 문학, 경제, 철학 등의 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며 "불교의 이러한 요소를 연구 주제로 삼는 응용불교학은 그 자체가 학문간의 상호 교섭과 공동 연구의 보편화를 앞당길 수 있는 동기가 된다"고 말했다.

그 동안 응용불교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이 시대에서 불교의 역할과 실천 방법을 연구하는 '교리의 현실 응용 이론' 정도로 이해돼 왔다.

김 교수는 "불교심리학 하면, 그 안에 중론이나 유식학을 포괄시킬 수 있고, 불교윤리학이라고 하면 반야 · 보살사상이나 계율을 망라할 수 있으며, 불교사회학이라고 하면 화엄 · 법화사상을 포함시킬 수 있다"며 응용불교학에서 다룰 수 있는 72개의 분야를 새롭게 제시하고, "연구 분야의 세분화는 물론 이를 연구하는 방법 역시 다른 학문 분야의 방법론까지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기 경전에서 현실에 근거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주목한 김 교수는 "불교의 출발점은 철저하게 인간이 겪고 있는 현실의 실존적 문제였고, 이에 관심을 보인 부처님은 리얼리스트"라고 말해, 응용불교학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연구분야 세분화 절실

72개 분야 새롭게 제시

김 교수에 따르면 질문자와의 문답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부처님의 설법은 대중의 현실적 고뇌를 해소해 주고 실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데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 현학적인 교리나 형이상학적인 사상이 끼어들 수 있는 틈은 없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원전에 내재하고 있는 숨은 의미를 현재의 지평에서 재해석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교수는 "텍스트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자의 입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역사적 위치에서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응용불교학의 해석학적 과제는 오늘의 세계의 모든 문제를 불법의 원리에서 재해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과거의 경전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지평에서 경전을 해석하고, 이를 현대 사회와 인간에 대한 상황적 이해에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김 교수의 주장에 대해 고영섭(동국대 강사) 씨는 "이를 계기로 학계 스스로 종파나 종학 연구에 머물러 있는 허물을 벗고, 불교학이 종합학문이라는 인식 아래 인문학으로서의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학과 자연학과도 과감히 연대하는 학제간 협동과정의 설치를 통한 공동연구의 장까지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응용불교학 관련 주요 서적

- 〈불교와 현대세계〉 (동국대출판부, 1976)
- 〈불교와 제과학〉 (동국대출판부, 1987)
- 〈21세기 문명과 불교〉 (동국대출판부, 1996)
- 〈미래사회를 향한 불타의 가르침〉 (대한불교진흥원, 1995)
- 〈새로운 정신문화의 창조와 불교〉 (우리출판사, 1994)
- 〈불교에서 본 인생과 세계〉 (홍법원, 1988)
- 〈불교의 현대적 조명〉 (민족사, 1989)
- 〈민중불교의 탐구〉 (민족사, 1989)
- 〈불교와 현대사상〉 (동화출판공사, 1982)
- 〈현대사회와 불교〉 (불일출판사, 1996)
- 〈한국불교철학의 어제와 오늘〉 (대원정사, 1995)
- 〈미래사회와 불교〉 (원광대학교, 2000)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 보존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는 기구다. 사진은 지난 6일 복원을 위한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군위 인각사 현장 지도위원회 장면.

문화재위원회 위원 교체 앞두고

"불교 문화재전문가 대거 보강 한목소리"

문화재정책 심의의결기구인 문화재위원회 위원 70명(2개 분과이상 겸임 13명 포함)과 전문위원 118명(2개 분과 겸임 2명 포함)의 임기가 25일로 끝난다. 임기 2년의 문화재위원회 교체를 앞두고 불교문화재 전문가들이 대거 보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 문화재위원회 위원 현황 : 지난 해 조계종 문화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 지정문화재 가운데 불교문화재는 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불교문화재가 전문분야인 문화재위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유형문화재 가운데 전통건조물을 담당하는 제1분과위원회에 2명(김동현, 정영호), 유형문화재(건조물 제외)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제2분과위원회에 1명(범하 스님), 제3분과위원회(사적지)와 제4분과위원회(무형문화재)에 각각 1명(정재훈, 심우성)이다.

문제는 유형문화재를 담당하는 제2분과위원회다. 2분과에서 담당하는 분야는 불상, 불교회화, 각종 판각류, 공예품, 목판본, 활자본 등으로 사찰건축이나 탑을 제외한 불교문화재의 거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분과에는 범하 스님이 '불교사' 분야를 맡고 있을 뿐이다. 교계 한 문화재 관계자는 "불교회화처럼 꼭 필요한 분야가 빠진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문화부장 당연직 문화재위원 포함 : 일부에서는 교계 문화재 관련 인사의 당연직 문화재위원 포함 문제도 논의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16일 문화재청에 문화부장 스님의 당연직 문화재위원 포함을 건의했다. 총무원은 "불교문화재가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에 비춰 효율적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는 문화부장이 문화재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시 · 도 문화재위원회 활성화 : 시 · 도 문화재위원회는 사정이 더 나쁘다. 지난 해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 · 도 문화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시 · 도 문화재위원회는 시 · 군에서 지정신청이 올라온 문화재에 대해 가장 가까이서 실질적인 조사를 담당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국 16개 시 · 도 문화재위원회 위원 가운데 불교미술을 전공한 위원은 전체의 10%를 넘지 못한다. 한 지방 문화재담당 공무원은 "지방일수록 불교미술 전문 인력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조계종 문화부 관계자는 "지역의 관련 학과나 지역박물관의 전문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인력 양성 : 불교문화재 전문인력 양성과 이의 활용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 한 관계자는 "불교문화재 관련 전문가들이 부족한 분야가 많다"고 털어놨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재구 학예연구사는 "근 30년 동안 비석에 관해서는 제대로 된 논문이 한 편도 없는 실정"이라며 "동국대학교에 미술사학과와 고고미술사학과(경주 캠퍼스)가 있긴 하지만 중앙승가대에도 관련 학과를 개설해 학예승을 양성하는 등 교계가 전문가 양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 기사 넘쳐 학술기행 '中 산동반도의 한국불교' 쉽니다.



◇선운사 대웅보전 내부 공포 사이 포벽화.

대웅보전 장엄회화에 초점

'미술 사학지' 3호

불교미술에서 주변부로 인식되어 온 사찰벽화나 장식미술을 양식사적 관점에서 고찰한 보고서가 나왔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최근 펴낸 〈미술사학지〉 제3호 '선운사 · 내소사 · 개암사의 불교미술'은 이 세 사찰의 대웅보전 장엄회화에 초점을 맞췄다. 공포 사이의 포벽화를 포함한 대웅보전 내 · 외부벽화는 물론 천장화, 가구재의 장엄화로 나눠 사진과 함께 설명을 실었다.

박물관 미술부는 "이들 사찰의 벽화는 최초 조사 때보다 지워지고 개수되어 원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것도 많다"며 "앞으로 사찰벽화와 장식화에 대한 연구 및 보존, 복원 등에 보고서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천신, 의겸, 보응 등 조선후기 이들 세 사찰을 중심으로 활약한 화승들의 계보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수 있는 것도 보고서의 매력이다.

이번 보고서는 1969년 전국 사찰의 불화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한 차례 조사된 이래 1994년부터 5차례에 걸쳐 실시한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 도판은 각 사찰의 전각별로 배열했으며 이들 사찰의 역사와 불교회화를 고찰하는 보고서를 덧붙였다. 지정문화재는 물론 학술적 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 지금은 도난당한 문화재까지 빠짐없이 포함시켰다.

권형진 기자

"통일신라 시대정신은 일승사상"

이종철 교수 주장



통일신라시대를 열고 지탱해 준 사회통합이론은 일승(一乘) 사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종철 교수(사진)는 '통일신라시대의 사회통합이념'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유식과 화엄사상의 융합형태인 일승사상은 신라인에게 시대의 현실성을 포착함과 동시에 미래를 향한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 논문에서 원효와 의상 스님의 일승사상을 중심으로 당시 통일신라의 시대정신을 고찰한 이 교수는 "중국과는 달리 불교에서 원융적인 평등관을 수용했던 신라의 사상가들은 법상종의 현실주의적 시각, 곧 현실의 차별을 긍정하는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승의 공사상에 입각한 중생제도를 위해서 평등관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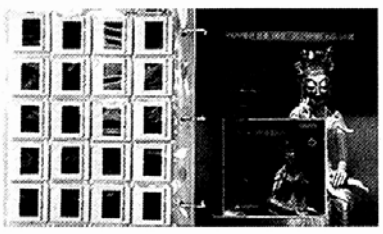
이 교수에 따르면 원효 스님은 중국의 법상종이 삼승(三乘)의 차별성을 강조하는데 반해 불성의 보편적 내재성에 입각한 중생의 평등관이라 할 수 있는 일승(一乘)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원효 스님이 분열보다는 화합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의상 스님 역시 '일승법계도'에서 밝히고 있듯이 일승을 핵심개념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삼승을 일승에 포섭시켰다.

오종욱 기자

중앙박물관 소장명품 100선 슬라이드-CD롬 발간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컨텐츠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박물관회와 공동으로 우리 문화재 명품 100선을 소개한 슬라이드와 CD롬(사진)을 17일 발매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물 가운데 100점을 뽑아 사진 자료와 함께 상세한 설명을 곁들였다. 불교조각, 금속공예, 토기, 와전, 청자, 분청사기 등 9개 분야별로 나눴다.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진 성덕대왕신종(국보 29호)과 금동반가사유상(국보 78호, 83호), 연가7연명 금동여래입상(국보 119호)를 비롯해 20여 점의 불교문화재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CD롬은 자료검색은 물론, 내려받기 해서 편집이 가능하게 제작해 문화상품 개발에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물관 측은 "꼭 알아야 할 만한 문화재만 엄선했다"며 "출판 편집이나 캐릭터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게 제작했다"고 말했다. 증앙박물관과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권형진 기자

四柱命理學의 限界를 克服시킨 —— 改訂增補版

六壬來情秘法

(易術活人天役者用)神示出刊

★래방인에게 던질 첫 말을, 초사(招辭)란에 송곳같이 적시(摘示)해 놓았습니다.
★해당 국수(局數)에, 물어 오는 내용을 23가지 용건별(用件別)로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이 책은, 입문서가 아닌 천역자용으로서 즉시적 효용에 중점을 두어 난해한 육임을 따로 연구할 필요없이, 펼쳐 보기만하면 순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놓았음은 물론, 四柱로는 판단이 안되는 각종 육임비법들을 요약 · 정리, 수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철학관이나 사찰이나 무속점에 사람이 들어서거나 전화했거나, 어디를 가서 만났을 때, 출생년월일시를 묻지 않고도 그 시간만 보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 버릴 수 있게끔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를테면,

●무슨일 때문에 왔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미 일어난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자기가 저지른 일인지, 남에게 당한 일인지,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첫마디를 어떻게 하면 적중할 것인지(이는 초사란에 적혀 있습니다.)

등에 대해 아주 쉽게, 들여다만 보면 알 수 있도록 摘示해 놓아, 미리 그 情況을 지적하므로써 來人의 顔色과 자세를 바꾸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日常生活에서 간단하게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形而上學人으로서의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존경 · 귀의 받을 수 있는 비법들로는,

- 약속인이 올지, 안올지
- 돈이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될지,
- 매매가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될지,
- 잉태아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수술해 날 아이인지,
- 혼인이 성립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인지,
- 부탁한 건이 이루어질것인지, 속을 것인지,
- 이사 방위는 어느 쪽이 좋을 것인지,
- 계획사가 잘될 것인지,
- 찾아갈 사람이 집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 치료될 수 있는 병인지, 못 고칠 병인지,
- 분실물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디에 있을지,
- 어느 방위로 도망가야만 안전할 것인지,
- 여행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 승부사에 이길지, 질지,
- 온 사람을 재워야할지, 재워서는 안될 것인지,
- 상대가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인지, 해가 될 사람인지,
- 내일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즉시 딱부러지게 말해줄 수 있도록 간추려 놓았습니다.

특히 본문에는 60甲子 매일 매시간별로 來人의 사정을 採出해 놓아, 만나거나 전화한 시간만보면 그 사정이 환히 드러나게 되어있고, 居所를 떠나 부재중 일때는 1시간 후든, 하루 후든, 열흘 후든, 1년 후의 어느 때라도, 찾아온 사람의 來意 및 事情을 미리 날짜와 시간별로 예시해 놓을 수 있어, 가히 神通의 경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예사로운 책이 아니고, 五行 또는 法力과 神明의 경지를 유감없이 과시할 수 있는 神靈 · 神示가 담겨진 책이므로, 일반인에게 弄斷되지 않도록 음양오행가 · 무속인 · 스님 등 活人專門天役者의 개인 주문만 받고 있습니다.

■ 책 값 : 삼십오만원(₩350,000)
■ 책 질 : 영구 보관용으로 제작(책크기는 가로21cm×세로30cm)
(흑색 표지 · 양장제본 · 금박 · 2000페이지 · 미색용지 · 옵셋인쇄)
■ 입금처 : 한빛은행 066-475024-02-001 김 나 려
■ 배 달 : 입금후 전화하시거나 우편환 송금하시면 즉시 택배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전 화 : (02)993-8680
■ 주 소 :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90-49호 일심빌딩 401호

도서출판 복 문 대표 김 나 려

· 출판사등록번호 강북 제9-00076호
· 사업자등록번호 도봉 210-90-48989

책값이 他 易書에 비해 비싸기는 합니다만 천역자용이므로, 이책을 활용하여 획득 될 명성과 학문성취감에 비하면 매우 싼 값이 될 것임을 주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내용이 실망되실 때는 즉시 대금을 반환하겠습니다.

본책 휴대용은, 본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값50,000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법들을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일 · 시(每日 · 時)별로 적시하여 놓았습니다만, 그래도 혹, 의문되시는 점이 있을 때는 전화하십시오. 저자인 鼓卜子 曉史선생님과 연결하여 친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출판 卜 問 올림

전 내용이 한글에 한문 토(吐)가 달려 있어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책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고, 보고 말하면 되는 책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설명회를 갖고있습니다.
참석하시면 이 책을 더 밝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더 밝게 보실 수 있는 요령이 녹화 테이프로 제작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주문하십시오.

▶ 상담(相談)내용에 대해 즉시 답변(答辯)할 수 있는 항목들을 아래와 같이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희망사 · 승진사 · 구재사 · 시험사 · 구직사 · 결혼사 · 임신사 · 가정사 · 이주사 · 소송사 · 질병사 · 매매사 · 여행사 · 도난사 · 심인사 · 상면사 · 채용사 · 투자사 · 승부사 · 가격사 · 농경사 · 묘지사 · 기후사

눈을 감자 온 우주가 내 안에 들어왔다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달마이야기

(28)숭산 소림사(嵩山 少林寺)

달마는 숭산이 세 개의 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에 '번쩍' 하는 영감이 스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바로 셋(三)이 하나(一)를 이루는 철리(哲理)를 상징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다. 달마는 일찍이 스승 반야다라 존자로부터 삼일원리(三一原理)의 비법(秘法)을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더욱 감흥이 새로웠다.

숭산은 비단 세 개의 산으로만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동쪽과 서쪽에 있는 태실산과 소실산만 해도 기이한 봉우리가 각각 36개나 된다. 36봉(峰)은 하늘의 도수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두 산을 합한 72봉은 중요한 지리적 의미까지 더해 그 기세를 한껏 뽐내고 있다.

소실산 기슭에 도착한 달마는 숙연해졌다. 숭산에서의 첫밤을 이 곳 기슭에서 지내기로 마음먹었다. 마땅한 자리를 찾기 위해 이곳 저곳을 살폈다. 마침 북쪽 기슭에서 퇴락한 암자를 찾아 냈다. 그는 뚫린 지붕 위로 보이는 별을 이불 삼아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가 무섭게 달마는 산길을 올랐다.

三一原理의 비법

산길은 비록 굽이굽이 굴곡이 심했지만 그다지 험준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골짜기마다 우거진 녹음이 기암절벽과 어우러져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고 있었다. 이런 풍광이 사람을 유혹하며 발길을 붙잡았다. 느릿느릿, 때로는 바위를 타고 때로는 돌계단을 따라서 얼마를 걸었는지 모른다. 어느덧 등줄기가 땀으로 흠뻑 젖었다. 잠깐 쉼 요량으로 주변을 살폈다. 마침 돌로 된 정자가 먼발치에 보였다.

정자를 찾아들었다. 돌 의자가 몇 개 놓여 있었다. 돌 의자에 앉아서 땀을 닦으며 올라온 길을 내려다보았다. 그러나 시야가 가려 밑이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하늘에 떠돌던 운해(雲海)가 내려앉는 듯 느껴졌다. 은통 주변이 구름바다에 뒤덮였다. 계곡을 타고 산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쳤다. 산 아래서 피어 오른 안개가 구름과 합쳐져 회오리치는 모양이 예사롭지 않았다. 안개와 구름, 숲과 바위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회오리 속에 모두 하나가 되었다.

달마는 그대로 돌 의자에 앉아서 쉴 수가 없었다. 안개구름을 뚫고 돌 정자를 나왔다. 한 줄기 희미한 빛이 꽂히는 방향으로 찾아 올랐다. 단숨에 십여 리나 올라 온 듯싶었다. 더 이상 오를 곳이 없었다. 아마도 소실산 정상인 듯싶었다. 달마는 장방형(長方形)으로 뻗은 긴 바위 위에 앉아 쉬기로 했다. 구름이 걷힐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구름은 뭉실뭉실할 뿐 좀처럼 걷히지 않았다. 마치 기다리는 사람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 같았다. 달마는 그 자리에서 가부좌를 하고 눈을 감았다. 육신의 눈을 감자 온 우주가 내 안에 들어왔다. 우주가 나이고 내가 곧 우주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살며시 눈을 떠보니 뿌옇던 시야가 조금씩 터지기 시작했다.

달마는 자기가 앉아 있던 긴 바위의 저편 끝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비록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지만 전혀 인기척을 느끼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어쩌면 존재양식(存在樣式)으로서의 인간의 한계를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다. 달마는 입가에 엷은 웃음을 흘렸다. 그래도 이런 산꼭대기에서 사람을 만났고 그것도 한동안 함께 앉아 있었다는 것이 못내 즐거웠다.

다섯 봉우리에 둘러싸인
소림사와 두 그루 계수나무
마치 연꽃 한복판에 선듯

물끄러미 등줄기에 시선을 보냈다. 그도 무엇인가 느낌이 달랐던 모양이다. 흠칫 놀라면서 뒤돌아보았다. 그는 아직도 어린 티를 못 벗은 동자승이었다. 동자승은 눈을 크게 뜨며 경악하듯 입을 벌렸다. 그도 그럴 것이, 기골이 장대한 이역의 노승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으니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동자승은 구천에 있는 신선이 내려온 것으로 믿었다. 벌떡 일어나 달마앞에 엎드렸다. 두 손을 합장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승이 어리석게도 대선(大仙)을 알아뵙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소서!"

달마는 어린 스님이 놀라 당황하는 것을 보고 활짝 웃으며 말했다.

"내가 그렇게 놀라게 했는가? 이 늙은이는 신선이 아니라 천축에서 온 승려라네. 놀라지 말고 고개를 들게."

"천축에서 오신 스님이시라고요?"

동자승은 신선이 아니고 천축의 스님이라는 말에 곁눈질을 하면서 반문했다. 과연 코도 있고 눈도 있는 스님의 모습이 뚜렷했다. 단지 피부색이 약간 다르다고 느꼈다. 그제야 동자승은 이마에 나 있는 식은땀을 닦으면서 일어섰다. 그리고 달마에게 읍 하면서 물었다.

동자승과의 만남

"여쭙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디서 오셔서 어디로 가시는 길이십니까?"

달마는 귀여워 죽겠다는 듯 웃었다. 그리고 인자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짚신 하나, 탁발 하나로 사해를 돌아다니고 있다네. 소사부께 묻겠는데, 여기가 어딘가?"

동자승은 손을 들어 저쪽 산꼭대기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를 보십시오."

달마는 동자승의 손끝을 따라 눈길을 보냈다. 구름을 뚫고 우뚝 솟은 봉우리 밑에 오래된 절이 보였다. 신기하게도 그 고찰은 대나무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규모도 대단했다. 겹겹이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옛 위세가 그대로 나타나 있었다. 고찰로 가는 길목엔 커다란 산문이 세워져 있고 금색으로 죽림사(竹林寺)라고 쓰여진 현판이 걸려 있었다.

달마는 절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폈다. 죽림사의 색다른 품격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달마는 동자승에게 물었다.

"소사부, 그대는 죽림사에 있는가?"

"그렇사옵니다."

"내 한 가지 묻겠는데, 이 죽림사는 어째서 이렇게 높은 곳에 지었나? 대나무숲이 산꼭대기에 있는 것도 이상하고…."



◇김명국 作(1663년 조선통신사로 일본에 갔을 때 그린 달마도, 종이에 수묵, 82.8×57.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어린 스님은 천진스럽게 웃으면서 대답했다.

"노사부께서는 아직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전설에 의하면 이 죽림사는 본래 등봉성(登封城) 서쪽에 있는 대나무숲 죽림(竹林)의 한복판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의 이름도 죽림사라고 붙였답니다. 그런데 어떤 신선이 법력을 펼쳐 이 절을 승천(昇天)하게 하여 오늘날의 이 곳으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꼭대기에 있는 대나무숲은 천상(天上)죽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달마는 동자승이 말하는 전설을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절을 들어 옮기는 법력의 경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달마는 기쁨을 머금은 얼굴로 동자승에게 다시 질문을 던졌다.

"죽림이 하늘로 올라왔다면 그 땅에는 절이 없어졌다는 말이냐?"

"아닙니다. 그 곳에는 아직도 절이 있습니다."

동자승은 노승이 몰라서 묻는 것 같아 절로 신바람이 났다. 팔을 휘두르면서 큰 목소리로 대답했다.

"노사부님, 이 곳에서는 천상에 죽림이 있고 지상(地上)에는 소림(少林)이 있다고들 하는데 그것도 모르셨습니까?"

"야, 그래…, 그런 말이 있는가?"

동자승은 멀리 산밑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보라는 시늉을 했다. 달마는 눈을 크게 뜨면서 내려다보았다. 정말 절이 보였다. 산 아랫자락의 울창한 숲 속에 지붕끝이 뚜렷하게 포물선을 긋고 있었다.

"저 곳에 있는 절은 무슨 절인가?"

달마가 물었다.

"소림사입니다."

동자승이 대답했다.

"무엇이라고, 소림사라고?"

달마는 다시 산기슭 아래로 시선을 보냈다. 그는 그 곳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눈을 손으로 비비면서 몇 번이나 확인했다. 바로 절 앞쪽으로 두 그루의 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는 것이 보였다. 그 나무의 향기가 달마의 코끝에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것은 분명 계수나무의 향기였다. 달마는 한순간 신비로운 느낌에 휘감겼다. 할 말을 잊은 채 계속 두 그루의 나무를 응시했다. 이윽고 동자승에게 고개를 돌렸다.

"소사부! 내 또 한 가지 묻을 게 있네. 저 밑에 하늘을 찌를 듯이 서 있는 두 그루의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그것은 천 년도 더 된 오래된 나무인데, 이 곳 사람들은 계수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말에 달마의 귀가 번쩍했다. 눈앞도 갑자기 밝아지는 것 같았다. 달마는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입으로 중얼대기 시작했다.

'계수나무라, 계수나무라! 이 곳이 바로 오래도록 창성할(久昌昌) 땅이란 말인가!'

동자승은 노스님의 갑작스런 변모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못하고 다만 지켜볼 따름이었다. 달마는 계속 중얼거릴 뿐 끝내 말이 없었다. 동자승에게 합장으로 고마움을 표시하고 작별의 말 한 마디도 없이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달마의 마음은 벌써 소림사와 두 그루의 계수나무에 닿아 있었다. 아무리 걸음을 빨리 걸어도 마음의 속도를 따를 수 없었다. 달마는 몇 개의 고개를 넘고 개울을 건너 거의 두 시간이 넘어서야 소림사 언저리에 접어들었다. 달마는 자기의 걸음이 그토록 느린 것을 예전엔 미쳐 몰랐었다. '청산에 마음이 매이니 말을 타고 달리는 것도 느리다' 고 했던가. 달마는 마음의 조화를 되뇌면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두 그루의 계수나무 앞으로 갔다. 우뚝하늘로 솟아 햇빛과 구름마저 가려주고 있었다. 달마는 계수나무 두 그루를 번갈아 가며 안아 보았다. 나무 둘레가 어찌나 큰지 세 사람이 팔을 벌려야 겨우 닿을 정도였다.

절 들어 옮기는 법력

달마는 경건한 마음으로 소림사 산문 앞에 섰다. 그는 문득 소림사가 다섯 개의 산봉우리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다섯 봉우리 가운데 어떤 산은 마치 깃발 모양을 하고 있었다. 어떤 산은 큰북을 닮은 듯싶었다. 어떤 산은 보인(寶印)과 같은 느낌을 주었고, 어떤 산은 큰칼처럼 솟아 있었다. 그리고 어떤 산은 마치 큰 범종(梵鐘)같이 보였다.

달마는 다섯 봉우리를 둘러보면서 다섯 꽃잎이 활짝 핀 연화(蓮花)같다는 느낌을 떨칠 길이 없었다. 소림사는 바로 다섯 꽃잎의 연꽃 한복판에 세워져 있는 꼴이었다. 달마의 입에선 저절로 감탄사가 새어 나왔다. 일찍이 풍수지리상으로도 이렇듯 훌륭한 명당을 본 일이 없었다. 달마의 가슴은 감동으로 고동쳤다. 바다를 건너 산을 넘어 험한 길을 헤쳐서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생각이 날개를 펴듯 펄럭였다. 달마는 스승 반야다라의 게송을 떠올리면서 계수나무 두 그루와 맞닿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았다. 달마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산문을 지나 소림사 경내로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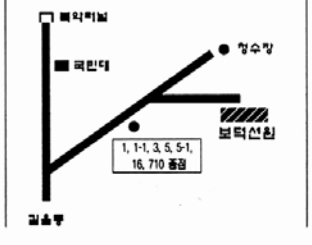
奉 보덕선원 서암대종사 하안거 결제 대법회 祝

보덕선원에서는 서암 대종사의 지도하에
신사년 하안거 결제 정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정진하실 비구스님과 보살님들께서는 하안거에 많은 결제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재단법인 대 각 회
삼각산 보덕선원 선원장 오본 합장

일 시 : 불기 2545년 (2001년)
5월 8일 (음력 4월 15일) 10시
장 소 : 서울시 성북구 정릉 4동 824-1호
삼각산 보덕선원 대법당
문의처 : 보덕선원 02-914-4235

■ 교통안내
▫ 지 하 철 : 4호선 성신여대 입구 하차
→ 일반버스 (하단) 탑승 종점 하차
▫ 일반버스 : 1, 1-1, 3, 5, 5-1, 16, 710 종점 하차

찾아 오시는 길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對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일류 포교사로 다시 태어났어요"

어린이 교사대학 첫 수료

"어린이 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불교 어린이 교사대학'이 상설교육기관으로 정착돼야 한다."

20일 조계사 제 2문화교육관 4층 법당에서 열린 '불교 어린이교사 대학 수료식'에 참가한 12명의 수료자들 입에서 터져 나온 한결같은 소리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실력 있는 어린이 포교 지도교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동안 조계종 포교원이 시범 운영해 온 '불교 어린이 교사대학'은 수준 높은 강의와 현실감 있는 프로그램으로 수강자들로 부터 열띤 호응을 얻었다. 불교 어린이 교사대학은 수강 신청을 했다고 모두가 다 수료생으로 뽑힌 것은 아니다. 그간의 출석상태와 시험점수, 평가보고서 등을 통해 어린이 포교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10명이 엄격하게 수료자를 심사했다. 그 결과 50명중 12명만 수료증을 받았다.

총 80강의로 진행된 '불교 어린이 교사대학'의 강의 프로그램중 김태영 법사(문사수 법회)의 '부처님 일대기'는 수강생들로부터 유익했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11월 강남 봉은사에서 열린 1차 수련교육에서 포교원 신도국장 덕혜 스님이 사찰건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교리 · 예절 · 놀이 등 프로그램 알차고 다양
발우공양 · 염불 실습…상설교육기관 바라

김법사는 이 강의를 통해 불교 기초 교리 지식은 물론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과 지도교사들의 신심고취 필요성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인상적이었다고 수료자들은 입을 모은다. 또 놀이전문가 이상호씨의 '어린이 법회 놀이와 예절지도'는 어린이 법회에서 실제로 응용할 수 있게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현실감 있는 강의여서 교사들이 일선 포교 현장으로 돌아가 곧바로 적용할 내용들이 풍부해 많은 도움이 됐다는 평가도 함께 받았다.

6개월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한 정기자씨(불교레크레이션협회 부회장)는 "18년동안 어린이 포교를 위해 일해왔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었다"며 "이번 교사대학 프로그램은 교육기간과 내용 등에 있어서 몇가지 보완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강사들의 수준이 높아 효과적"이었다고 좋아했다. 어린이 포교에 관심이 많아 강원도 문막에서 6개월동안 열성적으로 강의에 참가했다는 한옥경씨는 "이번 교육중 강남 봉은사에서 열린 수련회에서 발우공양, 염불실습 등 불교 습의 교육을 해봐 피상적으로나마 알던 불교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몇가지 있다. 우선 강의 프로그램의 난이도를 적절히 선별 배합하지 못해 몇몇 강의는 참가자들의 수준에 따라 지루하고 식상했다는 지적도 흘러 나왔다. 또 포괄적인 교육 프로그램에서 탈피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강의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도 보완해야할 점으로 강조됐다.

양진수 조계종 포교원 주임은 "불교 어린이 교사 대학이 정식 상설교육기관으로 설립되려면 많은 어린이 지도교사들이 교사 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찰과 어린이 단체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은 6월중으로 평가위원과 실무위원으로 구성된 평가회를 갖고 불교 어린이 교사 대학의 정규 상설교육기관 인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주부 신행담

보시행의 공덕 ㊥

그후로도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병원 목욕봉사를 하러 대구지역의 병원들을 돌아 다녔다. 나는 항상 병원에 가면 환자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목욕 시키는 일을 주로 하지만 환자의 병상 앞에 앉아 기도 드리는 것도 빼놓지 않는다. 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세상의 모든 아픈 이들이 빨리 자신의 병을 훌훌 털고 병석에서 일어나길 발원한다.

살아가다보면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질 않는다. 그래서 인생을 '고해의 바다'라고 하지 않는가? 이렇게 인생의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젊은이들 병원에서 봉사하다 만난적이 있다. 28세의 잘생긴 청년이었는데 하체를 전혀 움직이지 못해 내가 목욕 봉사를 해주었다. 올 봄까지만 해도 부인이



그림 · 이준석

환자 돌보다 삶의 용기 배워

항상 병석을 지키고 있었지만 결혼한 지 1년도 안돼 하반신 불수가 된 남편을 두고 갑자기 떠나가 버리는 바람에 혼자가 되었다. 원만한 사람 같으면 자신에게 연거푸 닥친 불행에 삶을 포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청년은 자신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장애와 불행을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나는 시간날때마다 그 청년을 방문해 기도하며 용기를 잃지 말라고 위로해 주었다.

모든병의 원인은 대개 마음으로부터 온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주어진 장애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판가름난다. 이 환자의 경우처럼 자신의 장애와 시련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현실을 받아들여 마음의 여유를 가진다면 세상의 모든 시련을 훌륭히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절망에 빠진 환자들에게 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부처님께 맡겨 놓고 기도하며 마음을 편히 가지면 모든 고통과 병은 물러간다"고 자주 강조한다.

봉사보시를 시작한지 2년이 지나자 나는 환자들을 통해 오히려 삶의 용기를 하나가득 배운다. 그들의 투병생활을 지켜보며 인생에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며, 돈이나 재물에 집착하기 보다는 정신적인 풍요를 얼마나 누리고 사느냐에 따라 행복의 가치기준이 정해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병원에 봉사를 가려고 집을 나설때마다 오히려 내가 무엇인가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배우러 간다는 마음에 발걸음이 가볍다.

요즘은 고려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병실들을 차례로 돌면서 단주, 불서, 테이프 등을 나눠 주며 기도를 함께 해준다. 그럴때면 식당에서 일하시는 주방 아주머니들까지도 모여 들어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환자들은 우리 봉사단 일행을 무척 반겨준다.

아픈 아들을 밤낮으로 간호 하고 있는 병실의 한 아주머니는 집안이 모두 개신교 신자인데 내 얘기를 듣고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다. 그러더니 내가 준 단주를 열심히 굴리며 기도하고 있다. 또 불서와 법문 테이프를 듣고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나에게 질문한다. 나는 이런 모습을 보며 말로 하는 포교보다는 행동이 수반된 포교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계속)

도재원(대구광역시 북구 고성3가)



이선옥의 선무 건강법 ①

이번호부터 선무가 이선옥 씨의 '선무 건강법'을 연재합니다. 매주 선무기법을 통해 심신건강법을 소개할 이선옥 씨는 故 김백초 선생에게 현대무용 및 한국무용을 사사했으며 선무용단을 창단해 유럽과 미국, 아시아 등지서 3000여회의 공연을 펼쳐왔습니다. 현재 상명대학 무용과 겸임교수이자 아시아태평양공연예술 네트워크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 선무와 선무기법 •



참선의 목적은 인간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해탈 즉, 자신의 본래 면목을 찾는 데에 있다. 선무(禪舞)는 이러한 선의 궁극적 지향을 위한 조심 조식의 원리를 무용으로 변용시킨 기법이다. 이를 나는 선무기법(禪舞技法)이라 부른다.

몸과 마음 움직여 자아찾는 명상법

선무란 단순한 아름다움이 표현을 넘어 자아성찰을 위한 과정을 동작 또는 춤을 통해 구현해 나간다. 한 마디로 움직임을 통한 명상법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선무건강법(치료법)은 이 선무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선무기법은 단순한 동작과 직관으로 이루어진다. 단전 호흡과 의단, 수인법으로 정신을 집중하는 움직임이 연결된다. 정신과 합일을 이루어가는 한 동작 한 동작 그 자체가 무용치료가 되는 것이다. 선무기법에는 단전호흡을 포함한 기본적인 테크닉과 감정 컨트롤, 즉흥법, 음양이 원리와 마음자세 등이 포함돼 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을 함께 움직이는 운동을 통해 몸의 기를 뚫어 건강한 생활로 나아가려는 것이 선무기법의 목적이다.

"지도법사가 알아야 할 자료 듬뿍"

어린이법회 지침서 낸 대불어회장 정여 스님



"어린이 법회 지침서는 지난 십 수 년간 어린이 포교를 위하여 정진함으로써 얻는 성과물입니다. 어린이 법회의 종합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6일 코모도호텔에서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5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어린이 법회지침서〉 출간기념법회를 함께 가진 정여 스님의 말이다.

〈어린이 법회 지침서〉는 총 356페이지 분량으로 어린이 법회의 개념부터 구성, 운영, 부처님 말씀, 어린이법회 프로그램, 여름, 겨울 불교학교 등에 이르기까지 어린이 법회 지도자나 스님들이 알아야 할 자료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어린이법회지침서〉에는 어린이 법회 개념 정리부터 생일이나 야외법회 등 각종 법회별 프로그램의 모델이 소개돼 있으며 마지막장은 어린이법회 지도자의 자질과 지도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청소년 단신

봉화산 청소년 축제 다채

봉화산 청소년축제 준비위원회는 5월 1일 밤 11시 봉화산 청소년 수련원 특설무대에서 '봉축 특집 청소년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댄스대회를 비롯해 치어걸 공연, 즉석 장기자랑, 예절 자랑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또 모창가수 너훈아와 대학 그룹사운드들이 펼치는 축하공연도 펼쳐진다. (055)342-2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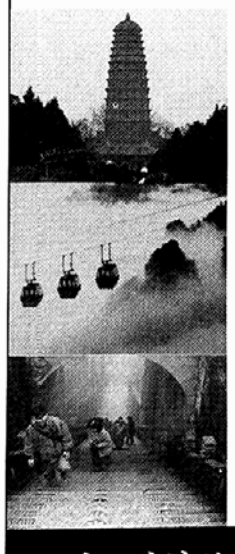
청소년 자원봉사대 발족

낙동종합사회복지관은 7일 청소년 자원봉사단 지킴이 '제3기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발대식을 치른 봉사대원들은 7월 7일까지 주 1회에 걸쳐 독거노인 가정방문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된다.

또 월 1회 복지관에 모여 평가회를 열어 정보 및 의견 교환의 기회를 마련한다. '청소년 지킴이 봉사대'는 지난해 3월25일 처음으로 만들어져 그동안 1년여에 걸쳐 꾸준한 활동을 해왔다.

봉 중국 서안 국보사찰 선유사 신라대덕 혜초스님 기념비 제막식 축

—황실사원 법문사 현존 유일의 불지골(佛指骨) 사리 친견—
—중국 4대 불산 지장성지 구화산 음력 윤 4월 천도재—



수당시대부터 불교의 중심지로 이름을 떨쳤고, 당송대의 수많은 문인학사들이 거쳐갔던 중국의 국보사찰 선유사.

당나라 대종때 구법차 오셨다가 황제의 명을 받아 선유담에서 기우제를 지내신 "왕오천국국전"으로 널리 알려진 신라의 고승 혜초스님.

댐건설로 인한 선유사의 수몰때문에 인근 언덕위에 새로 복원되는 선유사에 대웅보전 법왕탑과 나란히 혜초스님의 기념비가 세워지고 김대중 대통령의 휘호 현판으로 제막식이 봉행됩니다.

중국 대륙의 중심, 국보사찰에 세워지는 한국스님을 위한 최초의 기념비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친견하십시오!

혜초스님 기념비 제막식 행사
불기 2545(2001)년 6월 13일 오전 10시

중국서안/구화산 5박6일—98만원
1차 - 6월 11일 14시 출발 (12시 집결)
2차 - 6월 12일 10시 출발 (08시 집결)

- 1차 출발편과 2차 출발편은 기념비 제막식 행사 관계로 2일째와 3일째의 일정이 서로 맞바뀌며, 항공 사정상 일정 운영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인천신공항에서 출발합니다.
- 동참금에는 중국비자발급비용과 공항이용료, 출국세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 300명 선착순 마감합니다.

증명 : 청화큰스님

◆ 세 부 일 정
제 1일 : 서안 도착후 간단한 시내 관광
제 2일 : 대흥선사, 대안탑, 병마용갱, 흥교사 순례, 화청지(유황온천욕)
제 3일 : 선유사 혜초스님 기념비 제막식 동참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법문사 불지골사리 친견
제 4일 : 구화산 도착후 육신보전 천도재, 고배경대 순례
제 5일 : 구화산 개산사찰인 회성사 순례 무호 광제사 순례 남경 현무호 공원 관광
제 6일 : 인천신공항 도착후 해산


법문사 법왕탑의 지궁


법문사 사리공봉대와 보주정단, 불지골사리


황실사원 법문사 전경




진시황 병마용갱


혜초스님께서 기우제를 모신 옥녀담의 거북바위


지장보살 김교각스님이 구화산에 들어가시기 전 수행했던 무호 광제사


진시황릉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주)반야여행사 후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중국서안불교협회, 조계종전국비구니회, 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사, 불교방송, 불교TV 협찬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항공 고인의 영혼을 편안하게 모시는 벽제정안공원 정통중국요리의 명가 하림각

반야여행사 문의전화 : (02) 730-0020

깨달아 여여하면 늘 부처님 오신날

남편에 대한 존경심 사라져

문 저는 결혼한 지 이제 1년이 지난 사람입니다.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대출을 받아가며 투자를 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에 휘말려서 지금껏 해결하지 못하고 가슴만 아픕니다. 그냥 내가 지은 업이고 갚아야 될 무언가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 자신을 위로하지만 그러기엔 너무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편에 대한 존중심이 사라지는 것이 더욱 두렵습니다.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답 마음이 말입니다. 요만한 거 하나도 크게 벌어질 수도 있고 큰 것이 아주 없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만한 걸 가지고 아주 크게 벌여서, 결국은 스스로 활연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그게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석구석이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거든지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병고가 생기는 거거든요. 욕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지간, 자식지간에 사는 문제도 보면, 남의 자식보다 내 자식이 더 못한 것 같고, 그래서 화가 일어날 때도 있거니와, 부부지간에도 '아이고, 저이는 왜 남들처럼 이렇게 해 주지 않고, 이렇게 되지 않고,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없어?' 하고 탓을 하죠? 다 남남끼리 만나서 얼마나 살다가 그 모습을 벗으려고, 그렇게 그 모습을 가지고 온통 나쁘니 좋으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두가 다 욕심입니다. 욕심, 돈을 더 벌려고 하다가 잘못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돈을 더 벌려고 보증 서다가 잘못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이자를 더 받으려고 하다가 본전도 못 추리는 이런 문제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 다스려서 맡겨 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을 살고 있지 딴 사람이 와서 이 세상을 살아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저 남편에게나 자식에게나 착이 없이 겸손하고, 무심으로 겸손하고, 무심으로 행하고, 무심으로 말을 하고, 원망하지 말고 증오하지 마십시오. 뭐 가질 게 있다고 증오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애쓰겠습니까. 또 때에 따라서는 더한 것을 요구할 때도, 언젠가는 이 몸이 사라질 건데, 네가 사랑한다면 다 가져라, 하고 줘 버리죠, 뭐. 그것이 다라고 하더라도 네가 좋다면 너 가지고 싶은 대로 가져라. 뜬구름처럼 연기와 같이 사라질 이 몸을 가지고 착을 두고서 뭐 그렇게 적을 지겠습니까. 그저 원망하지 말고,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은 해 보고 싶은 대로 해 보소 하고 다 주면 그 후에 다시 만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새를 가진 사람 앞에는 아마도 하늘이 무심치 않을 겁니다. 우주간 법계에서도 그걸 정확하게 판단해 줄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모두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스스로 부처를 만드는 거고, 스스로 보배를 만드는 거고, 스스로 자유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볼편스럽게 살지 마시고 편안하고 즐겁게 사세요. 마음이 답답하게 나오걸랑 '답답하게 하는 것도 너니까 답답지 않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다시 바꿔서 즐겁게 사시고 지혜롭게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재생이 될 때, 재생이라고 해서 다음 생에 재생이 아니라 머리가, 마음이 트이면 재생입니다. 그러니 이 모습, 이 생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를 아시고 편안하게 그 마음을 지켜보면서 잘 돌려나가시기 바랍니다.

흔들림 없이 공부하려면

문 제가 요즘 들어 해결하지 못하고 가슴에 담아두고 있는 질문을 용기내어 여쭈고 싶습니다. 제가 어려움에 처해서 방황하고 있을 때, 이 마음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던 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분은 10년 가까이, 크고 작은 선원의 일을 묵묵히 해오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남편과 아들을 교통사고로 동시에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선원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유인 즉, 그렇게 지극 정성으로 절과 스님들을 위해서 정성을 들였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다른 곳에 공부하러 다닌다고 합니다. 그분의 말을 듣고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분의 심정이 이해가 가기도 했고요. 어떤 마음으로 신행 생활을 해야 어떤 경계가 다가오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이 마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정진할 수 있을지 한편 두렵기도 하고, 의심이 갑니다. 스님, 흔들림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가르침 바랍니다.

답 우리는 누구나 다 자동적인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저께도 과거지만, 과거에서부터 그 컴퓨터에 입력되어 현실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관을 하면 앞서에 입력 됐던 게 없어지고 새로이 입력된 게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즉 말하자면 자기 주인이 바로 그 컴퓨터며 에너지며 불성이며 자불(自佛)이라고 볼 수 있죠. 주인이자 자기라고 했습니다. 이 몸뚱이는 물질적인 자기고 정신적인 자기는 바로 주인공이라는 그 주장자입니다. 그게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죠, 생명력이니까요. 그러니까 현실의 나는 과거의 나를 진짜로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부처님 생일도 이름도 따로 없고
내 마음 안에 항상 부처님 계시니
부처님 오신날은 영원한 오늘

거기서 어떠한 게 나오더라도, 어떤 게 일어나더라도 거기다가 되 입력시키고 거기다가 밀어 던지라고 했습니다. '너만이 낫게 할 수 있다, 너만이 평화스럽게 할 수 있다,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다.' 이렇게요. 자기가 자기를 못 믿으면 안되니깐 그렇게 모든 걸 걸고 관하는 거죠.

대신 살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모두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한다면 진짜로 문제는 달라지죠. 조그마한 일이든 큰 일이든 입력이 된 거를 그냥 두면 입력된 대로 그냥 현실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얼마만큼 진심으로 믿는가가 참 중요한 겁니다. 진짜로 믿었더라면 그렇게 아무 대책도 없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기를 무시해요. 자기 주처를 무시하고는 만날 밖의 위대한 것을 쳐다보고 만날 밖으로 잘되게 해 달래는 거죠. 다 자기 마음에 달린 거라고 말해 줬는데 뭘 잘되게 해달라는 겁니까? 내가 항상 말을 하죠. 양무제가 그렇게 절을 짓고 옷을 보시하고 먹을 걸 보시하고 그렇게 시주를 많이 하고는 달마 대사더러 물었어요. '이렇게 내가 많이 했는데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달마 대사는 서슴지 않고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공덕은 하나도 없다.' 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 나무, 그 몸체와 가지와 잎새 모든 것이, 열매를 위해서라면 어디다 물을 줘야 됩니까? 뿌리죠! 뿌리에다 물을 줘야 이파리도 싱싱하고 모든 게 다 싱싱해 열매도 굵고 크게 열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뿌리에다 주질 않고, 항상 남의 이름을 찾고 모습을 찾고 온통 야단입니다. 그러고는 '내가 이런 공부를 하면 생활에서 어려움이나 좀 없애고 그냥 살겠지.'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생활 속에서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내가 주장자를 세우지 못하고, 그걸 발견을 못한다면 세균, 영계, 생사, 윤회, 업보에 끄달리면서 살아나가야 하니까 그 고달픔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종교라는 이름을 떠나서 자활(自活)하는 공부이고, 또한 어디에 세워 놔도 살아갈 수 있는 자력(自力)을 기르는 공부예요. 그렇게 모두들 자기가 자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무한의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우리는 자기가 자기를 못 믿어서 자기가 자기를 살릴 수 없는 그런 궤도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이외의 밖에서 나를 보호해주고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기복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다, 내 안의 자불을 발현해서 제일 일등 가는 인간이 되십시오. 그래서 내 안의 무한 에너지를 자유스럽게 쓸 수 있게끔 내 마음 안에 공치기 할 공마당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림 · 최주현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은

문 사월 초파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로 2545년을 맞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부처님께서 몸을 나투시어 저희들에게 그토록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참뜻을 정말 알고 싶습니다. 책에 쓰여진 형식적인 말과 이론의 언설로는 저의 답답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부디, 제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참 진리를 설하여 주십시오.

답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면서, 어떠한 생각으로 이날까지 살아 왔던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항상 마음의 인등을 켜면서 꺼지지 않도록 하고 왔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일년을 하루로 축소할 수 없다면 하루를 일초로 축소할 수 없는, 영원한 오늘이라는 이 도리를 여러분은 잘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우리 마음과 말과 뜻을 한번 더 다져보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전에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법회를 하는데, 석사나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 부부들과 천주교인, 기독교인을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법회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분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그중 하나 기억나는 것이, 법회 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이어서 그랬는지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기를 "부활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기 이전부터 생명은 있었으니 초초마다 부활절이 아니겠느냐. 여러분이 생각을 일으키는 대로 부활절이지 달리 부활절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부처님께서 오신 뜻이고, 인등을 켜는 것이고, 또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작년의 초파일이나, 다가올 초파일이나, 내년의 초파일이나, 삼천 년 전 오늘이나 똑같은, 영원한 오늘의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러니 부처님 오신 날이라 하면 그 나신 날을 기리기 위해서, 그 뜻을 배우기 위해서, 은혜를 갚기 위해서, 모든 면에서 그 배움의 고마운 은혜를 갚기 위해서 모두 이 마음을 조아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정해 놓았겠지만 부처님은 나신 날도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부처님 자체가 따로 생일도 없고, 따로 부처님이라는 이름도 없고, 우주 세계가, 전체를 비춰볼 때 여러분이 만 명이라면 그 만 명이 부처님이 다 되니깐,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항상 부처님이 결부돼서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서로 한마음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한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주간 법계에 우리가 같이 통하면서 같이 움죽거리면서 같이 한 자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마음이라는 것은 전체 우주와 더불어 같이 한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불교라는 것은 어느 한 종교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진리로서 일체와 더불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佛)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을 말하고, 교(敎)라는 것은 일체 만물만생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풀 한 포기도 불교 아닌 것이 없죠.

그렇듯이 우리들의 일상이 그대로 불법인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며 움직이는 것이 참선이며, 그 경계가 모두 공부할 수 있는 재료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며 그대로 실천할 수 있다면 오는 사월 초파일만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라, 영원한 오늘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내가 있으니 항상 부처님 오신 날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열반에 드신 적이 없습니다. 열반이라 함은 돌아가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아 항상 여여함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몸을 가지고 살아 있으면서 열반에 드는 도리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리석은데 깨칠 수 있나요

문 저 같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중생도 이 생에 본래면목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답 인간에게는 일체 만법을 객관으로 들여서 주관에서 소화하고 또 배출시키고 하는 능력이 주어져 있죠. 고등동물인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99%는 부처라고 합니다. 그 기능을 모두 소화시킬 수 있고 모두 배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그런 걸 그렇게 능히 소화시켜서 배출시킬 수 있건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 어디다가 중심을 두고 믿습니까? 누가 갖다주는 것도 아니고 뺏어 가는 것도 아닌데, 누가 가엾은 나를 도와줄까요? 누가 내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 줄까요? 누가 내 가난을 알아서 해결해 줄까요? 누가 내가 병이 들어서 죽어갈 때에 어루만져 줄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누구를 믿느냐? 너 먼저 찾아라! 본래 있기에 찾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니라!" 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항상 말씀해 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아이고, 이렇게 바쁜데 그거 찾을 사이가 어디 있어? 그리고 이렇게 큰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주인공 이름 부르고 있을 사이가 어디 있느냐?' 이러고들 있습니다. 그거는 본래 내 안의 다섯 가지의 오신통이 한데 합쳐져서, 내부와 외부의 모든 것을 일체 받아들여서 소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래 인간의 두뇌는 첨단을 달립니다.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나는 못나서, 나는 죄가 많아서 이래!' 이러겠지만, 그거를 아예 무시하고 들어가라는 얘깁니다. 왜? 이 두뇌의 기능은 천년을 걸어가든 하루를 걸어가든, 일초를 걸어가든 똑같다는 얘깁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거기에서, 우리가 이거는 길어서 못한다, 이거는 짧아서 잘된다, 이거는 커서 들 수가 없다는 등 이런 건 말이 안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이지,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가 없다는 얘깁니다. 이 체가 없는 내 마음은 바로 그림자와 같고 빛과 같아서, 어디에 붙어서 돌아가지 못하고 어디에 붙어서 돌아가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자기 마음을 막습니다, 자꾸. '이건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그것이 바로 수억겁을 거쳐오면서 차근차근히 쌓여있는 바로 '의식'이라는 거죠. 일컬어 망상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이 컴퓨터에 쌓이고 쌓여서 자꾸 나와서 그런 거니 그런 의식과 내가 있다는 그 마음을 훌렁 뛰어 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에서 벗어나 내 본래면목을 발견해서 자유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부터는 부족하고 어리석다는 그런 생각 모두를 내려놓고, 주인공을 진실하게 믿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구도심도 마음 장난 아닌지

문 일체가 근본 자리에서 자동적으로 여여하게 다 이끌어가고 있는데, 도를 이루겠다든지, 병이 나아야 되겠다든지 하는 그런 생각을 내는 것이 욕심이기도 하고, 그 또한 모두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장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르침 바랍니다.

답 마음의 장난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마음의 장난이 아니고 법이지, 그냥. 진짜로 알면.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 우리네는 뭐 주인공에다가 맡긴다 어쩐다 하지만, 도가 넘어가면 맡긴다 안 맡긴다가 없이 그냥 보면 법이요, 들으면 법이요, 말하면 법이다 이거야. 그런데 모두가 지금 배우는 과정이니까 무조건 거기에다가 맡겨놔라, 맡겨놓고 굴리라고 하는 거지.

☞ 20면으로 계속

가파른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내 주장자 못 세우면 업보에 끄달려

☞ 19면에서 계속

그런데 진짜로 믿는다면 그냥 맡겨 놓지 안달박달 안해. 진짜로 믿기 때문에 그냥 맡겨놓는 거지. 변호사를 진짜로 믿는다면 돈하고 서류하고 턱 갖다 주고 그냥 그 변호사만 믿고 있는 거나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해줄 때에, 때로는 뭐가 부족해서 변호사가 이기질 못했다거나, 또 자기가 너무 엄청 많이 저질러놨기 때문에 이기질 못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아하, 그것도 바로 내 탓이다, 내가 그런 많은 문제를 저질러 놨으니까 그것이 금방 어떻게 잘되랴. 그거는 졌을망정 잘 돌아가서 나중에 그거보다도 더 좋은 일이 내 앞에 돌아올 수 있다.' 라는 그 믿음을 진실하게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지는 게 아니지. 안되는 게 아니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자기를 진짜로 믿어야 된다 하는 거는, 아니, 싹이 뿌리를 안 믿으면 뭘 믿어? 나를 안 믿으면 뭘 믿느냐고. 형상을 믿을 거야? 이름을 믿을 거야? 허공을 믿을 거야? 정말 부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형상을 믿을 거야? 어떡할 거야? 자기부터 알아야, 수억 겁을 거쳐온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선지식들의 마음이다 할지라도, 벌레의 마음이다 할지라도 중생들의 마음이다 할지라도, 내 뱃속에 있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다 알게 되는 거야.

굴려서 놓아야 하는 이유

문 스님께서 관하는 공부 방법을 일러주시면서 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놓으면 그뿐이지 왜 굴려서 놓아야 하는지요? 굴려놓는다는 자체가 군더더기가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 군더더기는 무슨 군더더기? 이 세상 우주천지가 구르지 않고 살 수 있나? 그냥 쉬지 않고 시공을 초월해서 구르고 있어. 그렇게 그냥 구르고 있는 것을, 지금 그렇게 구르고 있는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굴려라, 굴려라 하는 거야, 알 때까지. 처음 들어온 머슴한테는 너 아무 데 가서 이거를 사 가지고 오너라 한다든가, 이런 말을 여쭙고 오너라 한다든가, 이걸 갖다 드리고 오라고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해결하고 오라고 한다든가 해서, 처음 머슴이 왔기 때문에 일일이 가르쳐주지, 그렇지?

머슴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심부름을 시켜도 하나도 빠짐이 없이 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한다 하고 가르쳐 줘야 하는데, 그 머슴이 오래 있다 보면 주인이 '얘, 아무개야 어디 갔다 오너라.' 이렇게만 말을 해도 벌써 왜 갔다 오라고 하는지 알고 있어. 말로 일일이 하지 않아도 '집안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 갔다 오라고 하는 구나.' 하고 벌써 알고 자기가 그냥 가서 잘 해결을 하고 와.

그렇듯이 주인공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현재 자(子)가 과거에 살던 과거 부(父)를 믿고 하는 거야. 수없이 내려오면서 살던 자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자는 부한테 모든 걸 맡기고, 부는 자로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해결하게 하고, 그냥 찰나찰나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주인공에다가 굴리지 않아도 되는 도리가 있지. 그런데 예를 들어 말하자면, '나 목이 마르니까 컵에 물 좀 줘.' 라고 해야 물이 들어오는 거지, 컴퓨터에다 입력을 하는데 제대로 입력을 하지 않는다면 빈 말만 나오게 되지 않겠어? 그런데 아주 실천을 하는 말을 거기다 넣었다면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말이 나와. 그대로야.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굴려서 놔라 이 소리야. 진짜 자동적인 컴퓨터야. 그러니까 입력할 때 그렇게 넣어야 입력대로 나오지, 그렇지 않고 철저한 믿음도 없이 그냥 사량으로 '너 알아서 해라.' 한다면 알아서 해라 한 걸로만 컴퓨터에서 나와. 이건 아주 정확한 거니까, 하나하나 들이고 내는 걸 실질적으로 실천해 보고 자세히 알아가기 바래.

끔찍한 사건 왜 일어나는지

문 지금의 내 모습은 전생에 내가 지은 업으로 인해 생긴다 하였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역시 그들의 업에 따라 지금의 그 모습이 나타난 것인데 요즈음 우리 주위에서는 너무도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생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의 잔인성은 더욱 더해갑니다. 옛날에는 지금 같은 끔찍한 사건은 없었을 것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왜 잔인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답 그것은 우리가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으니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생각해 보라고,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저질러놓고 저렇게 야단들이잖아? 사람이 살면 이 모습을 가지고 얼마나 살겠다고 그렇게 욕심들을 부리고, 또 그렇게 있다 죽으나, 내일 죽으나, 모레 죽으나 뭐가 그렇다고, 몇 천년, 몇 만년 사는 줄 알고 모두들 그렇게 되는 거잖아. 또 사건도 그래. 모든 게 자기가 저질러놓고 그렇게 되는 거고 자기 마음으로 하여금 불안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죽는 거고, 여러 가지가 다 그렇지, 누구 탓할 것이 없어요.



그림 · 최주현

체가 없는 도리를 알면 일체가 참선

잘났든 못났든 내 행복 내가 찾는 법

생각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고 부처라고 이름이 다르지 않은가 싶어요. 그런데 죽으면 또 다시 재생이 돼서 나오고, 나오면 또 죽고 이렇게 정반대로, 동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가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고 이러지 않나. 이것이 진리 아닌가.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진리야, 그냥. 그러니까 어서 어서를 공부해서 그런 지나친 마음들이 없이 살게끔 우리가 한마음에 법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해야 되겠지.

태초에 무명 업식 생긴 까닭

문 제가 스스로 깨치고 열심히 정진해서 알아야 될 문제이지만 그래도 너무 긍금해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중생은 본래 성불되어 있다고 하는데 본래 성불한 그 자리에서 어찌해서 무명에 가린 나라는 업식이 나왔으며, 또 그 누구의 의지에 의해서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답 자기가 와서 자기가 살고, 자기한테로 자기가 가는 거니까 간 데도 없고 온 데도 없는 거죠. 그냥 영원한 자기이죠. 그러니까 업이라는 그 자체도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백짓장 사이를 모르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몸통 속에서, 그걸 합쳐서 육신통이라고 한다면, 오신통에서 벗어나야 누진으로서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다고 했죠. 통이라고 말한 것은 바깥으로 나와야 내 모든 것을, 오신통을 굴릴 수 있다 이 소리거든요. 이 속에 들어가서 있으면 이 속에서만 복작거리지, 이거를 굴릴 수가 있나요? 바깥으로 나와야 그 통을 마음대로 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이라는 것은 끝도 없고 시작도 없으니까, 또 나중도 없고 먼저도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공해서,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한다고, 내가 한다고 그럴 것이 없는 거죠. 그냥 그대로, 그대로 그냥 뿌리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그대로 뿌리에다가 맡겨놓고, 마음으로 너만이 나를 일거수 일투족 이끌어 줄 수 있고, 빛이 나게 하는 것도 너고, 물리가 티지게 하는 것도 너고, 지혜가 생기게 하는 것도 너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것도 너고, 굶고 살지 않게, 부자는 아니더라도 굶지 않고 살게 하는 것도 너라고 모든 걸 거기다 맡겨놓고 해야 되지, 자꾸 이유를 따지면 진짜 그 속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따지지 말고 나오는 대로 거기다가 자꾸 넣으세요. 아리송하면 그냥 아리송한 대로 '너만이 네가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어.' 하고 모든 것을 근본에 일임해서 맡겨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내가 내가 아니라는 느낌이…

문 제가 체험하고 공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나가 곧 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느낌이라고도 할 수 없고 생각이라고 할 수 없는데, 무엇이라고는 표현할 수 없는 가운데 이 몸을 떠나서 한계를 지울 수 없는 무한한 그 무엇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너와 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시시 분별에 가려져서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지금은 마음으로 그 까닭을 알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모든 것들이, 심지어는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것들까지도 부처님의 사랑, 주인공의 나툼임을 깨닫게 되면서 마음 속의 눈물이 강이 되어 흐릅니다. 제게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고정되게 한 우물 안에, 한 항아리 안에 갇혀 있다가 그 항아리 안을 벗어나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알게 됨으로써, 지금 자기 모습은 몰라도 자기를 이끌어 가는 운전수는 바로 나를 알고 있고, 모든 걸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만난 거죠. 만나기 직전이니까 너무나 간절해지니 울게 되고요. 네가 나를, 이렇게 이끌어 왔다는 것을, 너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자식과 부모가 상봉하는 거와 같은 건데.

과거에 살던 나, 부(父)가 현재에 사는 나 자(子)를, 부와 자가 서로 상봉하게 되니 그 눈물이 흘러도 흘러도 다 못다 흐르리만큼 감사한 법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도 놓치지 말고 항상, 자기가 한평생 사는 것이 다 자기 뜻대로 사는 거지마는, 내가 뭐를 한다 이런 것을 다 그렇게 이끌고 가는 부에게 맡긴다면 마음이 펴지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주위의 사람들도 살릴 수 있게끔 되는 수가 많죠.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살게 되고요.

이 마음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자기 뿌리 믿으라는 걸 잊어서는 안돼요. 그거는 진짜 자기를 무시하는 거니까요. 부모가 잘못 살았으면 자식한테까지 영향이 가죠? 보이지 않는 데에 유전이 될 수도 있고 영향이 아주 많이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자식을 낳았을 때 또 그렇게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은 내가 해 놓지 않으면 내 행복을 내가 찾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났든지 못났든지, 권세가 있든지 없든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부처라고도 하고 또는 불성이라고도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하는 그 자체에 일체제불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게 전체 한데 합쳐서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거기에다 모든 거를 일임하고, 앞으로는 위 부모들이나 아래 자식이나 모든 걸 거기다가 놓고 살게끔 이끌어 주세요. 전자의 조상들이 잘못 살아서 그렇게 된 것이든 유전성이든 인과성이든 다 무너지게 만드는 법이 이 법입니다. 그렇게 무너진다면 앞으로 자기가 2세를 낳고 살아도 그 애들한테는 근접도 안 해요. 그걸 알고 열심히 살아요.

감응과 체험이 안돼요

문 이 마음공부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최상승의 공부라는 것을 항상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공부를 몇 해 동안 해오면서 제 안에 저의 근본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주위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처럼 감응이 되고 체험이 되지를 않아서 실망스럽기도 하고,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가 의심이 됩니다. 이생이 다하기 전에 저의 근본을 정말 상봉하고 싶습니다. 가르침 주십시오.

답 주인공이 뿌리라면 지금 이 몸뚱이가 싹과 같은 건데, 그래서 싹과 뿌리는 항상 붙어 있는데 무슨 실망이 된다고 합니까?

상봉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싹과 뿌리처럼 붙어있다는 걸 아무리 일러줘도 모르니깐 방편으로 쓰는 말이지, 불성과 자기 몸뚱이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를 붙어 있는 줄 모르니까 같이 통과가 돼야 되겠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허망하다 생각지 마세요, 어렵게도 생각지 마시고요.

그저 한 찰나에, 허망하고 허망치 않고 그런 거를 그냥 둘 아니게 다 놓아버리세요. 그렇게 어떤 것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물론 놓고 들어갈 수 있다면, 늦고 빠름을 떠나서 지금의 이 과정이 나를 발견해서 이끌어 가는데 더 없이 소중한 시간임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큰 것을 바라지말고 작은 거부터 체험하면서 매사 감사함을 놓치지 말고 더 열심히 정진하세요.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날 향다운 향으로 공양올립시다

스님께서 직접 만든 명가의 명향 - 釋氏香方 五分香 · 生氣香

석씨향방은 순수한 향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오분향 - 각종 기도와 제사용)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례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 · 지신 · 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 · 요마 · 귀신 · 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 의식용 목욕향도 있습니다 ◆



生氣香 (생기향 - 건강용))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당뇨 · 중풍 · 폐 · 간 · 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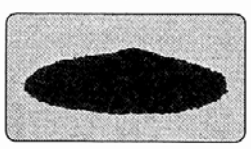
석씨향방의 특허품 실용신안 등록출원 제 2001-00009755 · 특허등록출원 제 2001-00139149

석씨향방의 향기 한약방석

방석의 내용물은 쑥과 인동, 부자, 당귀,계피, 인삼 등 32종의 한약재료로 만들었습니다. 향기방석을 사용하면 냉이 없어지고 불쾌한 냄새가 사라지고 치질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용물이 환(丸)으로 되어 있어 지압효과가 뛰어나고 오랜시간 앉아 있어도 피곤하거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 크기 40cm×40cm ▷ 무게 1.5 ~2kg





32종의 한약재

석씨향방의 향기 한약베개, 방석

베개의 내용물 약재는 32종의 약재가 들어 있습니다. 24절기에 상응하는 약재와 팔풍을 막아내는 약재를 혼합하였습니다. "예" 국화베개, 박하베개, 메밀베개, 질병치료용 베개(두통, 중풍 등) 석씨향방의 베개는 향기롭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품의 사진은 베개를 펼쳐놓은 상태입니다. 디스크 환자에게 편안한 베개 또는 높고 낮게 마음대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 크기 70cm×40cm ▷ 무게 3 ~4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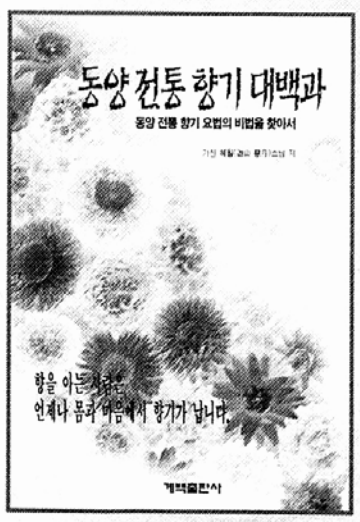
※ 모양은 다양하게 변형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076-21-0658-363
농 협 100016-52-018512 예 금 주 : 김 남 서

☎ 02)538-7161, 016-756-2227 http//: www.hyangbang.com

나도 향기나는 사람이고 싶다.

스님이 가르쳐 주는 동양 전통의 향기 요법!
향으로 배우는 건강 요법부터 목욕 요법까지 - 그 재료와 사용법



정가 : 12,000원

기신 혜월(迦山 慧月) 스님 지음

- 향의 비밀
- 우리나라 향기 요법의 발전 과정
- 향과 종교
- 전통 향 요법의 제작 과정
- 먹는 향
- 분향하는 향
- 화장품 향 만드는 법
- 향욕법
- 패향법
- 침향법
- 훈향법
- 향, 호흡, 참선, 기공
- 향의 신비

계백출판사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화엄경 (80권) - 1,500,000원
● 사 교 (7권) - 250,000원
● 법화경 (7권) - 18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5) 932-7252 김 창 본
011) 545-7252 처 사

찬불가 피아노 렛슨
방송피아니스트 도연
◇ 합창반주반 ◇
1. 체르니 수준을 치셨던 분
2. 기본적인 코드는 알아도 세련되게 응용이 안되시는 분
3. 악보는 잘 치실 수 있으나 멋있는 편곡 변화를 모르시는 분
4. 찬불가를 대충대충 치실 수 있는 분
5. 찬불가 합창단의 반주자가 희망이신 분
◇ 가요 · 팝송 · 가곡연주반 ◇
클라식과 째즈를 응용한 예술적 연주를 배우실 분
◇ 직업연주반 ◇
전공자 및 피아니스트 희망자
에드립 및 째즈와 클락식곡 실용음악을 응용
■ 연주를 들어 보신 후에 수강을 하셔도 됩니다.
도연피아노학원 02-834-2270/011-663-2270

의정부 **운불련 개인 콜 택시**
☎ 031)876-7070
Fax 031)876-8550
장거리예약/대리운전/물품 · 서류 운송친절봉사
시내호출시 1,000원 추가/24시간운행

일자리찾음
· 직종 : 사무 및 운전겸 불사감독도 함께 가능
· 학력 : 대학원 졸(건축)
· 연령 : 40대 ▷ 서울 경기
· 월급 : 상의하여조정원함
011)405-0703
02)6243-0703

붓다마켓
www.BuddhaMarket.com
인터넷 불교 용품점
도매(B2B) × 소매(B2C)
부산 금정구 남산동 225-12
051)583-7939

특허품 **명당 氣 탐지기** 특별 보급가 38만원
◎ 발명신상품(특허) 수맥탐지기 12만원
※ 수험생용 베개, 방석, 건강 천연지기요 수맥방지 바닥 마감재 (1평당 6만원)
▷ 농협 150042-52-200478 이민택
053) 982-6778 / 011) 813-3679

※ 아산시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 봉축위원장 : 대각스님, 현문스님
■ 행 사 명 : 불기 2545년(2001년)부처님 오신날 연합 봉축 행사
■ 표 어 : 마음청정, 나라청정 ■ 주 최 : 부처님 오신날 봉축 위원회
■ 일 시 : 불기 2545년 4월 8일 오후 3시 (양력 5월 1일)
■ 장 소 : 아산시 역 광장
■ 행사구분 : 식전행사 15 : 00 ~ 18 : 00 법 요 식 18 : 00 ~ 19 : 00
제등행진 19 : 00 ~ 21 : 00 회 향 21 : 00
■ 참가인원 : 스님 - 80명 신도 - 1,000명

법왕사 행자(男)모집
◆ 세계 최대불교 종합복지관 건립도량 법왕서에서는 21세기 불교를 이끌어갈 신심있는 행자를 모집합니다.
◎ 자격 : 고졸이상의 40세 미만
(단, 고졸이하는 검정고시 교육후 자격 부여됨)
◆ 대학교 불교학과에 진학 할 경우, 박사학위 취득시까지 법왕사에서 전액 지원함
◎ 21세 전후 환영
문의 : ☎ 053)766-3747, 9088
인터넷 : www.bubwang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직할포교당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50세~65세 미만)
▷ 경북 구미
054)452-6064
,0845 (주지실)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관음사
02)2234-3310

암자에서 함께 기도하실 노보살님을 모십니다
031)632-8199
011)9764-8199

『고급 흑단 염주를 아주 저렴하게 드립니다』
(직접 가공 함) **덕림 산방**
이름 : 박정후
전화 : 061)337-4879
011)610-4879
주소 : 전남 나주시 다도면 덕림리 552

연꽃그림에 부처님 말씀담아 드립니다
● 한지에 수묵담채화
● 크기 : 소, 중, 대, 특대
● 종류 : 미표구, 족자, 표구액자
● 가액 : 아주 저렴한 가격
각종 보시용, 도반 선물용, 포교용
※ 사찰행사 시연전시 접수중
연꽃 053)381-5698
화가 018)588-5698

석등"연꽃동물학"안내
● 석등 : 높이 2m 6부분 분리 연꽃봉, 연꽃 좌대의 양각
● 연물학 : 대항 직경 1.9m×높이 1.2m 중형 직경 1.1m×높이 0.7m
● 연무늬 양각, 물받을 수 있음 분수 사용가능, 순환 모터 설치
011)9032-2723
017)354-0646

사찰 (급) 안내
● 신축 사찰을 조성 원가 20억 일부 보시하고 양도 합니다. 뜻있으신 스님 연락 주십시오.
● 부지 2천평, 건물 180평, 포집양식, 정남향 기와, 황토집 (건물 7동)
● 경부 고속도로 용인, 기흥 IC 인근
031) 375-7063 (창건주 직접)

기도,공부할 분
심신을 수련하고 공부 정진 하실 불자님 모십니다.
청정도량 정안사
031)375-1831

부전스님을 필요로 하는 사찰에서는 연락을 주십시요
011)337-5009

초파일기도스님, 부전스님
구하는 사찰이 있으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 비구니스님
011)337-5009

심신 건강하고 책임감있게 일하시며 함께 사실 공양주보살님과 처사님을 급히 구합니다.
011) 248-9480
018)282-9480

토굴(터) 안내
● 경남 통영시 미륵도 관광특구 내 한려해상 공립공원 내 소재
● 근접지 : 해양 박물관 건립 중 다라공원 관광지 근접
● 산과 바다가 어울어진 자연 경관 수려
● 방생 및 기도터 적합
● 대지 : 73평, 건평 : 20평, 인접 임야 사용가능
● 가액 : 5천만원
055)645-7487 / 011)9520-6947

조용한 암자에서 같이 기도하시며 생활 하실 분
▷ **비구스님, 처사님**
017)708-0635
※ 계곡에 위치해 있으며 산세 수려함, 경기도 지역

스님, 행자 초빙
큰스님 지도하에 수행 기도 하실 출가 희망자, 기도스님 모심, 창건 사찰
경남 밀양 얼음 골
055)356-1394
055)356-5968

상담해 드립니다
업과 습을 버리는 식의 마음수련이나 기타의 의식수련을 할 만큼했으나 현실 생활 속에서 대인관계 직업생활, 금전문제,깨달음의 추구등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을 위해 무료상담.
예고(자아의식)와 참나(본성의식)를 명쾌하게 대비하면서 한 걸음 더 빛과 사랑에 통찰(깨달음)을 이루는 길로 이끌어 드림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대표 박희준
전화 02)720-5682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녹차 판매
지리산 수제야생녹차(햇차)
※ 공장도가 판매
※ 샘플 무료로 보내드림
※ 한통도 주문 可
055) 883-9321
영목다전 (지리산 화계)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양정 119소방서 옆
● 법당 : 28평
● 4월 초파일 법회 준비 완료
스님건강상 4월초파일 운영하실 분
● 전세 1600만원 월 20만원
051)868-8011
011)550-4425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월명동산 19-17
● 대지 : 300평
● 건물 : 법당, 기와, 요사채, 미륵 3존불 58년된 사찰
● 특징 : 월명공원 부지 내에 위치
● 가액 : 5천만원 (가격 절충)
전북 군산 미륵사
011)9646-3220

사찰 안내
● 위치 : 노원구 상계동
● 대지 38평, 실사용평수 45평
● 특징 : 인법당, 주변녹지, 경관수려, 교통편-전철역 10분 버스종점에서 5분 거리
● 가액 : 1억5천2백만원
016)481-6909

지리산 시조암 션원
● 위치:실상사 마천→백무동방향→가채마을 위
● 대지:605평 건평 32평 황토방 한옥 2채 자연식 탑 돌레 25m 텃밭 ● 가액:1억 9천
● 특징:전체 자연석 조경 및 작설차 식제 경관수려, 주차 시설
● 함양 휴천 계곡 옆 토굴터 2천만원
055)963-4965
011)9542-9060

토지 안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축산면 부곡 1리 75번지
● 건평 : 40평 대지 : 270평 전체 : 1997평
● 교통편리, 마당까지 차가 들어옴, 집안 내부 편리, 나머지 전(田)
● 가액 : 7,000만원
011)9854-6008
016)9772-7298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 건물 : 요사채 20평 1동, 법당 15평
● 대지 : 450평, 사유지 300평
● 가액 : 전세 3,000만원
※ 산세좋고 양수리 부근임 초파일 법회 가능
011)201-2561

사찰안내
● 위치 : 광진구 중곡동 용마 4거리, 큰 대로변, 상가 빌딩 3층
● 평수 : 40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 1500만원
● 특징 : 무제한 주차 가능 전철역 10분거리, 화장실, 샤워실, 도시가스
02)3409-3209

사찰 안내
● 대지 : 192평 ● 건평 : 90평
● 요사채 : 70평
● 법당 : 20평
방 6개 주방 3개 거실 3개 욕실 2개
※ 법당 단청 했음. 미륵부처님 모셨음. 영험한 기도 도량
경기파주 031)952-7905

사찰 부지 안내
●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삼합리 임야,대지,전 등 7637평
사찰부지최적 주택 2동 등 건물 315평 있음
시가 12만 매가 7만 5억3천 입금
02)521-3651
011)9678-2507

사찰 안내
● 법당 : 20평
● 요사채 40평 (목조건물)
● 대지 1,000평 임야 5,700평
● 요왕당, 현대시설 완비
● 가액 : 5억
꼭 필요 하신분만 전화요망!
043)260-6766
011)9746-6766

임야(급)안내
● 용도 : 사찰적지 및 농장도 가능함
● 소재지 : 의정부시 산곡동 소재 (의정부 역 하차 10분 거리)
● 면적 : 약 8000평
● 기타 : 매매가격 절충 최하가격 가능
문 016)405-1727
의 018)260-0419
야간 02)419-0419
야간 02)2247-3821

사 찰 안 내
● 위 치 : 서울시 근교 소재 (승용차 1사간 소요)
● 대 지 : 850평
● 법 당 : 40평(목조, 단청)
● 요사채 : 40평
※ 뒤는 산세 및 계곡 좋음
※ 납골당 및 실버타운 최적 임
● 양도가 : 6억
포교당 매각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소재
2층 건물 중 2층 40평
보증금 3천월 5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 역학, 철학하시는 스님, 보살 적합 함
※ 30년 역사의 오래된 도심 포교당 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61-7791/018) 273-9390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근교 ● 부지 : 270평
● 법당 : 9평 ● 요사 : 20평
● 가액 : 1억 3천만원
※ 전국 사찰 표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시 광양읍 (마을 끝집)
● 대지 : 73평
● 건물 : 37평 1층 요사체, 2층 법당
● 가액 : 6,500만원 (융자있음)
● 시설 : 지하수, 뒤 : 공원, 교통편리
● 대상 : 비구니스님, 무속인, 사주보시는 분 가능
061)762-2630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근교
● 부지 : 300평(문중땅 년 사용료 50만원)
● 법당 : 25평, 요사 : 30평
● 굴법당 : 15평, 산신각 : 5평
● 가액 : 8천만원
● 특징 : 산밑 기도 영험 도량으로 주변경관이 수려함
사찰전문용역 02)736-3578~9
금강기획 011)789-2255

암자(급)안내
● 위치 : 경북 군위(부처골)
● 대지 : 182평 , 밭 724평 건평 43평, 황토집 2채
● 노천 석불 양도가 5300만원
● 3년분할, 전세가능
스님 직접 053)982-6778 011)813-3679

부동산(급)임야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 2리
● 용도 : 사찰부지, 기도원, 암자, 납골당 및 공장부지(재활용 재생등)도 적합 함
● 평수 : 2만 6백평(뒤쪽산 경계선에 약 10만여평의 방치된 땅이 있음)
● 가격 : 답사후 가액 절충가(직거래원함)
● 교통 : 매우 편리함(마석에서 철장까지 승용차로 10~15분)
● 시설물 : 가옥 2동(46평), 우사(80평)및 부대시설, 식수탱크, 전화, 전기
031)595-4436/011)9094-4439

사 찰 안 내
● 위치 : 용인 ● 위치 : 부산 ● 위치 : 의정부(포교당)
● 법당 : 34평 ● 법당 : 24평 ● 법당
● 요사 : 70평 ● 요사 : 50평 ● 요사 : 65평
● 부지 : 450평 ● 부지 : 300평 ● 가액 : 5천
● 가액 : 4억 ● 가액 : 3억2천 ● 시설비 : 3천 5백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사찰 급 안내
● 위지 : 경남 마산시 회원구 혜성동 (서마산 IC 건너편)
● 대지 : 438평(종교대지 등기필)
● 건물 : 법당 31평 (목조3프,5프,금단청필)
● 요사 : 80평(방10칸,주방2칸,거실)
● 명부전 : 10평 (단청필)
● 기타 : 주지실 사무실 포함 9평, 창고 약 4평, 주차장 100평 이상, 차량 무제한 주차가능
● 가액 : 8억(건물완공 4년, 총공사비 12억 들었음, 대지 평당 90만원 이상감
※ 마산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큼. 노스님 신병으로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합니다.
☎ 055)294-4889 02)351-4447 053)652-9598 02)326-1060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와룡사 산세좋은 2차선 도로변
● 대지 : 158평
● 건물 : 2층 법당, 1층 요사채, 삼존불, 건평 65평
● 가액 : 총 평당 25,000원
055) 854-6458
011) 840-1578

사찰안내
● 위치 : 군산시내 10분 거리
● 법당 주산포 21평
● 요사체 신축건물 50평
지방문화재 3층 석탑, 대지 400평 등기필 있음. 도로근접 동네를 끼고 있고 절 뒷면 등산로 심아 보일러 태양 온수기 설치 주차장 있음
● 가액 2억 6천 (절충 가능)
011)671-5161
063)451-2410, 451-5161

포교당 안내
● 위치 : 울산
● 평수 : 법당 10평, 방 2개 주방 2개 화장실 2개 창고, 시설 A급, 주차시설 완비, 식기류 일체 무상 제공
● 가액 : 보증금 1200만 월 20만원 시설비 : 1000만원
052)294-3537
011)9315-1200

토굴 안내
● 경남 산청군 산청읍
● 대지 : 103평
● 법당, 요사채 20평
● 가액 : 3500만원
집기류 일체 무료
055)972-4841

사찰안내
● 위치 : 광주 시내 중심가
● 1층 유치원, 2층 법당 60평
● 요사채 2채, 대지 320평
● 특징 : 등림산 중턱에 있는 사찰
● 가액 : 약 8억 (절충가능)
011)633-8450
062)368-8450

사 찰 안 내
● 위치 : 가평군 하악산 줄기
● 특징 : 벗나무가 많고, 산세수려, 물이 좋고, 계곡 깊음
● 건물 : 법당, 용화전, 용왕전, 산신각, 요사채 2동, 샤워실, 욕실, 화장실
● 평수 : 1000평
● 가액 : 3억 5천(절충가능)
017)708-0635

포교당 안내
● 위치 : 강동구 명일동 구분다리역 부근(전철역 부근)
● 시설 : 2층, 28평 임법당 3존불 후불탱화 신중당 영가단 시설완벽 법회가능 방 2개 주방 샤워실 화장실 다용도실
● 가액 : 보증금 1000만 월 7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02)426-2183
011)222-8841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동대신동
● 대지 : 200평, 절 신축 법당, 산신당, 요사채 고급
● 특징 : 교통편리 (버스 정류소 50m) 고목, 대나무 울창
● 가액 : 5억 2천
016)651-1800
011)870-1463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부천여중 뒤
● 평수 : 3층 23평
● 보증금 : 5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 천만원
032)654-5859/011)294-0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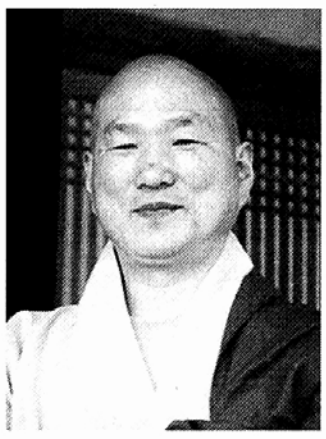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수성 4가 (요지)
● 평수 : 70평 4층 건물 3층
● 구조 : 법당시설 A급, 개금동불 (아미타불 5자) 일급 탱화 모든 시설 완비, 요사채 2, 주방 1, 앰프시설완비, 샤워장, 화장실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전세) 월세8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1)523-0716/054)292-4117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근교 ● 부지 : 310평
● 법당 : 15평 ● 요사 : 25평
● 가액 : 3억 1천만원
※ 전국 사찰 표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암련 회장에 듣는다

"교양대 세워 신도교육"

상주 사암련 수봉스님



"전통사찰과 복지 · 교육시설에서 시민들이 휴식과 수행, 보시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 좋은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백두대간과 영남의 젖줄 낙동강이 감싸안고 있는 상주시는 영남지역에서도 가장 불심이 돈독한 곳으로 유명하다. 인구 14만여명 중에 불자는 적어도 7만여명을 헤아리며, 김근수 시장을 비롯한 지역유지들이 대부분 불자들이어서 대표적인 신행단체인 상주법우회는 40여년의 전통을 자랑할 정도다.

이 곳 상주시의 60여개 사찰의 포교와 신행을 이끄는 상주사암연합회 회장 수봉스님(남장사 주지)은 "지역 불자들의 신심에 걸맞게 복지불사를 중점적으로 펼쳐왔다"면서 "이제는 신행활동이 질적인 성장기에 들어선 만큼 신도들의 불교공부로 내적인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유치원 · 어린이집 설립 새싹포교

장수잔치 · 무료급식 등 노인 돕기

지난 83년 6월 창립된 상주사암련은 17년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역사찰의 힘을 모아 상락유치원을 설립해 어린이 포교에 나섰으며, 10년전에는 교사불자회를 발족시킨데 이어 96년에는 11개 중 · 고등학교에 파라미타 분회를 창립해 일찍부터 청소년 포교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97년부터는 이런 포교역량을 바탕으로 상주시에서 처음 생긴 냉림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 복지불사에 나섰다. 97년 부설 어린이집 설립에 이어 '도움의 전화' 상담실과 경로급식소를 98년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해 활발한 복지사업을 펼쳐왔다.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만들어 주부들이 자발적으로 주 5일씩 120여명의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 · 청소년 · 노인 · 장애인 복지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불교가 사회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는 수봉스님의 소신 때문. 20일 상주실내체육관에서 어르신 200명을 초청해 '장수 한마당 큰잔치'를 열고, 지역 학생들에게 2,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것도 고려시대부터 각 사찰에서 외로운 노인과 어린이를 부양해 온 불교의 구휼사상을 이어받은 것이다.

수봉스님은 올해 하반기에 김천 · 구미 · 상주 · 문경 · 예천 등 조계종 8교구 산하의 말사들이 동참하는 불교교양대학을 설립할 예정이다. 특히 남장사가 8개 동에서 열고 있는 지역법회와 매달 2~3회 실시하는 철야정진법회, 사찰재정 공개행정 등을 회원 사찰로 확산시켜, 불자들의 신(믿음) · 해(교리) · 행(실천) · 증(깨달음) 고양을 위해 진력할 방침이다.

수봉스님은 "사찰의 주인인 불자들이 지역사회의 모범으로 우뚝서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게 스님들의 소임"이라고 말했다.

상주=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감천사 뒷산 택지개발 물의

다세대 80가구 추진…소음 · 수질오염 등 우려

부산 연산동 감천사(주지 현일) 사찰 경계선에 700평 규모의 다세대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사찰환경 및 산림파괴가 우려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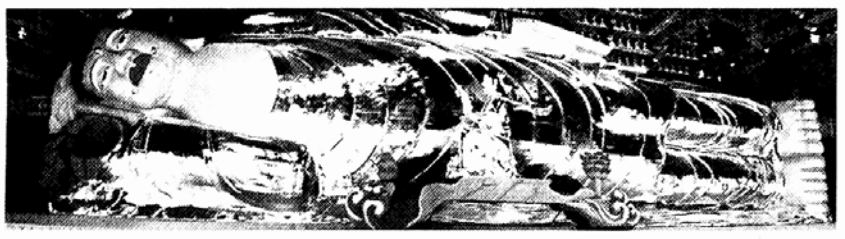
대웅전 바로 뒤편에 맞닿은 뒷산에 6개동 80세대 규모인 다세대주택이 들어설 경우 산림파괴는 물론 소음, 수질 오염 등의 환경오염이 예상된다. 또한 현재 허가가 난 부지외의 주변 개인소유지도 주택 건립 허가 신청을 냈다가 사찰측의 항의가 잇따르자 반려된 상태라, 이번 건립이 진행될 경우 순차적인 자연파괴를 불러 올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다세대 주택 건립 예정지는 기초공사를 위해 소나무를 비롯한 자연림 상당수를 베어낸 상태. 이렇게 사찰과 주민들의 반대에도 연제구청은 허가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감천사와 인근 사찰 혜원정사(주지 효명)의 신도들은 18일 해당 허가 관청인 연제구청을 항의 방문하고 공사현장에 나가 공사를 저지하고 있다. 또한 건축허가 전면 취소와 건립 백지화를 위한 서명운동, 연제구청 항의방문 등 다각적인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24일 연제구청앞에서 시위를 벌인 감천사 주지 현일스님은 "대웅전 바로 뒤에 위치한 산야를 훼손하면서 이루어지는 주택 건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교계와 주민 모두의 힘을 모아 주택 건립이 백지화 될 때 까지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백천사 몸속법당 약사와불

경남 사천시 백천사(주지 성밀)는 22일 '세계최대 약사와불 봉불식 및 큰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과 불국사 주지 성타스님, 석굴암 주지 종상스님(백천사 회주), 약천사 회주 혜인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불식과 문화공연 등으로 펼쳐졌다.

백천사 약사와불은 예불을 올릴 수 있는 '몸속 법당'이 특징으로서 길이 12m, 높이 3m75cm 규모다.

(055)833-0156 김재경 기자

"실천중심 복지 모델 개발"

대한 불교복지硏 개원

세미나 학회지등 발간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회장 혜총)는 20일 부산불교회관 대법당에서 불교사회복지의 정체성 확립과 활성화를 위한 대한불교사회복지연구원(원장 혜총)을 개원했다.



◇20일열린 불교사회복지연구원개원식.

부산불교회관 3층에 문을 연 불교사회복지연구원은 사회복지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불교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연구와 개발에 역점을 두게 되며, 이로써 부산권에서 운영되고 있는 10개 불교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활동을 보다 학술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기관을 갖게 된 셈이다.

이번 연구원 개원을 계기로 현재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교계 복지관, 청소년 수련관, 어린이집 등은 상호 연계와 정보 교류, 공동 연구를 통해 보다 향상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초대 원장을 맡게 된 혜총스님은 "그동안 양적인 팽창을 보여온 부산의 불교사회복지활동은 날로 늘어가는 사회복지 수요와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의 활동 역사와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에 걸맞는 실용적이고 참신한 복지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타 복지계의 프로그램과 차별화되고 불교만의 색채가 뚜렷한 프로그램 개발을 표방하고 있는 불교사회복지연구원은 부처님오신날 기념 세미나 개최, 성도재일 기념 학회지 발간, 현장 사례 중심의 프로그램 공모, 일본 및 대만의 불교사회복지 사례 연구 등의 사업으로 불교복지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천미희 기자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문앞 상가건축

학교측 공사중지 요구

조계종립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앞에 상가건물이 신축되는 등 난개발문제로 교육환경이 위협받고 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측은 지난 4일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구성, 경주시청과 공사현장(대지 3백60여평,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잇따라 방문해 공사중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2일에는 교수 · 학생 1500여명이 학교 앞에서 '난개발 저지를 위한 동국인 규탄대회'를 열어 경찰관 3백여명이 출동하기도 했다.

학교측은 "불교계 학교이므로 다섯곳의 법당에서 조용한 수련을 보장해야 하고, 병원과 교육 환경권도 지켜야 하므로 학교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 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측이 합리적인 대안을 내달라"는 경주시의 요청에 대학측은 상가건물과 인근 생산녹지 9천여평을 매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익산 영천사 대웅전 낙성



전북 익산시 왕궁면 도순리산에 소재한 영천사(주지 도암)가 지난 7일 착공 5년만에 대웅전 낙성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동고사 주지 혜정, 금락암 주지 석정, 석불사 회암스님 등 사부대중 400명이 참석했다.

조기식 전북지사장

복지보건대-소방서 결연

불교복지보건대학(명예학장 성오)이 23일 부산소방본부(본부장 김명현)에서 119소방본부와 자매결연을 맺고 소방대원의 간병에 나선다.

진화나 긴급구조 활동 중 소방대원이 부상을 당해 간병이 필요할 때 불교복지보건대학에서 간병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들이 간병을 맡게 된다.

부산=천미희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종단소식

조계종

한암대종사 126돌 탄신재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현해)는 20일 오전 월정사 적광전에서 조계종 초대종정 한암대종사 제126주기 탄신재를 봉행했다. 이어 한암문도회(회장 인허)는 대강당에서 탄허스님 문집 발간 추진의건 등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팔만대장경 이운 재연

제12교구본사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세민)는 28일 팔만대장경축제 행사의 하나로 해인사 길상암에서 경판이 보관된 장경각까지 2㎞에 걸쳐 대장경 이운경로 재연행사를 갖는다. 이날 행사에서는 300여명의 스님과 신도들이 1천여개의 모조 경판을 소와 달구지, 지게, 봇짐 등을 이용해 옮기거나 머리에 이고 행렬한다.

진각종

대정사·대전수 9명 품수

진각종 원의회는 제191회 원의회를 개최하고 대정사 · 대전수 행계 품수심의를 거쳐 혜인(부산 범석심인당 주교), 일석(구미 보광심인당 주교), 덕일(경주 상석심인당 주교), 효봉(서울 법륜심인당 주교), 의현(대구 의밀심인당 주교) 등 5명의 스승에게 대정사 행계를 품수하고, 덕일심(서울 신촌심인당), 본유제(영천 천혜심인당), 지심정(포항 보정심인당), 자광정(경주 선혜심인당)등 4명의 스승에게 대전수 행계를 품수키로 의결, 19일 총인원 종조전에서 종단 스승들이 동참한 가운데 품수식을 봉행했다.

법륜종

종회의장에 혜안스님



법륜종은 16일 정기중앙종회를 열고 제4대 종회의장에 혜안스님(낙양사 주지 · 사진)을, 부의장에 성타스님(용문사 주지) 도승스님(연화사 주지)을 각각 선출했다. 혜안스님은 1937년생으로 47년 수덕사에서 법인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75년 봉원사에서 묵담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법륜종 규정부장, 재단법인 한국불교 법륜종 감사 등을 역임했다.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 괘 :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 규 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天物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 延年 不老 仙經業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 흉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 상담 : 02)2201-3333



◇내달 5일 기공식을 갖는 천태종립 금강대학의 강의동 조감도. 논산시 상원면 대명리 부지에 세워진다.

천태종립 금강대학 '첫 삽'

5월5일 논산서 기공식…2003년 개교

불교계 4번째 4년제 정규종합대학인 천태종립 '금강대학교'가 본격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뜬다.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4년제 정규대학인 금강대학교의 건립기공식을 내달 5일 오전 11시 충남 논산시 상원면 대명리 부지에서 봉행, 2003년 3월 개교를 위한 본격 준비에 나섰다.

불교중흥과 전문 인재양성을 목표로 설립되는 금강대학은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의 유지에 따라 지난 82년 대학건립이 결의되어 97년 4년제 종합대학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가 개최되었고 같은 해 7월 '학교법인 금강불교학원(이사장 도용, 종정스님)'의 설립을 교육부로부터 허가받았다. 지난해 10월에는 논산시로부터 학교부지 입지승인을 받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논산 상원면 대명리 10만여평 부지에 세워지는 금강대학은 우선 1차로 강의동(3603평)과 기숙사(3265평)를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건립한다. 최첨단 설비를 갖춘 현대식 건물로 지어질 강의동과 기숙사는 내년 8월 준공 예정으로 금강대는 이후 2009년까지 대학 및 대학원 건물을 10여동 더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컴퓨터 등 최첨단 시설이 들어가는 강의동에는 300명이 한자리에서 공연할 수 있는 강당과 강의실, 실습실, 도서실, 평상시에도 수행을 할 수 있는 법당과 선방, 교수연구실, 행정실과 회의실, 복지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기숙사는 4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2003년 개교시 우선 불교학과와 동양철학과 2개 학과 각각 50명씩 100명을 모집하는 금강대학은 늦게 출발하는 만큼 학생들의 능력을 최대한 키워줄 수 있는 여건 마련과 미래를 위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위해 종합적인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현재 막바지 작업을 하고있다. 또한 외국의 유명대학과의 공동교육프로그램 운영, 일류연구소와의 공동연구 프로젝트, 외국의 불교사적 현장학습, 외국어 연수 등도 구상하고 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011 n · TOP 접속 봉축메시지 '인기'

유무선 인터넷으로 서비스되는 봉축 메시지가 N세대들의 취향에 맞아떨어지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SK 텔레콤 무선인터넷 n.TOP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봉축 메시지 보내기는 시범 서비스 기간에도 200여통 이상의 접속 건수를 보이는 등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무선인터넷 봉축메시지를 보내려면 011 n.TOP에 접속해 7.여성/문화〉9.종교〉1.불교정보의 '봉축 축하메시지 보내기'를 선택하면 된다.

부다피아 카드나라 웹카드도 신청 늘어

부다피아 카드나라(http://card.buddhapia.com)에서도 동일한 메시지 서비스를 웹카드와 함께 제공하고 있다. 연꽃 단청 동자 수막새 등의 일러스트로 구성된 웹카드들은 불교의 향기를 담아 네티즌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 불교정보센터 웹카드서비스(http://www.budgate.net/scripts/addon/card)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웹카드를 보여준다.

강지연 기자

김태복장군 구명운동 '본격화'

조계종 · 불교단체등

김태복 장군 사건과 관련해 조계종 총무원과 불교단체들이 본격적인 구명활동에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은 18일 청와대와 대법원에 총무원장 정대스님 명의의 탄원서를 접수시키고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종교편향 없는 국가 정책 실현을 불교계 10대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김태복 장군 사건으로 실추된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하고 김태복 장군이 군과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청원했다.

또한 "불사시주금을 뇌물로 규정하는 군당국의 무리한 주장에 대해 사회의 통념과 상식에 준하는 대법원의 객관적이며 공명정대한 재판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18일 국방부에 항의 공문을 보내 "군 당국이 순수한 종교행위로 이루어진 법당건립 불사 시주금을 뇌물로 규정한 것은 불교계를 기만하고 우롱한 처사"라며 "특히 사건조사 과정에서 증인회유 및 증거조작 등의 행위를 자행한 만큼 군 검찰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대불청, 여성개발원, 대불련 등 5개 불교단체들은 17일 단체실무자 회의에서 '가칭 군 종교편향 근절과 김태복장군 사건 해결을 위한 불교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25일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또한 1인 릴레이 시위, 항의 법회 등을 통해 이번 사건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두식 기자

전통사찰 주변 개발 제한

고성군 조례제정

강원도 고성군은 전통사찰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보호키로 했다.

고성군은 전통사찰 주변 사유지에서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자연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올해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조례'를 제정, 난개발을 방지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성군은 조례에서 민족문화유산으로 전통사찰의 건조물 및 문화재 유지 · 관리를 위해 각종 개발계획 수립시 주변지역의 경관이 방해되지 않도록 건축물 높이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 신축되는 건축물은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와 형태, 디자인 등을 고려하고 건축물 주변의 녹지보전과 조성을 통해 주변지역과 일체감을 유지토록 할 방침이다.

고성군지역에서 현재 전통사찰로 지정된 곳은 건봉사를 비롯해 토성면 화암사, 간성읍 극락암 등 3개소이다.

김재경 기자

"지리산 골프장 백지화"

국민행동 성명 발표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사실상 백지화시킨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상임대표 수경스님, 이하 국민행동)이 이번에는 골프장 백지화 운동에 나섰다.

국민행동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남원시가 지리산 엄천강 발원지에 건설 예정인 운봉 골프장의 건설은 지리산의 환경파괴는 물론 지리산 주민들의 상수원인 엄천강의 수질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전북도와 남원시는 지리산과 백두대간의 소중한 자연자원을 파헤치는 마구잡이식 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오폐수 방지대책과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재경 기자

우곡선원 외국인 장학생 禪체험

24개국 56명 초청

우곡선원(원장 장명화)은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2일간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선 체험' 행사를 갖는다.

교육부 산하 국제교육진흥원에서 관리하는 세계 24개국의 정부초청석 · 박사 과정 외국인 장학생 56명에게 한국의 선을 체험케 하는 이번 수련회는 불교문화 체험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더욱 깊이 느끼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내 대학생 20명, 재가불자 50명도 함께 참여하는 이번 수련회는 참선 강의 및 실수, 선체조, 발우공양, 사찰예절, 108배 정진, 포행, 도량석 및 아침예불, 법주사 참배 등으로 진행된다.

일반인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생활참선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하면서, 종교와 이념을 초월한 심성 개발에 주력해 온 우곡선원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 친한 · 지한 인사를 양성함은 물론 한국의 선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기회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02)529-5027

김재경 기자

부처님의 가르침과 큰 스님들의 말씀을 21세기 첨단의식공학 기법으로 새롭게 만나보십시오. 9일간의 자기 성찰 여행이 당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당신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한벗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동시통역사 손인국 · 아바타 마스터/임상심리 전문가 김정원

연락을 주시는 분께는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 1동 1277

전화 : 02) 3392-0464 / 핸드폰 : 016) 271-2096

자비릴레이 사찰 연합 봉사

불교자원봉사련 28 · 30일 종묘광장서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소외된 어르신을 위한 '자비릴레이 사찰 연합봉사'를 28일과 30일 종묘시민광장에서 개최한다.

사천왕사, 방생선원, 법성사, 국제워크캠프기구, 한국사진봉사회가 참여하는 자비릴레이 연합봉사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이 · 미용 봉사와 영정사진 찍어드리기를 실시하며, 30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수지침 봉사와 파스요법봉사를 실시한다.

한편 자원봉사연합회는 24일부터 30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노인 및 실직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실향민, 탈북자 등 소외계층에게 소망의 연등을 달아주는 '무차연등회'를 개최한다. (02)723-6258 한명우 기자

불교인권정보센터 설립 추진

실천승가회, 29일 종로서 인권문화제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 청화)가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개선운동에 나서는 한편 불교인권정보센터 설립을 추진해 관심이 모아진다.

실천승가회는 오는 29일 오후 4시 서울 국세청 앞에서 '외국인노동자에게 희망을'이란 주제로 제3회 불교인권문화제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외국인노동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편 오는 6월경 조직체계를 갖추게 될 불교인권정보센터는 실천승가회 산하 기구로 설립되지만, 재가단체 종사자와 전문가 등 출 · 재가가 함께 하는 사이버 인권센터로 출범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노인복지시설 '창천노인문화센터'가 19일 개원했다. 개원식에서 홍파 이사장, 이정규서대문구청장 등이 개원테이프 커팅을 하고있다.

창천 노인문화센터 개원

치매클리닉 등 개설

관음종 부설 사회복지법인 서울복지원(원장 지영재)은 서대문구 창천동 4-61 의 지하1층 지상 2층 건물 150평을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창천노인문화센터'의 개원식을 19일 가졌다. 관음종이 복지법인 인가를 받은 후 첫 수탁체인 창천노인문화센터는 이날 개원식을 기념해 400여 노인들을 초청 경노잔치도 가졌다.

창천노인문화센터는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해 문화교실과 침술 물리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치매클리닉도 개설할 예정이다.

개원식에는 홍파 서울복지원 이사장(인터뷰 4면), 이정규 서대문구청장, 부지를 제공한 김종철 서대문구의회 부의장 등과 지역 노인 등 4백여명이 동참했다.

이경숙 기자

■사업승인: 경북관광91743-289 ■분양승인: 경북관광91700109135

일성의 7번째 직영콘도 190만원 계약금 + 등기 주인으로 모십니다!!



일성 경주보문콘도 창립회원 모집

● 창립 회원 가입시 혜택

- 지분분양으로 등기제와 회원제만 분양
- 평생동안 연회비 면제
- 전세계 90개국 3,300여체인 사용 가능
- 직영콘도의 사우나/수영장 평생무료 (효도카드)
- 계약과 동시에 전국 16곳 정회원 사용
- 신용카드 장기 분할 가능(18개월)

● 경주분양가 및 평형

17평형	19평형	28평형	35평형
498만원	557만원	791만원	1026만원

창립회원 입금계좌번호

입금계좌번호	국민은행 : 006-25-0018-714 농 협 : 053-01-239331
예 금 주	일성리조트(주)

일성콘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정한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사용하는 정상적인 기업입니다.

회원가입문의 02)718-9372

자연사랑과 가족사랑의 실천입니다. 일성콘도미니엄 ILSUNG CONDOMINIUM



절로 가는길은 험해야 제격

감성으로 보는 절

<7>무량자비 바다-고해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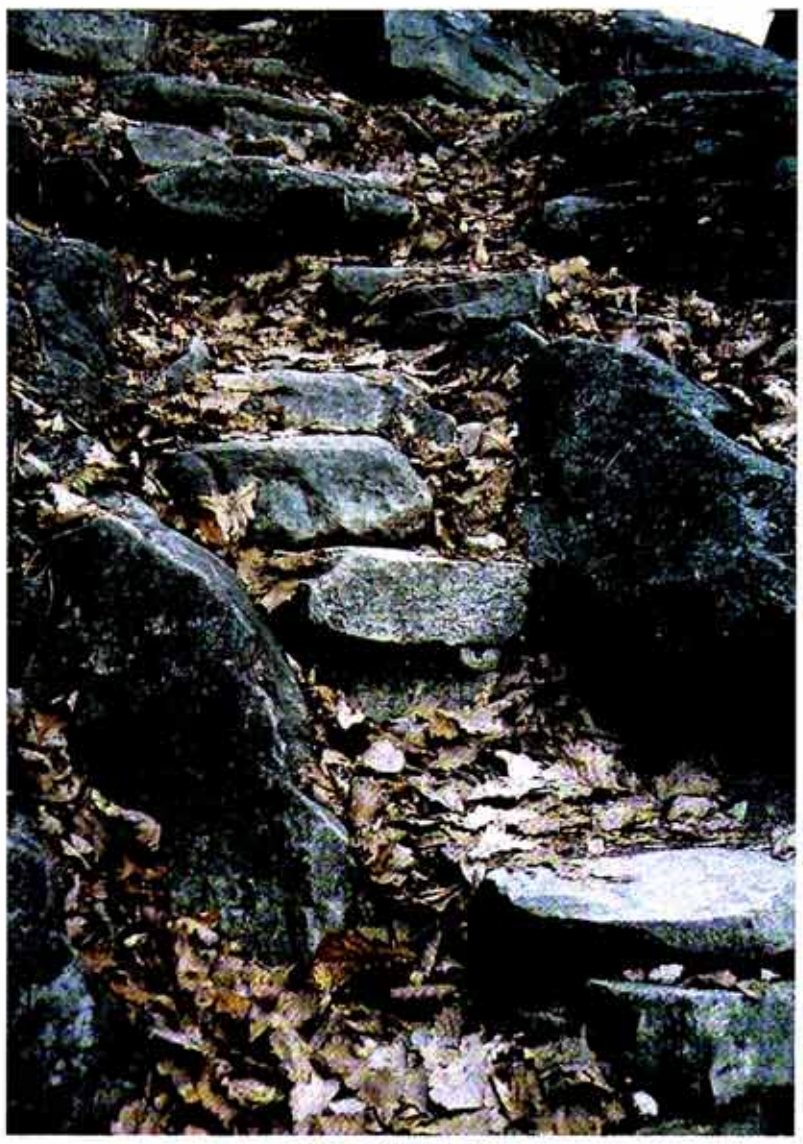
나는 '아름다움'이란 말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가 보다. 그래서 TV에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세상엔 별 게 다 있다!)를 보면서, 우리 애와 진·선 미 맞추기 내기를 하면, 내 예상은 번번이 빗나가고, 난 늘 손해만 보게 된다. 이런 내 약점을 뻔히 아는 우리 애는 이럴 때면 으레 나와 내기를 하자고 조른다. 나는 물론 번번이 당하기만 하고. 뭐가 아름다운고?

촬영을 갈 때, 을긋불긋 화려한 꽃이나, 냇가를 지날 때 수없이 감탄사를 흘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시끄러울(?) 정도로, 아름답다, 멋있다, 좋다는 말을 쏟아 붓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이런 이들이 부러워 나는 오히려 그들을 보고 감탄한다. 그리고 그런 호들갑에 나는 그저 예의상 멍달아 고개를 끄덕여 주거나 건성으로 천사를 몇 마디 던지곤 하지만 솔직히 뭐가 아름다운 건지 실감하진 못 한다. 그래서 난 내가 혹시 목석이거나, 미적 불감증 환자(?)가 아닌가 의심을 해 보기도 한다. 꽃이 그렇게 아름다운고?

내가 또 한 가지 그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건 '행복'이란 말이다. 행복? 난 내가 행복하게 살아 보지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행복하다는 게 뭔지, 도무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다. 돈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고, 집안에 근심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저 하루하루를 즐겁게 지내면 그게 행복한 걸까?

중학교 때 훈육 선생님(그 땐 훈육 선생님이 따로 있었는데, 아주 무서운 분이었다) 한 분이 새로 부임해 오셨다. 첫 시간에 들어오시더니, 교탁앞에 서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크게 교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큰 소리로 일갈하셨다. 내 별명이 호랑이다! 기골이 장대하고, 손바닥은 솥뚜껑만 하고, 게다가 목청마저 우레와 같이 뭉뭉 울리는 선생님을 보고, 우린 이건 염포가 아니라(요즘 갈로 장난 아니네!) 진짜 호랑이가 나타났구나 싶어, 모두 기가 죽어 쥐 죽은 듯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지냈다. 그런데, 우리 나라 호랑이는 역시 인자하고 따뜻하다는 것을 느끼고, 우리는 그 호랑이를 '인왕산 호랑이'라고 부르며 따르게 됐다. 어느 날 그 선생님이 서양의 명언(누구의 명언인지 지금은 잊었는데)을 인용하며, 우리에게 훈육했던 말씀이 어린 나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때의 말이 생생히 떠오르며, 나의 일생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눈물 쉬인(?) 밥을 먹어 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

행복! 참 좋은 말이다. 사람은 이 행복이란 파랑새를 잡으러 먼 산도 마다하지 않고 줄기차게 헤맨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기어코 잡은 건 파랑새가 아니라 황금새다. 그리고 그 황금새를 깃털부터 과먹으며 스스로 황홀해한다. 가끔은 콩고물도 뿌리면서 즐거워한다. 그럽까?



◇대문산 태고사 가는 길.

고행거쳐 피안에 도달한
부처님이 계신 절
편하게 찻길로 가기보다
울퉁불퉁 돌길 좋아보여

행복! 그래, 난 행복하다고 느낄 때 오히려 허망해진다. 그것이 꿈인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될 때, 나는 행복할 수가 없다.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수많은 중생이 이 삶의 바다에서 부유하고 있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이다. 아니, 삶 그 자체가 고통인 것을 나는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이다.

요즘은 절에 가는 길도 고속도로처럼 잘 닦여 있어서 아주 편하다. 찻길이 일주문 옆으로 스쳐 지나가고, 사천왕문도 빗겨 지나가서 대웅전 앞마당까지 닿는다. 깊은 산 속에 있는 절도 스님만 다니는 찻길이 그렇게 따로 나 있다고 한다. 신도와 스님이 편하게 다니라고 그런 것이란다.

고타마 싯다르타는 흐르는 시냇물을 마시고, 이름 모를 풀잎으로 굶주림을 달래며 고행을 하셨다. 나무처럼 돼 버린 몸과 머리를, 까치가 나무인줄 알고 ㅈ치집을 지었다고 한다. 절이 부처님 계신 곳이라면, 절로 가는 길 역시 부처님이 겪으셨던 그 고행의 길이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괴로움은 삶의 바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별거 아닌 인생을 행복하다고 즐거워하는 사람(사람만이 행복, 불행을 따지지?)을 보면, 보신탕집 개장 안에서 물색없이 뛰노는 누렁개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나는 험한 산길을 좋아한다. 더욱이 절로 가는 길은 험한 돌길이 제격이다. 그래서 난 일부러 아스팔트길을 벗어나 산길로 돌아가기를 좋아한다. 그게 퍽 즐겁고, 내 격에도 맞는다. 인생이 무엇이기에.

전생(사진가)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참 진리 '인연법' 가르쳐

한글대장경의 세계

장아함경

6.전륜성왕수행경
부처님이 사념처관(四念處觀)을 가르친 경이다. 유행경에서 강조되고 있는 '자치치연법(自燃燃燃法) 불타치연(不他燃燃) 자귀의(自歸依) 귀의어법 불타귀의(歸依於法不他歸依)'를 설하고 있다.

7.폐숙경
가섭동자가 폐숙 바라문의 악견사설(惡見邪說)인 단론(斷論)을 12종의 비유로써 파절하여 다른 세계와 업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한 내용이다.

8.산타나경
산타나 거사가 오잠바리의 범지여림(梵志女林)에서 5백의 범지에게 부처님을 설복하기 쉽다고 말하자 이를 천이(天耳)로 들은 부처님이 범지들의 고행처를 찾아가 5계와 10선, 4무량심을 닦아 보리를 얻는 길을 가르친다.

9.중집경
부처님이 파바성에 있을 때 배통(背痛)으로 괴로워하시자 사리불이 대신하여 설법의 형식을 취한 내용이다. 지나교의 분열된 모습에 대해 그 법이 진정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라 진단하며 여래의 법이 진정한 해탈도의 가르침임을 설하고 있다.

10.십상경, 11.증일경 12.삼취경
중집경과 같은 경우로서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설법하신 것으로 법상(法相)을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증일경과 삼취경도 같은 경우다.

13.대연방편경
부처님이 아난에게 불교의 근본교의를 말씀하신 것. 인연법을 순역(順逆)생멸의 관법에 따라 설명한다.

14.석제환인문경
일체중생의 원결(怨結)은 탐욕과 질투에서 생기고 탐욕과 질투는 애증(愛憎)에서 생기고 애증은 욕(欲)에서 생기고 욕은 상(想)에서 생기고 상은 조회(調戲)에서 일어나므로 조희를 없애면 원결도 없어지고 서로 상해함도 없어진다고 가르친다.

15.아누이경
명녕국의 아누이성에 있던 부처님이 외도를 위하여 선숙비구의 예를 들며 해탈도를 가르친다.

16.선생경
선생장자가 아버지의 유칙에 따라 육방에 예경하는데 부처님은 그 진정한 의의와 내용을 가르친다.

17.청정경
주나사 사미가 외도와의 다툼에 대해 얘기하자 부처님은 무쟁(無諍)의 정법을 가르친다.

18.자환희경
사리불이 부처님의 공덕과 위신력을 찬탄하자 부처님은 부처를 지향할 것이 아니라 법을 지향해야 한다는 법지상주의(法至上主義)를 가르쳤다.

19.대회경
부처님이 석시제국 가유림에 있을 때 시방의 모든 신과 묘천(妙天)들이 그곳에 모여 삼보를 예경하고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였으므로 자신을 위시하여 제석천왕에 이르도록 모든 신 및 모든 권속신의 환위혀망(幻僞虛妄)한 마음을 항복 받기 위하여 부처님이 주문을 외운다.

20.아마주경
부처님의 32상에 대해 의심을 하는 아마주를 위해 부처님은 종성의 인연을 설명하신다.

임연태 뉴미디어 부장

"원결은 탐욕질투에서
탐욕질투는 애증에서
애증은 욕심에서 생겨"



현대불교신문사와 동국역경원은 이 캠페인에 불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캠페인 및 대장경 봉안 불사, 역경후원회 가입 등과 관련한 문의도 항시 받고 있다. 장경각보급 및 캠페인 관련 문의 (02)722-4162, 역경후원회 문의 (02)2260-3993, 역경후원금 온라인 농협 078-02-079975 예금주 강계술(석주스님).


중량 3,300관

가야산 법보종찰 해인사 대범종

천년을 이어갈 맑은 「범음」
종종사는 오직 鐘만을 생각합니다.

장인정신

鐘 宗 社

서울 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302호 ☎ 02)725-0878
공 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 043)212-0903